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품 도록
기증유물

1	발간사	5
	아름다운 선행 ^{善行} , 기증	6
	연도별 기증유물 현황	8
	기증유물 특별전시 개최 현황	10
2	논고: 선의 순환, 기증	14
	- 부용식(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연구과장)	
	기증 유물	22
	개관 이전 ~1984. 5월	24
3	1980년대 개관 이후	48
	1990년대	60
	2000년대	88
	2010년대	114
3	2020년대 ~2023. 11월	146
	기증자 인터뷰	162
부록		180
	「7개의 공간, n개의 삶」 특별전	180
	도판목록	204
	참고문헌	214

일러두기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품 중 기증유물 303점(유물번호 기준)을 선별해 수록한 도록이다.
- 유물명, 시대, 재질, 크기, 유물번호, 기증자명, 기증 연도 순으로 기재하였다.
 - ※ 유물의 성격에 따라서 작가명 및 저자명도 함께 기술하였다.
- 여러 종류의 재질로 이루어진 유물은 주요 재질만 적었고, 미상(未詳)인 정보는 따로 기술하지 않았다.
- 유물의 크기 단위는 cm이다.

발간사

내년 갑진년(2024)이면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개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1984년 개관 이래 박물관은 소장품 수집과 보존·관리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구입, 기증, 자체 수집의 방법으로 축적된 소중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전시, 책자 발간, 교육 등에 활용했습니다. 이 중에 ‘기증’은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기증을 통해 각처에서 삶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띠는 유물들이 모여들며, 자료 가치가 뛰어난 유물이 대가 없이 공공에 귀속, 영구히 보존되어 후세대에 전승됩니다.

우리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의 기증자료는 중요한 위상을 차지합니다. 총 소장자료 39,397점 중 28%가 넘는 11,098점이 기증으로 수집되었습니다. 특히 민속 분야의 경우 기증자료의 비중이 전체의 76%에 달합니다. 1천여 분께서 기증한 11,000점이 넘는 유물 자료의 가치는 매우 각별합니다. 박물관 건물이 지어지기도 전인 1977년부터 매년 26명 가까운 분들이 3백여 점의 자료를 기증한 셈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속(생활사)과 자연사가 융합된 박물관으로 명성을 유지하게 된 근원은 바로 기증자와 기증자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물관은 소중한 기증자료를 소개하고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박물관 개관 연도(1984)에 ‘청강 기증품 및 산악인 고상돈 유품전’을 시작으로 총 24회의 기증자료 특별전시를 개최하여 주요 기증유물을 소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사체로 발견되어 박물관으로 인수된 참고래 골격표본과 다양한 생활도구 기증자료를 전시하여 박물관 로비를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향토사가 오성찬 선생이 제주도내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조사한 녹음테이프를 디지털화하고, 4·3사건 관련 증언을 정리하여 채록집을 출판하였습니다. 기증받은 고문서 자료를 번역·해제한 역사자료총서를 출간하여 옛 제주인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에 펴내는 소장품 도록은 박물관 개관 40주년 기념 기증자료 특별전 ‘7개의 공간, n개의 삶’의 주제를 중심으로 전시된 주요 기증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박물관에 기증된 유물들을 보듬으며 기증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증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기증자료에 비해서 전시·공개·발간 등에 활용되지 못한 자료들이 많아서 아쉽습니다. 앞으로 기증자료 등 박물관 소장품을 계속 정리·활용하여 전시하고, 충실한 도록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 찬 식

1. 아름다운 선행^{善行}, 기증

박물관의 근간인 유물은 크게 기증, 구입, 자체 수집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축적한다. 이 중 기증은 사회적이고 인도적인 유물 수집 방법으로 기증이라는 행위 자체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단순히 자신의 물건을 주는 것을 넘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화유산의 전달이 박물관으로의 기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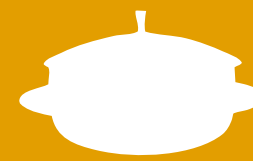
‘돈이나 물품 따위를 남을 위해 그냥 줌.’ 기증의 사전적 의미이다. 의미 그대로 자신의 자산을 대가 없이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기증이다. 이러한 의미를 박물관으로의 기증에 적용하면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의 공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기부하는 행위’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

박물관은 기증받은 유물을 소중히 보관하고 면밀한 조사와 연구 끝에 전시, 책자 발간, 교육 등 여러 분야의 결과물을 내고 유물에 대해서 공공에 소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박물관으로 기증한 유물은 박물관만의 자산이 아닌, 공공의 자산으로서 역할을 한다.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는 것은 문화적·역사적·예술적 가치를 갖는 자료를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한 소중한 행위이며, 여러 가지 의미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역사, 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박물관으로의 기증은 지역이나 문화의 특징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지식의 전파와 교육의 증진과 지역 사회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특정 시대의 생활양식, 기술, 예술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앞으로의 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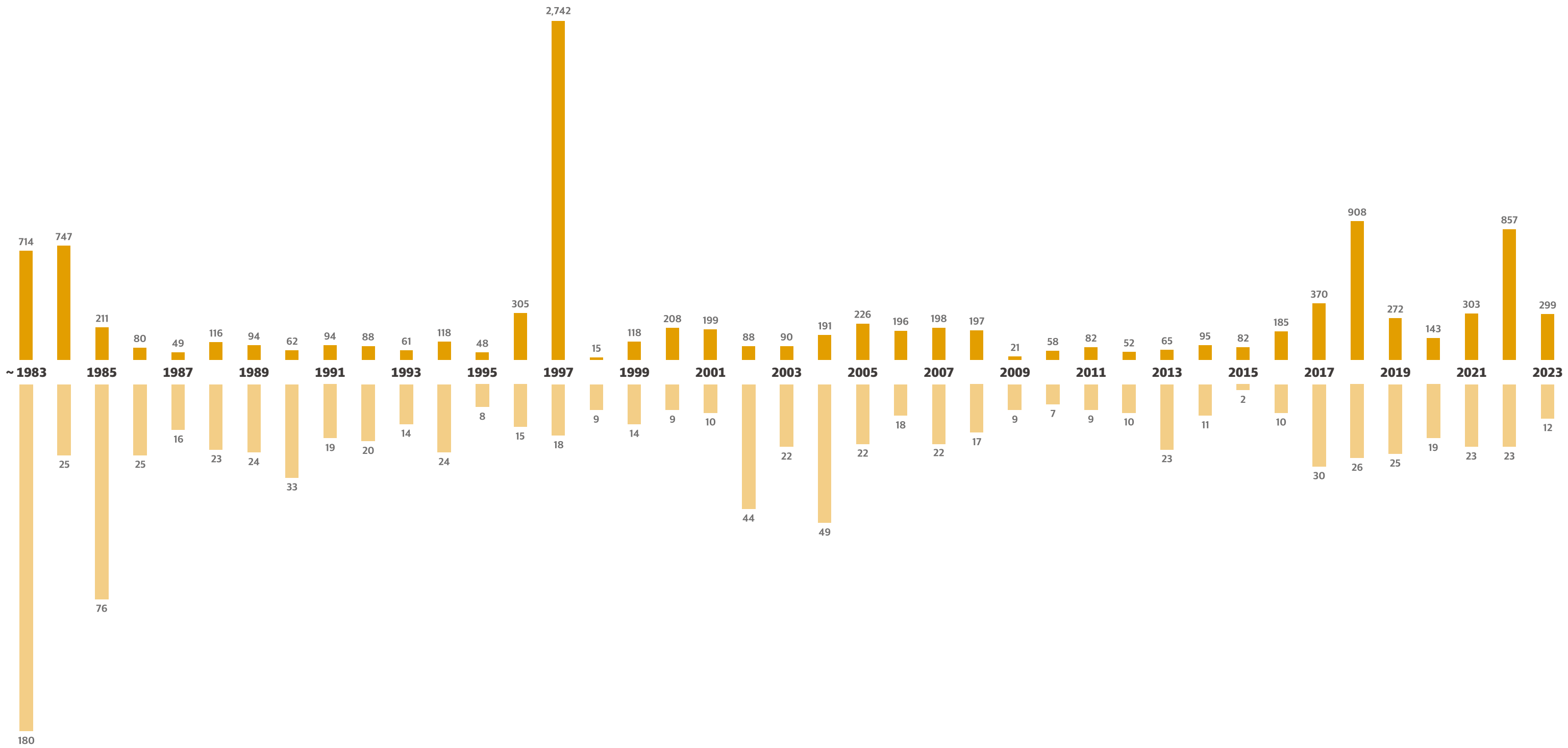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기증유물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박물관 소장유물 39,397점 중 약 28%인 11,098점이 기증으로 수집되었으며, 특히 민속분야의 경우 기증유물의 비중이 전체의 76%에 달한다. 박물관 개관 이래 39년 동안 기증자는 총 998명이었으며, 이는 매해 25명이 넘는 기증자가 280점 이상을 기증한 셈이다.

이처럼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기증이라는 아름다운 선행^{善行} 위에서 세워졌으며 앞으로도 한 점 한 점의 감사한 기증유물로 채워져 갈 것이다. 아름다운 기증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공유되어서 여러분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대에 전할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 나아가서 박물관에서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증 행위가 활성화되어 나눔과 공유가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연도별 기증유물 현황

총 11,098점 **기증유물**
*시대미상 자료 51점 포함



총 998명 **기증자**

기증유물 특별전시 개최 현황

1984

청강 기증품 및 산악인 고상돈 유품전

1984년 5월 24일 ~ 10월 17일

청강 김영기 기증품 및 산악인 고상돈 유품전

관련 기증자: 김영기, 이희수(고상돈 유족)

1985

전국유명서화가작품전

1985년 5월 24일 ~ 8월 31일

개관 1주년 기념 전국의 유명한 서예가, 화가(한국화, 서양화) 작품을 무상 기증받아 기획 전시

관련 기증자: 김옥진, 김형수, 박행보, 서세옥, 신영복, 양창보, 이상재, 이창주, 이용자, 하건, 국용현, 김압기, 김택화, 양인옥, 우제길, 정승주, 정창섭, 고봉주, 김충현, 문옥생, 박태준, 서경보, 안광석, 이왕재, 최정균, 하남호, 현중화

1986

제주계 특별전

1986년 5월 1일 ~ 8월 31일

개관 2주년 기념 제주 계와 황규동 기증 도자기 작품 10점 연계 전시

관련 기증자: 황규동



1986

디자인·판화전

1986년 11월 4일 ~ 12월 31일

현대디자인실험작가협회(現한국현대디자인협회), 창작판화가회 소속 중견작가의 작품 전시

관련 기증자: 백금남, 나성남, 이재희, 김경옥, 전년일, 최영천, 최광, 강윤주, 이병천, 조성진, 정신공, 윤병규, 최용천, 성낙양



1989

故 고상돈 에베레스트 초등 사진전

1989년 3월 15일 ~ 5월 23일

산악인 故 고상돈을 기리는 사진전

1993

제주도 서예작가 초대전

1992년 11월 1일 ~ 1993년 1월 31일

제주를 주제로 한 작가들의 서예 작품 전시

관련 기증자: 현중화, 박태준, 문옥생, 변영탁, 김호철, 김순겸, 허윤희, 박동규, 오동수



1994

관점 미술동인 기증작품 특별전

1994년 8월 2일 ~ 10월 31일

1983년에 기증받은 제13회 관점미술동인 회원전의 작품 전시

관련 기증자: 강광, 고영석, 김계홍, 김성찬, 김순관, 김용주, 김용환, 김재경, 박조유, 백광익, 오석훈, 한명섭



1997

故 이성한 수중비경 사진 유작전

1997년 6월 2일 ~ 8월 29일

수중사진 작가 故 이성한의 유작 전시

관련 기증자: 이성예(이성한 유족)



1997

故 고상돈 산악인 에베레스트산 등정 20주년 유품전

1997년 9월 1일 ~ 9월 30일

산악인 故 고상돈 유품전시

관련 기증자: 이희수(고상돈 유족)



1997

故 강태석 화백 유작품 소장전

1997년 10월 1일 ~ 11월 29일

故 강태석 화백 유작품 전시

관련 기증자: 강영익(강태석 유족)



1999

故 고상돈 산악인 추모 20주년 특별전

1999년 5월 28일 ~ 6월 30일

산악인 故 고상돈 등산 유품들과 에베레스트 및 매킨리 산악 사진 전시

관련 기증자: 이희수(고상돈 유족)

2004

장백산의 희귀한 자연자원들

2004년 5월 21일 ~ 8월 25일
장백산(백두산)의 지질경관 및 동식물 자원 전시

관련 기증자: 장백산자연박물관

2004

기증자료 특별전

2004년 10월 20일 ~ 12월 15일
역대 박물관 기증 서양화·디자인·판화 작품 전시

관련 기증자

- 서양화: 강광, 고영석, 김계홍, 김성찬, 김순관, 김용주, 김용환, 김재경, 박조유, 백광익, 오석훈, 한영섭, 정창섭, 우제길, 정승주, 양인옥, 김암기, 국용현, 김택화, 송영옥, 김영일
- 디자인 판화: 강윤주, 김경옥, 민남례, 백금남, 신선옥, 전년일, 정신공, 조성진, 김금재, 김태호, 박숙희, 안용옥, 이인철, 이재희, 이호명, 정세윤, 최성규, 한호림, 라성남, 성낙양, 윤병규, 이병천, 최용천, 최광, 김종남, 정신공, 정희중

2005

청색의 화산도 그 추억

2005년 3월 10일 ~ 5월 10일
수중사진 작가 故 이성환의 미공개 사진 작품 전시

관련 기증자: 이성예(이성환 유족)

2005

석산 강창화 작품전

2005년 5월 17일 ~ 6월 19일
국한문 혼용, 변형 한글, 영문 서예 등 석산 강창화 기증 작품 전시

관련 기증자: 강창화

2006

백두산의 자연생태

2006년 10월 24일 ~ 11월 4일
중국 장백산(백두산)의 지질경관, 동식물생태자원의 암석, 동물 표본 및 사진전시

관련 기증자: 장백산자연박물관

2007

기증자료 특별전

2007년 3월 2일 ~ 3월 31일
고고민속분야 기증자료 특별전시

관련 기증자: 김홍수, 윤경노, 한해룡, 강창식, 김신배, 고재수, 강춘생, 변규서, 김희창, 오승언, 김재웅

2007

자연사 기증자료 특별전

2007년 4월 3일 ~ 4월 30일 자연사 분야 기증자료 특별전시

관련 기증자: 이상숙, 이송재, 이성자, 장응무, 강영식, 강창완, 김창화, 심은경, 조영경, 정경주, 서영주, 고대용, 이상명, 고태환, 김경철, 김건태, 서익범

2007

故 고상돈 산악인

대한민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 30주년 특별전

2007년 9월 14일 ~ 10월 13일
故 고상돈 산악인의 에베레스트 등정 30주년 기념 특별전시

관련 기증자: 이희수(고상돈 유족)

2008

무상 기증자료 특별전

2008년 3월 4일 ~ 3월 27일 2007년
무상 기증자료 특별전시

관련 기증자: 김성예, 차용식, 김병용, 한봉석, 한경미, 이상숙, 강전문, 윤경노, 오영종, 강창선, 김호규, 강홍철, 신용준, 변규서, 허시, 김병하, 고동순

2009

에베레스트의 잊힌 영웅을 만나다

2009년 5월 29일 ~ 6월 30일 故 고상돈 산악인 30주기 추모 특별전

관련 기증자: 이희수(고상돈 유족)

2016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016년 7월 21일 ~ 10월 30일
의복, 궤, 웅기, 고서, 미술품 등 최근 10년간 기증자료 특별전시

관련 기증자: 윤경노 등

2017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017년 6월 5일 ~ 7월 28일
교지, 고서, 회화, 병풍, 민구, 새 등 2016년 기증자료 특별전시

관련 기증자: 고승지, 현승전, 박원철, 김영주, 문영신, 백영신, 이영숙

2018

박물관 속의 작은 박물관 강정동 윤경노씨의 집안의 옛 생활을 보다

2018년 4월 23일 ~ 7월 31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윤씨 일가가 대를 이어 살아오면서 사용했던 생활사 자료 전시

관련 기증자: 윤경노



논고

선의 순환, 기증

부용식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연구과장)

민속자연사박물관 기증의 역사와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관광 산업 발전과 문화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대표 박물관이다. 제주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고유의 풍속을 가꾸어 국제 수준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1966년 제주도를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제주 관광종합개발계획(청와대 관광개발기획단, 1973)」을 수립하였다(그림 1). 이 계획의 ‘제주시 관광 지구 계획 기본도’에는 현재 제주시 삼성혈 부근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위치한 부지에 ‘박물관, 식물원’ 지역(적색 실선으로 표시)을 예정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후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조사(건설부 제주개발특별건설국, 1974)’를 수립하고, 1975년 건설부 주관의 ‘제주도 특정지역 관광종합개발계획(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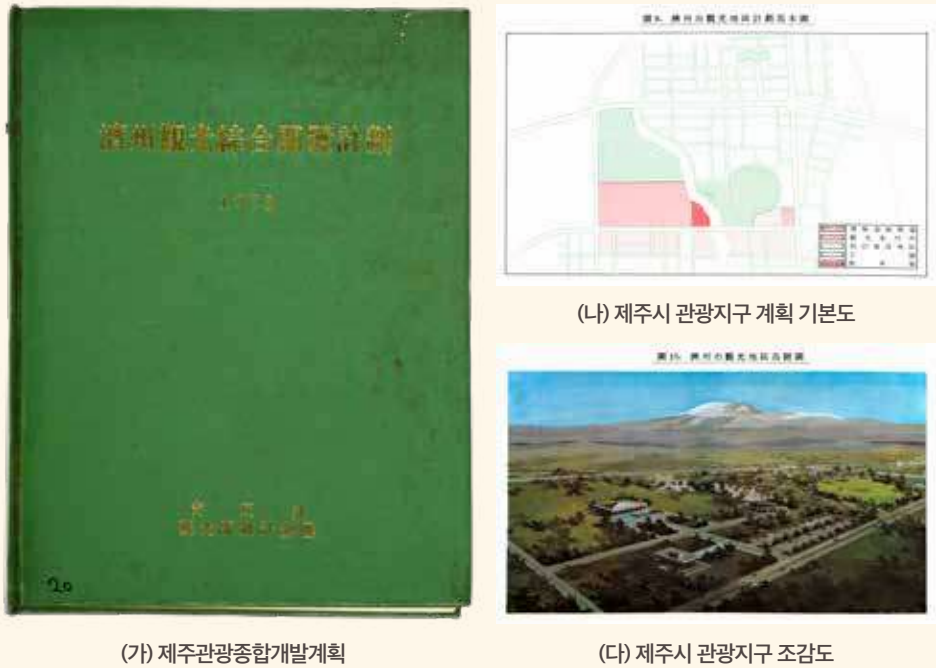


그림 1. 청와대 관광개발기획단에서 1973년에 수립한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

1978년 12월에 착공하여 6년 만인 1984년 5월 24일 개관한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970년 제주도에서 관리 전환한 ‘왕눈’, ‘나막신’ 등 생활도구 자료 24점을 시작으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1977년에는 이순찬, 김승철 등이 ‘의류’, ‘바디(베를 짜는 기구의 부속품)’ 등 9점을 처음으로 무상 기증하였으며, 개관하기 직전인 1983년까지 총 180명이 714점을 기증하였다. 그 당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총 4,949점인데, 기증자료가 이 중 14.4%를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현재(2023년 말 기준) 박물관이 문을 열고 39년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39,397점의 민속·자연사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중 고고민속 분야의 소장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6%로, 자연사 분야(79.4%)보다 적는데, 이는 고고민속과 자연사의 자료 수집방법 특성과 관련이 있다(그림 2). <그림 2>의 (다), (라)에서 알 수 있듯이 고고민속의 거의 모든 자료는 기증(75.7%)과 구입(21.1%)으로 수집되었지만, 자연사는 기증과 구입보다는 자체수집(53.4%)의 수집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증자나 자료 매도자에 의존하고 있는 고고민속 자료에 비하여 자연물의 표본(동물 표본 제작 및 자연물 채취 등)을 직접 수집하는 자연사 분야의 많은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 한편 박물관의 수집자료 39,397점 중에서 998명의 기증자로부터 받은 기증자료는 11,098점으로, 전체 소장자료의 28.2%를 차지한다(그림 2, 표 1). 이를 통해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기증을 통해 자료를 축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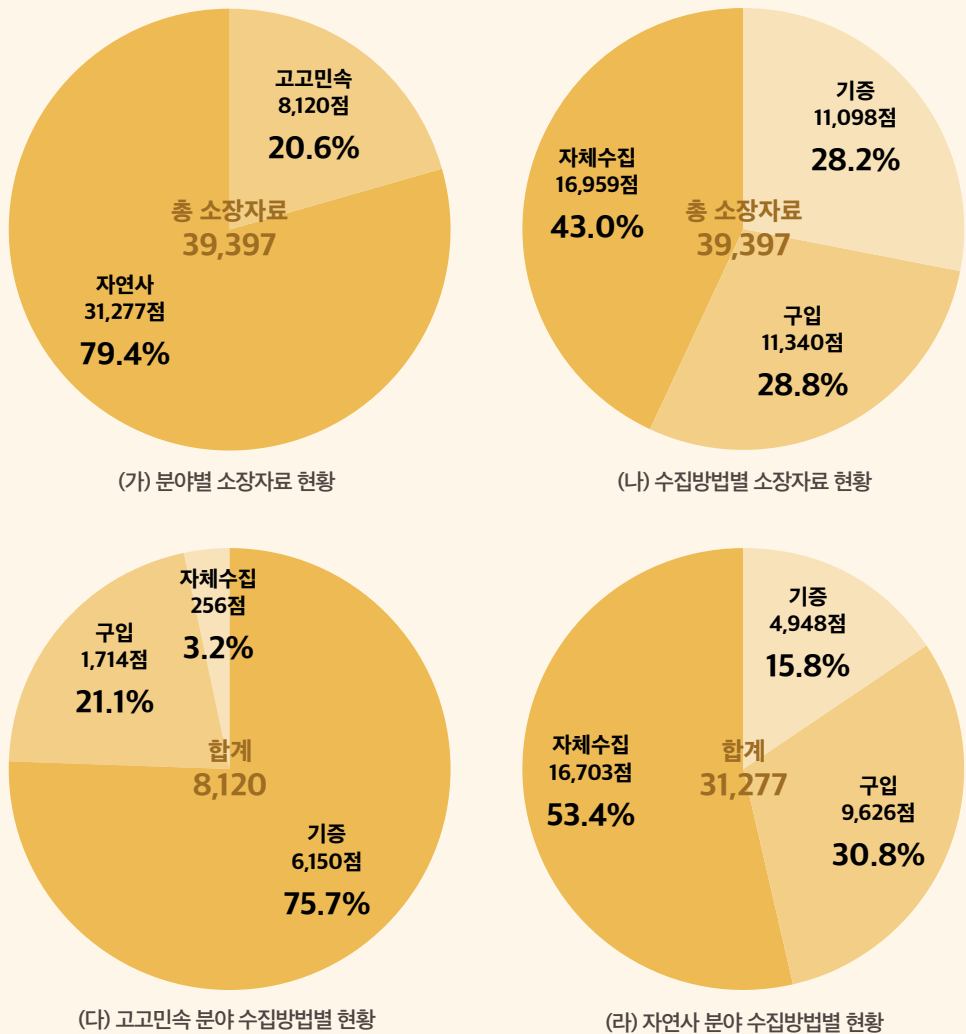


그림 2.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자료 현황

표 1. 민속자연사박물관 시기별 기증자료

(단위: 명, 점)		
시 기	기증자	기증자료
개관 이전(~1984. 5월)	180	714
1980년대(개관 이후)	189	1,297
1990년대	174	3,651
2000년대	222	1,614
2010년대	156	2,169
2020년대(~2023년 말)	77	1,602
합계	998	11,098

※ 시대미상 자료 51점 포함

박물관 개관 이후 10년 단위의 시기별 누적 기증률을 살펴보면 시대순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그림 3). 기증은 박물관 내부의 수집 정책과 항상 일관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박물관의 입장에서 보면 수동적인 부분이 큰 자료수집 방법이다. 그러나 기증이라는 행위는 사회 전반에서의 문화에 대한 관심, 시대상, 정부나 지자체의 문화정책 등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1980년대에서 1990년대를 지나면서 기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표 2. 민속자연사박물관 시기별 누적 기증률

(단위: 점)			
시 기	누적 기증자료(A)	누적 소장자료(B)	누적 기증률 (A/B)
개관 이전(~1984. 5월)	714	4,949	14.4%
1980년대(개관 이후)	2,011	18,341	11.0%
1990년대	5,662	29,519	19.2%
2000년대	7,276	37,498	19.4%
2010년대	9,445	43,111	21.9%
2020년대(~2023년 말)	11,098	39,397 ¹⁾	28.2%

1) 2020년에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로 박물관 소장 민속자료 8,060점 이관

※ 제주돌문화공원으로 이관 자료 중 2,854점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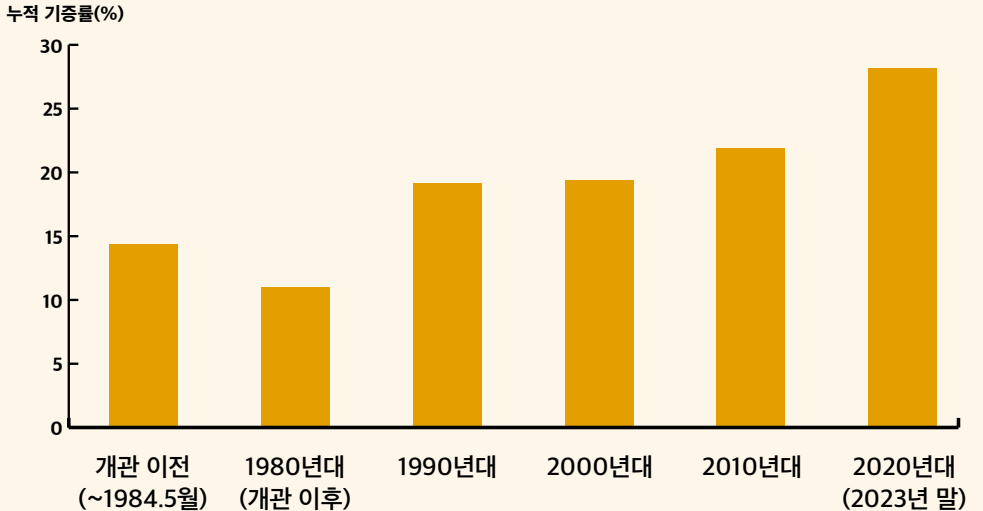


그림 3. 민속자연사박물관 시기별 기증률 및 누적 기증률 변화 추세

이명진(2014)과 최석영(2008) 등 박물관 관련 실무 전문가에 따르면, 1990년대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부문에서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난 시기로 평가된다. 먼저, 문화부가 독립(1990년)하여 문화·예술 업무의 일환으로 박물관 업무를 문화부로 이관하였으며, ‘1천 개의 작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설립되어 각 지역의 문화센터로 활용’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화발전 10개년(1990~1999) 계획」을 수립하여 박물관의 건립에 힘썼다. 또한, 1984년에 제정한 「박물관법」을 폐지하고 박물관 건립 확대의 의지(개인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 가능 등)를 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제정(1991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이전 박물관법과 비교하여 완화된 박물관 건립 조건에 의한 박물관의 전문성 저하라는 문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집단의 시도라는 주장 등 다소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점을 차치하고 이 시기는 박물관에 대한 관심, 특히 박물관으로의 기증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진하는 충분한 시기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정책 방향 설정과 그에 대한 관심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료 기증의 급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증의 기능과 역할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한 물건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자료를 기증한 사람에게는 그 자료가 기증자 인생의 일정 부분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박물관으로의 자료 기증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소중한 추억과 일상을 전하고자 하는 일로, 기증한 자료가 박물관에 의해 보존되어 후대에 전해져 문화의 한 편으로 자리잡기를 희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더불어 기증 자료가 전시·교육·조사·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모두와 공유될 수 있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씩 모여 박물관의 연구 자료를 풍족하게 만들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문화를 전파하는 원동력이 된다. 결국 기증은 문화와 예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 기증자의 인터뷰에서는 “기증은 선의의 선순환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사심 없이, 어떠한 대가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물건이나 자료를 전달하는 행위가 결국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연쇄적으로 전달되어 기증 문화를 널리 전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증을 대하는 자세

1996년부터 박물관에서 학예연구직으로 몸담은 김상태의 저서 『박물관 소장품의 수집과 관리 (2012)』에 따르면, 박물관과 기증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유대 관계는 기증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기증자와의 유대를 지속하고 돈독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기증자의 기증 자세와 마음가짐 뿐만 아니라, 기증된 자료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박물관의 역할에도 큰 중요성을 두고 있다. 기증자가 기증의사를 보였을 때나 박물관이 자료수집 정책과 일치하는 자료를 물색하여 기증을 요청하는 경우, 박물관은 박물관 소장 자료에 준하는 방법으로 기증 예정 자료를 다루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수집만을 위한 시도가 아니라 기증자가 기증한 수집품이 그의 인생과 함께 해온 소중한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대하는데 있어 존중과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박물관이 가져야 할 자세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세는 기증자가 박물관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기증에 대한 의지를 높일 것이며, 결과적으로 기증에 대한 선한 인식을 주위에 널리 퍼뜨리게 하여 박물관의 자료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물관마다 세부 지침은 다르지만, 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관람료 면제, 기념품 수여, 기증증서 발급, 기증자 명패 제작, 주요 간행물 발송과 주요 행사 초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증자를 예우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단순하거나 일회성의 금전적, 물질적인 예우는 한계가 있다. 기증자와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위해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모든 기증자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기증자료의 조사·연구로 책자 발간, 기증자료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기증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한다. 특히 기증자료 특별전 개최, 기증자료의 가치 발굴을 통한 문화재로의 지정(물론 기증자료 중 소수의 자료에 국한되지만) 등의 성과는 박물관 기증자료의 관리·활용에 대한 신뢰성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박물관은 탐라지도병서, 제주삼읍도총지도, 굴수소조 등 5점의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상여와 테왁망사리 등의 도 민속문화재 2점과 목장신정절목, 안민고절목 등 도 문화재자료 2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 중 굴수소조, 상여, 목장신정절목은 기증자료로 각 자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아 문화재로 등록한 박물관 대표 기증자료이다. 이러한 기증자료는 기증자의 소중한 기증 의지와 박물관의 적극적인 수집 노력에 의해 보존되어, 지역의 특별한 문화와 역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림 4. 상여喪輿

도 민속문화재 제6호(지정일 1991. 6. 4)
1763년(영조 39) 서귀포시 신흥리와 하효리 사람들이 1인당 포목 16척과 조 5되 8홉씩을 모아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1947년에 만들어진 『입의(立議)』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새 목재를 구입하여 썩고 부서진 상여를 새로 만드니 오히려 옛것보다 나아졌다.”는 기록처럼 여러 차례 보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굴수소조橘叟小照

도 유형문화재(지정일 2013. 10. 17)
남종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1809~1892)의 큰아들 미산 허은(1831~1865)이 그린 제주인 굴수 문백민(1810~1872)의 합작 초상화 작품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조선 후기 제주인 초상화로는 유일한 그림으로 조선 후기 제주인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림 6. 목장신정절목牧場新定節目

도 문화재자료(지정일 2013. 10. 17)
1794년(정조 18) 제주목사 심낙수(沈樂洙)가 산마장(한라산 중턱 이상에 설치되었던 목장)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도한 세금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제정한 일종의 시행령으로, 사료(史料)로서의 가치가 높다.

글을 마치며

2024년은 민속자연사박물관이 개관하여 40년이 되는 해로, 제주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로, 대내외에서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기대가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박물관은 4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 및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가족 축전 행사와 학술대회, 국내·외 교류전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40년 동안 누적된 아카이브를 주제로 하는 특별전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박물관을 널리 알리고, 과거의 조사·연구 실적 및 역사적인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박물관에서 기획하는 모든 사업의 기본과 원천은 여전히 소장자료에 있다. 이러한 소장 자료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기증이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기증이 필요하다. 각자의 소중한 추억을 모아 큰 힘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제주의 문화와 자연을 보전하는 여정에서 민속자연사박물관과 여러분이 함께하길 기대한다. 이는 기증을 통해 소장자료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확보하고 지역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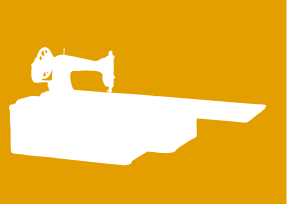
김상태, 『큐레이터를 위한 박물관 소장품의 수집과 관리』, 도서출판 예경, 2012
이명진, 『박물관 연구와 정책: 부산 지역 박물관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색』, 비온후, 2014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2009 박물관운영부 연보』, 2009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박물관 연보 2019』, 2020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개관 20년사』, 2004
최석영, 『한국 박물관 100년 역사 진단&대안』, 민속원, 2008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2. 기증유물

2024년은 민속자연사박물관 개관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그동안 박물관을 지탱해 온 가장 큰 원동력은 천여 명이 기증한 수많은 기증자료라 할 수 있다. 이번 도록으로 기증자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서 표하고자 한다. 모든 기증유물을 담지 못하여 아쉽지만, 이번 기증유물 도록을 계기로 문화를 사랑하고 박물관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소중한 개인 소장품의 기증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 장에서 수록한 기증유물의 선정은 2023년 12월에 개관 4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7개의 공간, n개의 삶」 특별전에서 전시한 기증유물과 그와 연관 있는 기증유물로 하였다. 기증유물은 개관 이전, 개관 이후 1980년대, 1990년대 등 10년 단위로 기증자 명단과 기증유물을 소개하여 시기별 기증유물의 변천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각 연대 안에서도 기증연도 순서로 기증유물을 소개하였으며, 기증유물 그 자체에 대한 몰입감을 주기 위하여 유물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였다.



개관 이전 ~1984. 5월

제주도에서 관리 전환한 민구류 24점을 계기로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자료수집이 시작되었다. 이후 박물관 개관일인 1984년 5월 24일 이전까지 민구류를 비롯하여 서예 작품과 동양화 및 서양화, 대형어류 표본인 고래상어와 돌묵상어를 포함한 동물 표본 등 1,100여 점이 넘는 다양한 유물이 기증되었다.

한국화단을 대표하는 화가로 평가받는 청강 김영기(金永基, 1911~2003) 화백이 1981년에 서예·서화 작품, 현판, 고문서, 백자 등 134점을 기증하였다. 제주도 내 초·중·고등학교 30여 기관에서도 총 40여 점의 고문서와 민구류 등을 기증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오색딱따구리 박제표본 2점을 기증하여 교육기관에 서의 기증이 돋보였다.

특히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 등반에 성공한 산악인 故 고상돈(高相敦, 1948~1979)의 유품이 아내 이희수를 통해 1981년에 박물관에 기증된 시기이다. 이러한 기증유물은 민속자연사박물관의 문을 열게 해준 원동력임과 동시에 제주도민이 만든 최초의 공립 박물관이라는 명성을 쌓게 해준 힘의 원천이다.

기증자 명단

1977	이영복	신엄리사무소	이형복	표선중학교	1983	이원봉
김승철	이희수	한국일보사	장인옥	명월초등학교	강광	송수방
송보찬	현여경		조종	서귀초등학교	강순매	송종원
이순찬	황원휴	1982	천사봉	위미초등학교	강응범	송치숙
	곽금초등학교	고경희	최규옥	효돈초등학교	강홍순	오석훈
1978	도리초등학교	김경림	최종원	도순초등학교	고경희	우종대
문도철	신양초등학교	김금룡	한치운	강정초등학교	고석홍	이동옥
서용주	신창초등학교	김두관	허순칠	중문중학교	고영석	이상훈
한해룡	애월초등학교	김두길	현천관	남원중학교	고일남	이선권
홍정표	오라초등학교	김만중	홍지행	고산중학교	곽영기	이정재
한림읍장	영락초등학교	김성범	홍태승	세화중학교	김계홍	임문옥
	제주동초등학교	김순이	광양초등학교	안덕중학교	김성배	좌인천
1979	저청초등학교	김양자	도평초등학교	귀일중학교	김성찬	차대관
김미자	토평초등학교	김영기	북촌초등학교	제주중학교	김성홍	하영봉
이형복	판포초등학교	김영지	신촌초등학교	성산중학교	김순관	한명섭
	한림초등학교	김왕승	조천초등학교	제주상업고등학교	김영심	현중화
1981	함덕초등학교	김용실	평대초등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김영철	황산범
강기중	화북초등학교	김초암	동남초등학교	구좌읍사무소	김용생	표선면사무소
강원석	김녕중학교	김형진	온평초등학교	삼양동사무소	김용주	제주시
김경흠	대정서중학교	문달현	시흥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김용환	
김계출	대정중학교	박갑울	신도초등학교	남제주군	김인호	
김순이	서귀여자중학교	박동천	사계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연구원	김재경	
김영기	신엄중학교	박두식	무릉동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무속보존회	김한경	
김정희	효돈중학교	박종규	하귀초등학교	제주수산업협동조합	류장경	
문성도	제주농업고등학교	안광석	납읍초등학교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	문병돈	
백운철	제주여자고등학교	양동진	제주남초등학교	서귀포시	박조유	
양동진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이석구	물메초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박형전	
오석희	광평리사무소	이석종	난산초등학교		백광익	
윤무부	신양리사무소	이영복	표선초등학교		서재철	

정당벌립

草笠
Stem-woven hat

20세기 | 땡땡이덩굴
지름 52.0, 높이 13.9
고고민속 2631
한해룡 기증 | 1978



되약세기

計量瓢
Doeyaksegi
(Oval-shaped wooden bowl used for measuring, scooping, and storing grains)

20세기 | 나무
높이 5.0, 폭 13.3, 깊이 19.6
고고민속 1733
서귀여자중학교 기증 | 1981



다리미

熨斗
Pressing iron

20세기 | 철
길이 36.6, 지름 19.2, 높이 8.4
고고민속 1732
서귀여자중학교 기증 | 1981



윤디

烙鐵熨斗
Soldering iron

20세기 | 철
길이 25.0, 높이 3.1
고고민속 1722
영락리 기증 | 1981



태극기

太極旗
the national flag of Korea

20세기 | 천
가로 45.0, 세로 30.5
기타산악 308
이희수 기증 | 1981

한국일보기

韓國日報旗
Flag of the Hankook Ilbo news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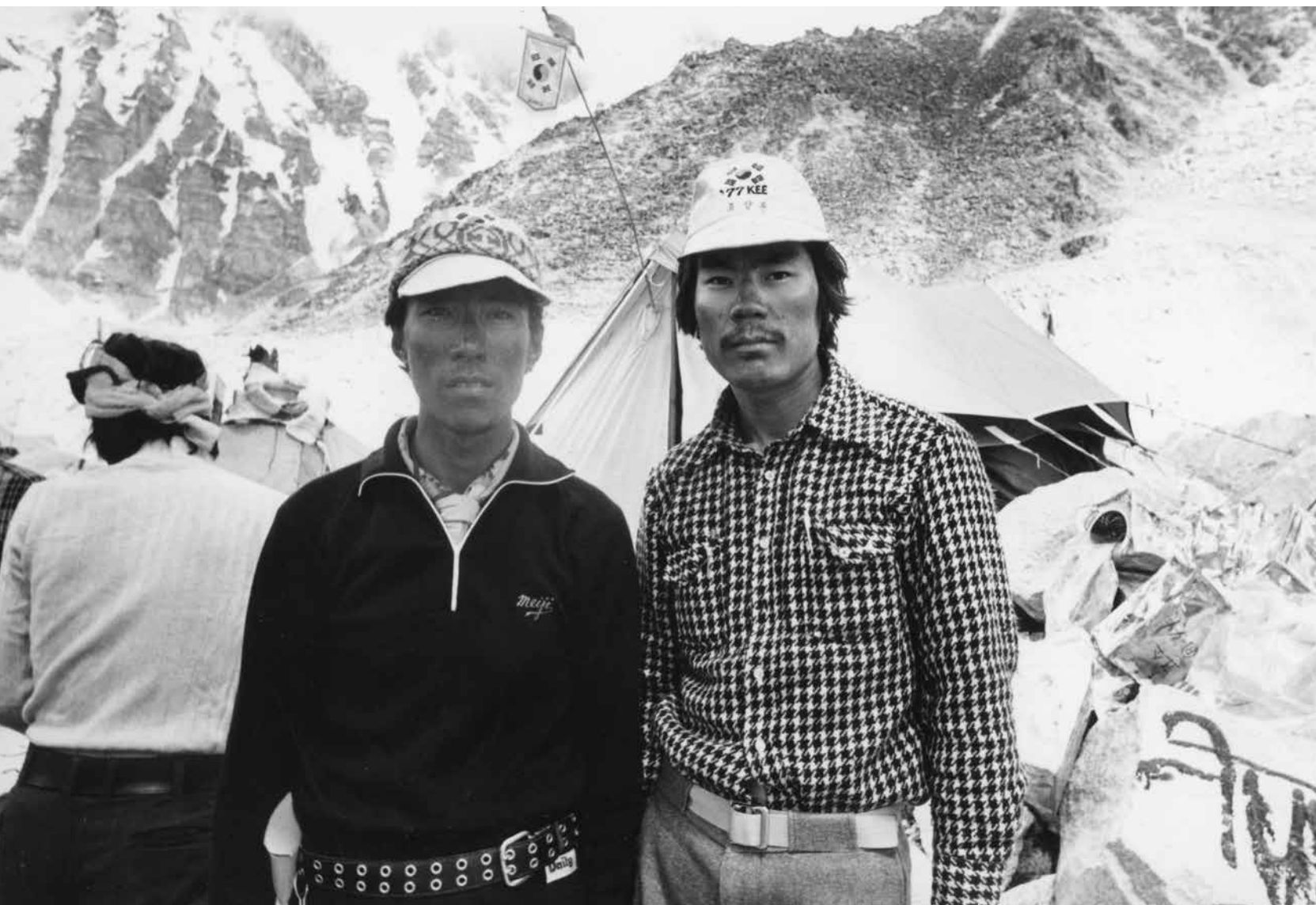
20세기 | 천
가로 44.0, 세로 31.0
기타산악 310
이희수 기증 | 1981



모직남방

毛織上衣
Wool shirt

20세기 | 천
길이 75.9, 폭 49.3
기타산악 6
이희수 기증 | 1981



에베레스트 정상돌

頂上石
Stone brought from the top of the Himalayas

20세기 | 암석
높이 10.9, 폭 16.3, 깊이 12.0
기타산악 312
이희수 기증 | 1981



고글

护目镜
Goggles

20세기 | 철, 유리
높이 24.9, 폭 12.5, 깊이 31.5
기타산악 300
이희수 기증 | 1981



산소마스크

氧气罩
Oxygen mask

20세기 | 복합재질
높이 21.0, 폭 20.0, 깊이 28.5
기타산악 298
이희수 기증 | 1981



가리모지계배낭

背囊
External frame backpack

20세기 | 합성재질
(최대)높이 82.0, 폭 60.0, 깊이 38.0
기타산악 74
이희수 기증 | 1981



등산화

登山靴
Hiking boots

20세기 | 복합재질
높이 24.9, 폭 12.5, 깊이 31.5
기타산악 56
이희수 기증 | 1981



우모파카(상·하의)

羽絨衣(外套、褲子)
Goose down jacket (top & bottom)

20세기 | 합성재질
(상의)화장 157.0, 등길이 86.0
(하의)폭 48.0, 길이 101.5
기타산악 1
이희수 기증 | 1981



빗창

匕鋸
Bitchang
(Sword used by haenyeo
to remove abalone from rocks)

20세기 | 철
길이 25.5
고고민속 1693
한림초등학교 기증 | 1981



남죽

粥棍
Namjuk
(Stirrer used for cooking rice porridge)

20세기 | 나무
길이 54.9, 가로 5.4
고고민속 1773
농업고등학교 기증 | 1981



월하전진도

月下前進圖
Moving Forward
under the Moonlight

김영기 작 | 1975 | 한지에 수묵 담채
가로 102.4, 세로 126.1
고고민속 3087
김영기 기증 | 1981



연적

硯滴
Water Dropper

20세기 | 돌
(바닥)지름 6.0 (최대)지름 8.6, 높이 5.8
고고민속 2299
중문중학교 기증 | 1982



연갑

硯匣
Stationery box

20세기 | 나무
높이 27.5, 폭 32.6, 깊이 21.8
고고민속 2132
조천읍 기증 | 1982



대패랭이

大竹笠
Bamboo hat

20세기 | 대나무
지름 37.0, 높이 12.4
고고민속 2163
조천중학교 기증 | 1982



테왁 망사리

浮球和网兜
Tewak Mangsari
(Buoy with net used by haenyeo to collect seafood)

20세기 | 합성재질
(박)지름 36.0 (에움)지름 59.0
고고민속 2044
북제주군 기증 | 1982



고래상어

Whale Shark
Rhincodon typu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600.0
동물어류 114
김용실 기증 | 1982
해양보호생물, CITES II, IUCN 위기종(EN)

멧돼지

Wild Boar
Sus scrofa coreanu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172.2
동물포유류 20
최정원 기증 | 1982



문어통발

章鱼笼
Octopus Net Trap
(Trap to catch octopus using their habit of hiding in cracks)

20세기 | 철, 그물
길이 61.7
고고민속 2392
박감울 기증 | 1982



문어단지

章鱼坛子
Octopus Jar Trap
(Trap to catch octopus using their habit of hiding in cracks)

20세기 | 흙
높이 26.7, 지름 19.4
고고민속 2381
박감울 기증 | 1982



사구

砂丘
Sand Dune

현생 | 암석
높이175.0, 폭 150.0, 깊이 37.0
지질암석 92
현천관 기증 | 1982



목선대장군

木仙大將軍
Mokseondaejanggun
(Stone guardian post with a club in hands)

미상 | 암석
높이 130.0, 폭 46.5, 깊이 30.5
고고민속 2639
표선면 기증 | 1983



대바지

小水罐
Daebaji
(Small earthenware jug for young girls to practice to draw and carry 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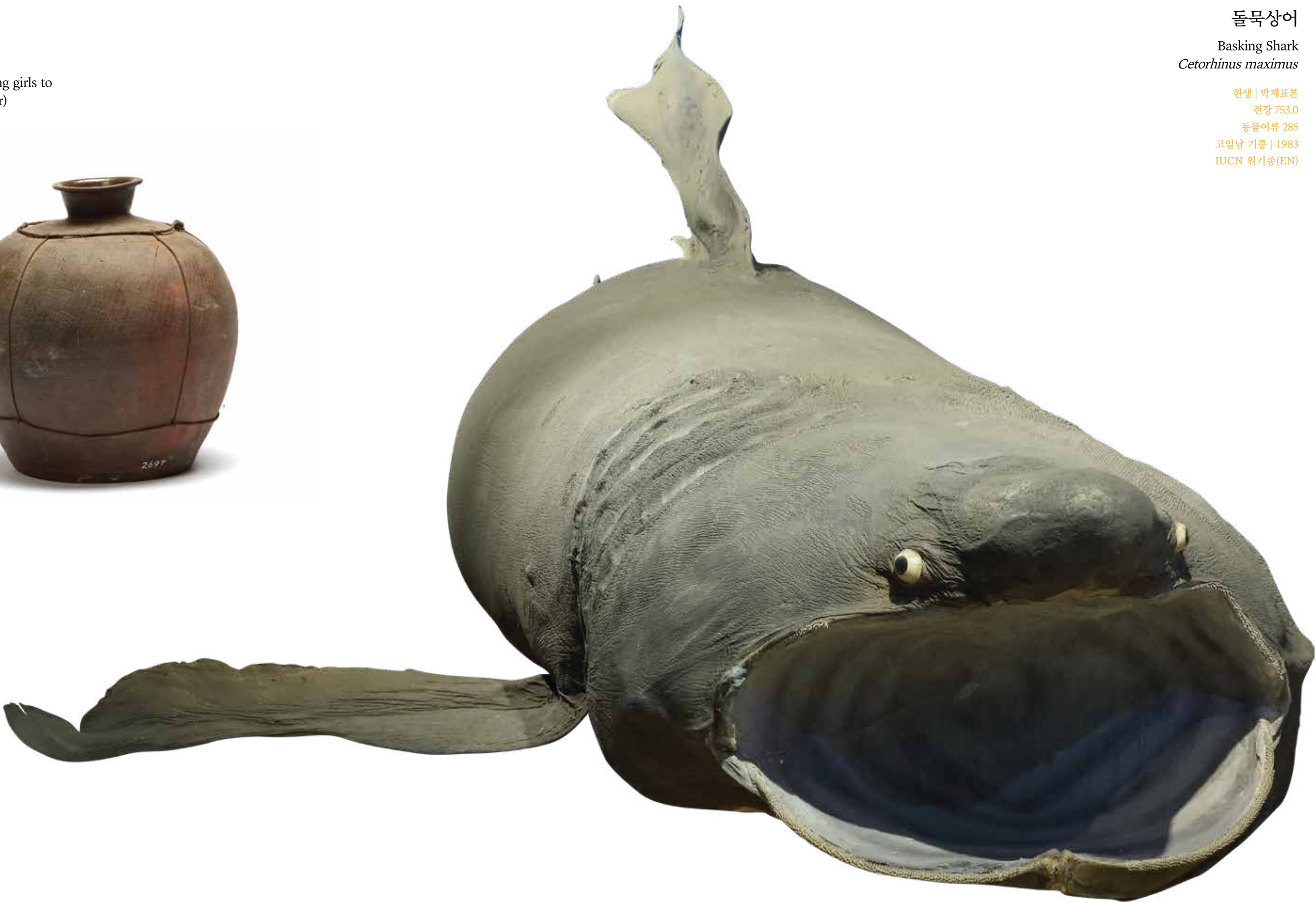
20세기 | 흙
높이 29.0, 입지름 9.2, 몸통지름 28.0
고고민속 2697
제주도 관리전환 | 1983



돌묵상어

Basking Shark
Cetorhinus maximu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753.0
동물어류 285
고일남 기증 | 1983
IUCN 위기종(EN)



물범

Spotted Seal (Large Seal)
Phoca largha

현생 | 박제표본
전장 120.0
동물포유류 109
김한경 기증 | 1983
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IUCN 관심대상종(LC)



긴꼬리딱새

Black Paradise Flycatcher
Terpsiphone atrocau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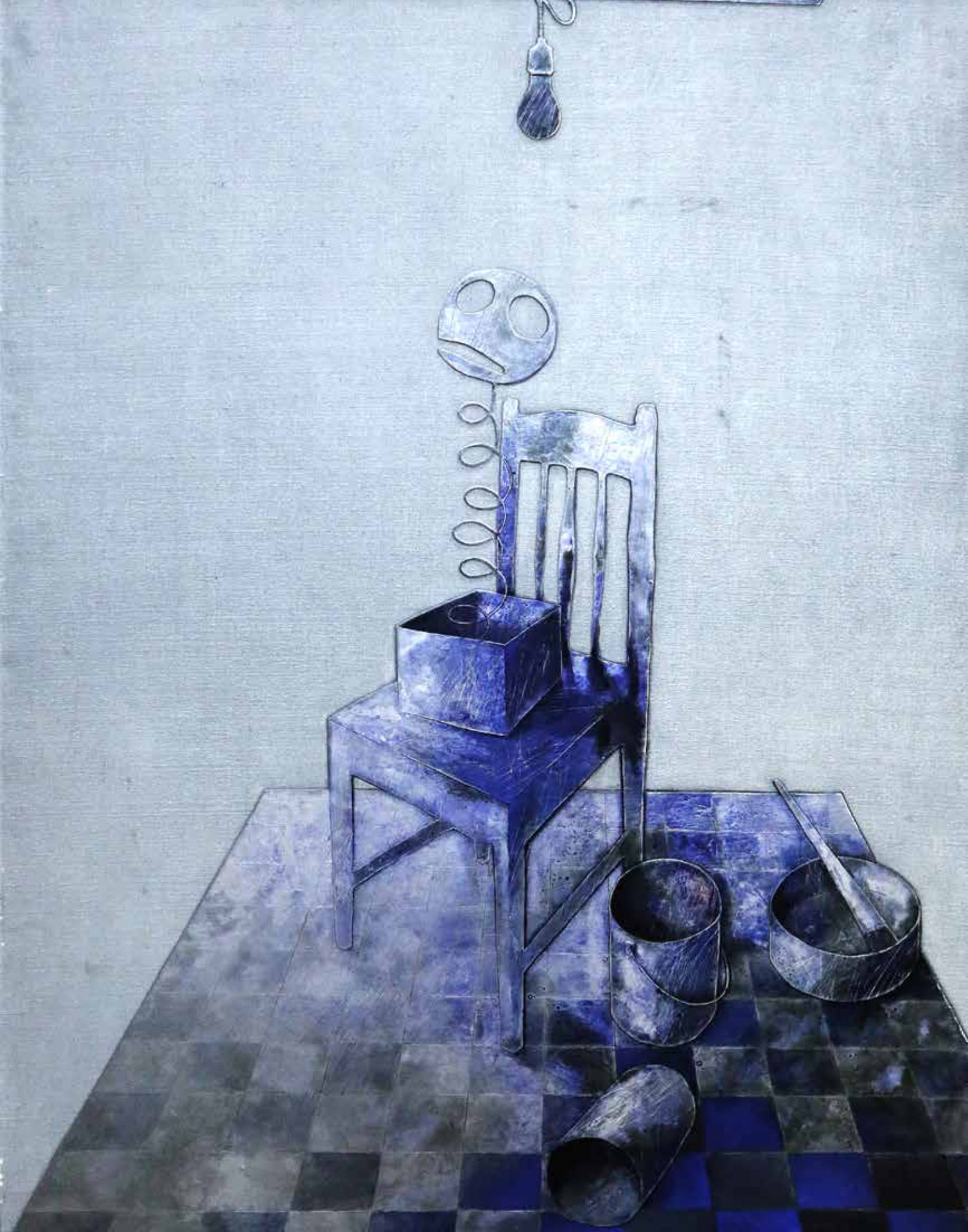
현생 | 박제표본
전장 39.2
동물조류 451
강응범 기증 | 1983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푸른화실

藍色畫室
Blue Atelier

강광 작 | 1983 | 캔버스에 유화
가로 98.0, 세로 131.0
고고민속 3150
강광 기증 | 1983



십곡병
十曲屏
Ten-pannel Folding Screen

현중화 작 | 1983 | 한지에 먹
(전체)가로 452.0, 세로 200.0 (10폭)
고고민속 3162
현중화 기증 | 1983



1980년대 개관 이후

민속자연사박물관 개관 이후의 1980년대에는 510여 점의 유물을 기증받았다. 이 중 조류 박제표본 50여 점과 제주축산개발사업소(현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에서 기증한 노루와 여우 등 포유류 박제표본 10여 점을 기증받아서 자연사 전시에 내실을 다질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동양화, 서양화 등 미술 작품 50여 점이 기증되었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한지 그 자체를 작품으로 낸 ‘닥종이 화가’라고 불리며 우리나라 현대미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故 정창섭(丁昌燮, 1927~2011) 화백의 작품, 19세기 남종화의 대가인 허련(許鍊)의 손자이며, 직업 화가였던 허형(許瀾)의 아들인 故 허건(許健, 1907~1987) 화백의 동양화 작품 등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 기증되었다. 제주 출신 대표 작가의 자료도 기증받았다. 제주문화예술계와 미술교육에 평생을 헌신한 서양화가 故 김택화(1940~2006) 화백과 60년대 이후 제주미술을 이끌며 제주미술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동양화가 故 양창보(1937~2007) 화백의 작품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민구류, 무구류, 고문서, 민속사진 등 민속품 230여 점이 기증되어 박물관의 소장자료가 더욱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기증자 명단

1984	강세권	부치근	정인식	서상흠	제주특별자치도	1989
강재응	강태운	백금남	정창섭	오성찬	서귀포시	강구범
강성근	강치오	서경보	좌선일	이기남	북제주군	강선이
강임년	고길홍	서세옥	좌정자	이은부	일본바다박물관	강태복
강창언	고동진	서재철	최봉후	정훈선		고봉조
고용보	고만성	성락희	최정균	최애숙	1988	고시중
고화준	고봉주	송성용	하남호	홍수일	강길자	김신호
김경하	고성홍	신두영	허건	황규동	강태권	김영보
김복선	고종춘	신영복	현중선	산지공업사	고방길	김인환
김성찬	국용현	안광석	황규동	김녕초등학교	고승민	김태성
김정옥	김석두	양동진	웅포리어촌계	동김녕리해녀회	김영찬	문성돈
문병돈	김암기	양석주	인화초등학교	무릉파출소	김성준	박경선
신호필	김옥진	양인옥	함덕종합고등학교	서귀포시	김성하	박경재
이용자	김준원	양창보	무릉출장소	현대디자인실협작가협회	김영평	박계봉
위경생	김택화	우제길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창작판화가협회	김창철	신성혜
조희순	김충현	윤길중	제주일보		김태수	양병택
진성기	김형수	윤남호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987	권형팔	오명봉
좌정자	김희중	이미경		강동우	문태생	오창호
최용호	문병돈	이봉호	1986	김공민	송창호	이정용
한상수	문육생	이상재	강구범	김윤옥	이승훈	최태묵
일본	문일수	이왕재	고응삼	김창송	정인식	한석능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박덕림	이창주	고흥식	문성학	홍순봉	한석홍
종달리어촌계	박용후	이화태	김동균	박갑생	홍정표	한평휴
서귀포경찰서	박정희	임도빈	김동옥	안효열	KBS	토마스 F. 콘웨이
아라파출소	박태준	임병근	김순겸	오기포	신창초등학교	서귀포시
북제주군	박행보	정도준	김종수	주무룡	제주시	
	방영진	정동암	김창래	진영환	북제주군	
1985	부남권	정승주	문달진	최봉후	한림수산업협동조합	
강구범	부사익	정이석	서말순	현재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상여

喪輿
Sangyeo (B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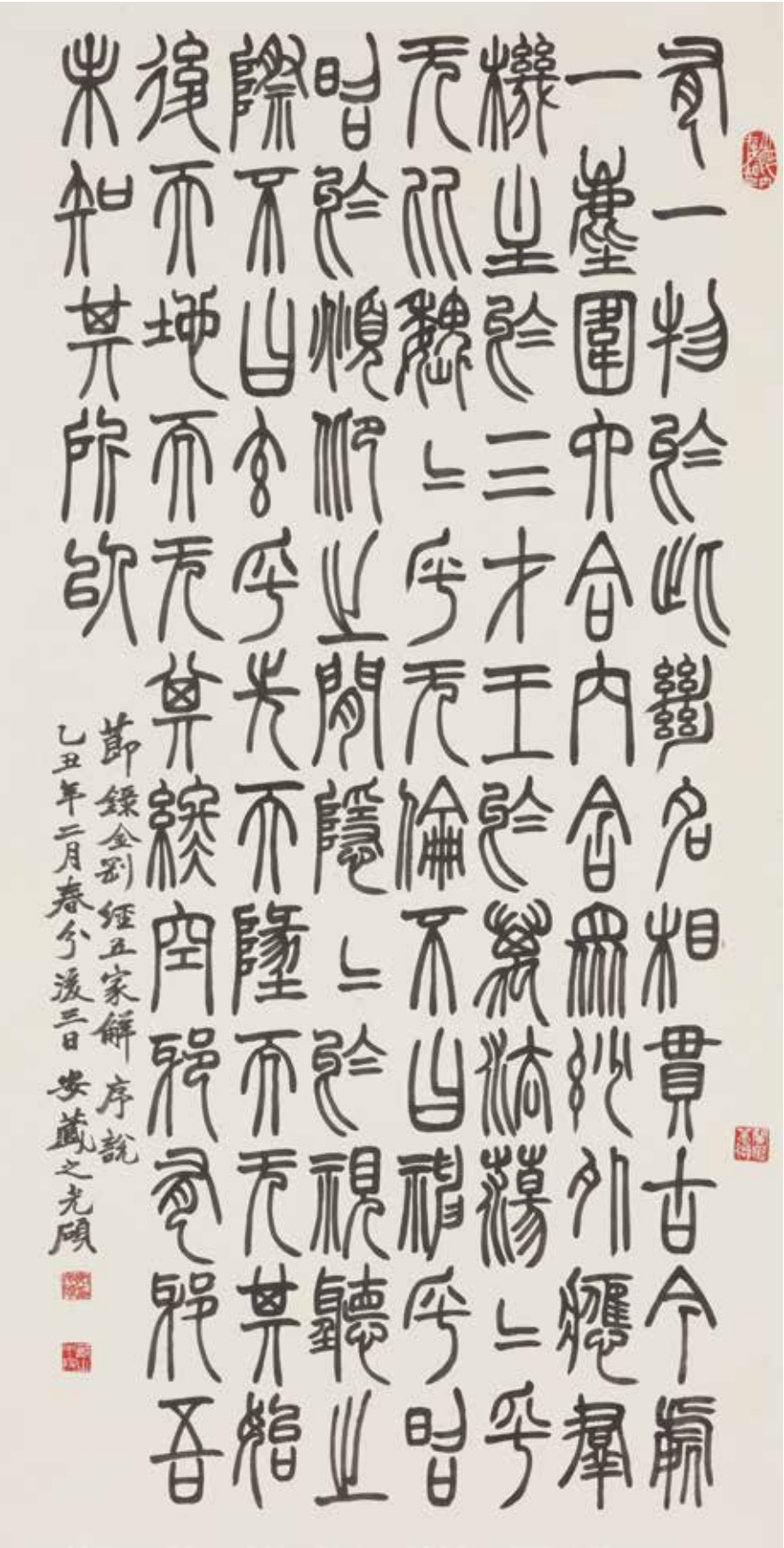
1763 | 나무, 천
높이 86.3, 폭 240.6, 깊이 119.5
고고민속 3511
이화태 기증 | 1985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녹금강경

錄金剛經
Commentaries
on the Diamond Sutra

안광석 작 | 20세기 | 한지에 먹
가로 69.0, 세로 135.0
고고민속 3524
안광석 기증 | 1985



백자철화난초문호

白磁鐵畫蘭草文壺
White Porcelain Jar with Orchid Design in Underglaze Iron

황규동 작 | 20세기 | 자기에 산화철
높이 19.2, 지름 19.8, 바닥지름 9.0
고고민속 4015
황규동 기증 | 1986

물개

Northern Fur Seal
Callorhinus ursinu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100.0
동물포유류 107
김종수 기증 | 1986
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IUCN 취약종(VU)



대왕귀가오리

Giant Oceanic Manta Ray
Mobula birostri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280.0, 너비 430.0
동물어류 392
김공민 기증 | 1987
IUCN 위기종(EN)



목장신정절목

牧場新定節目
Enforcement ordinance on pasture management

은파 심낙수 작 | 1794 | 한지
가로 25.5, 세로 34.5
고고민속 4554
홍정표 기준 | 198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단지

壇子
Jar

20세기 | 흙
높이 29.0, 입지름 18.0, 지름 23.6
고고민속 4831
박계봉 기준 | 1989



1953년 제주 풍물 사진 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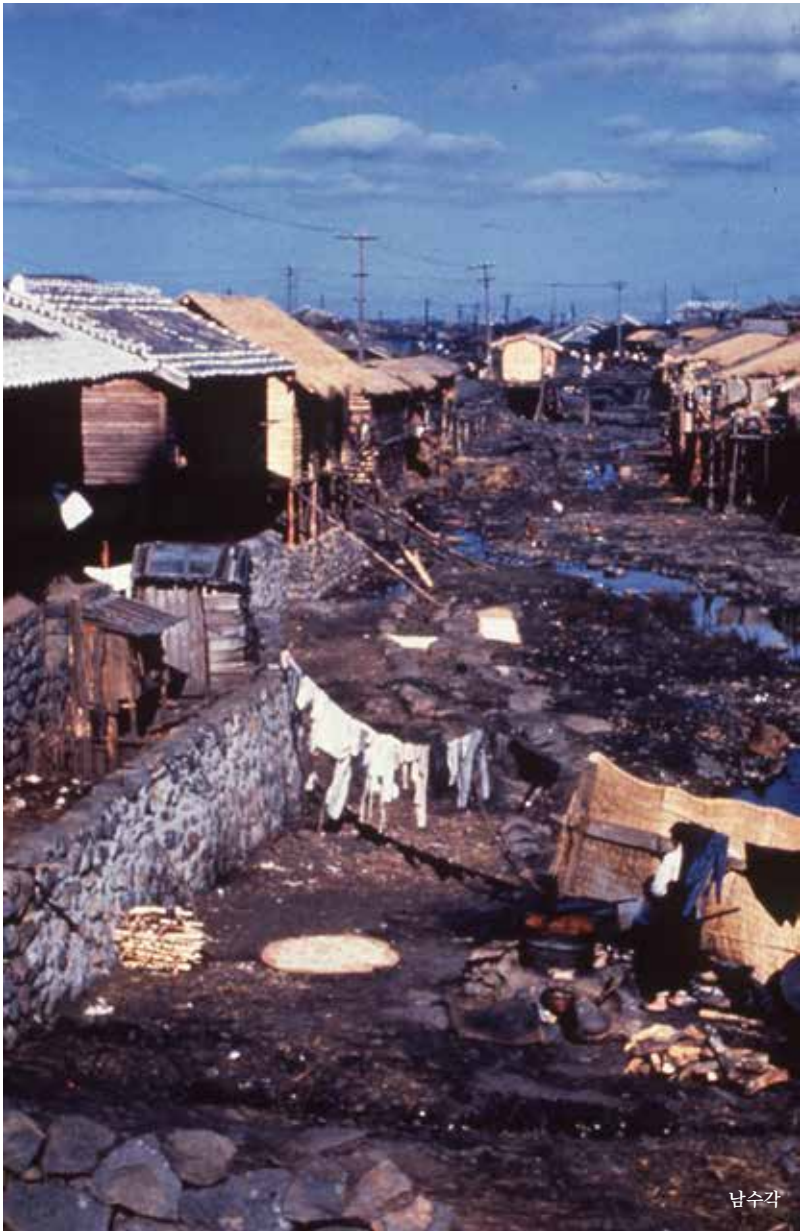
1953年濟州景物照片底片

Photographs with views of Jeju Island in 1953

작가미상 | 1950년대 | 사진필름

아카이브 자료

토마스 F. 콘웨이 기증 | 1989





용연



제주시 서한두기 포구



빨래터



바닷가 탑(여영 부근)

1990년대

1990년대에 기증받은 유물은 3,650여 점으로 박물관에서 기증을 가장 많이 받은 시기이다. 이는 수증사진 작가 **故 이성환**(1955~1995)이 90년부터 5년여간 제주 연안에서 촬영한 슬라이드 필름 2,580점을 동생 **이성예**가 박물관에 기증한 것에 비롯한다.

38세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한 **故 강태석**(1938~1976) 화백의 미술 작품과 미술 용품, 서신(편지) 등 240여 점이 기증된 시기가 이때이다. 미술 분야의 유물을 박물관에 기증하게 된 이유는 기증 당시의 국공립 미술관의 지리적인 위치(서귀포시의 기당미술관이 유일했다.)와 박물관장과 강태석 화백의 개인적인 친분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본 도록의 기증자 ‘강영자’의 인터뷰 참조).

소설가이자 신문 기자인 **故 오성찬**(吳成贊, 1940~2012)은 1982년부터 14년간 제주도 전역과 일본 오사카, 도쿄 등지에서 만난 제주 사람들의 육성을 녹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산된 마그네틱 오디오 테이프 521점을 1997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기증했다. 이에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소장된 음원 자료 521점 가운데 50점의 전사轉寫 사업을 2023년에 추진하여 **故 오성찬**이 남긴 음원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고 연구 및 전시, 교육 등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제주도 유형문화재인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並序’와 서예, 서화, 해녀 도구, 무구류 및 민구류 등 다양한 민속 분야 유물 540여 점과 40여 점의 조류 및 포유류 박제표본을 기증받아서 박물관의 소장자료 수가 크게 증가하였던 시기이다.

기증자 명단

1990	정세호	김순겸	이문원	한익수	제주교도소	차용식
강승도	정인식	김종업	원종관	홍덕주		한승윤
강태복	한승윤	김창진	정희준	제주특별자치도	1997	신창초등학교
고성봉	일도1동사무소	김평윤	현중화		김숙희	
고익현	북제주군	김호철	일본 니가타대학	1995	김순이	1999
고자연		문육생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강유삼	김유익	강옥수
김경호	1991	박동규		김승배	김축생	강행옥
김두석	고경호	박태준	1994	김유익	양경하	김길언
김숙희	고순덕	변영탁	김경숙	김혜순	오성찬	김봉희
김영수	고용수	오동수	김대호	백문하	이성예	김순이
김인탁	김봉옥	이두정	김명진	현제민	임영태	박경배
김지현	김영일	이홍문	김봉수	한림읍사무소	정몽순	박수현
김춘부	김용기	정훈	김봉희	성산포수협	최용만	백복렬
문성돈	김인숙	조준장	김순이		현병찬	이길남
박계봉	김창남	진동진	김영중	1996	현승원	정인식
박중남	김창수	허윤희	김요왕	강문성	홍문규	현상우
배영은	김택순	홍인식	문정희	강영익	홍성익	홍경노
백순영	문상훈	한림수협	송경남	고광수	서귀포시	홍지행
부동훈	박계봉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오기포	고영선	강정노인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성교진	박장호		오탈익	김희인	북제주군	
송영옥	배일중	1993	오학겸	백종철	제주시	
양동진	양석후	강상용	유승자	송무훈		
양석후	오문복	김서연	이경아	안태현	1998	
이갑배	이봉택	김순옥	이다우	이정훈	김병엽	
이동규	이홍삼	김윤병	이태련	이은행	김원택	
이평국	임찬부	김은일	이홍문	임영태	김정순	
이복선		문병돈	임태규	지옥순	안점자	
이홍문	1992	서상흠	정용수	한재호	오진영	
임기변	고덕훈	오인대	정인식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임두빈	



조광

朝光
Morning Sunlight

송영옥 작 | 1989 | 캔버스에 유화
가로 50.0, 세로 40.0
고고민속 4951
송영옥 기증 | 1990

목란도

墨蘭圖
Painting of Orchids

김응원 작 | 20세기 | 한지에 먹
가로 35.0, 세로 135.0
고고민속 4921
김영수 기증 | 1990





가면의 시

面具之詩
Poem of the Mask

김영일 작 | 연대미상 | 캔버스에 유화
가로 43.8, 세로 50.8
고고민속 5155
김영일 기증 | 1991



노송

露松
Wild Pine Tree

오동수 작 | 연대미상 | 한지에 먹
가로 137.0, 세로 88.0
고고민속 5485
오동수 기증 | 1992

빙철판

餅糕鐵板

Bingchulpan

(Steel plate for cooking Bingtteok, Jeju traditional food)

20세기 | 철

높이 4.5, 폭 45.0, 길이 30.0

고고민속 5382

김종업 기증 | 1992



솔개

Black Kite

Milvus migran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65.2

동물조류 767

진동진 기증 | 1992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잠수복

潜水服
Diving Suit

1960년대 | 고무, 천
(최대)길이 184.5, 폭 75.0
고고민속 5372
한림수협 기증 | 1992



헬멧

头盔
Diving Helmet

1960년대 | 청동
가로 28.0, 세로 30.0
고고민속 5369, 5371
한림수협 기증 | 1992



납추

潜水鉛
Napchu(Lead weight for diving)

1960년대 | 납
가로 22.0, 세로 16.0
고고민속 5376
한림수협 기증 | 1992



잠수화

潜水靴
Diving Shoes

1960년대 | 고무, 철, 쇠
(1짝)길이 24.0, 폭 10.0, 깊이 32.0
고고민속 5378
한림수협 기증 | 1992



장구

长鼓
Janggu
(Double-headed drum used in shamanic rituals)

20세기 | 가죽, 나무
길이 45.5, 지름 33.5
고고민속 5844
송경남 기증 | 1994



무쇠솥

鐵鍋
Cast iron pot

1960년대 | 철
지름 74.5, 높이 34.0
고고민속 5727
홍덕주 기증 | 1994



탐라지도병서

耽羅地圖並序
Map of Tamna with explanatory notes

1709 | 한지
가로 128.0, 세로 185.0
고고민속 5922-5923
제주도 관리전환 | 1994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모자골

帽子木
Wooden hat form

20세기 | 나무
지름 13.6, 높이 13.3
고고민속 6208
김유의 기증 | 1995



골걸이

帽架
Hat form holder

20세기 | 나무
높이 36.3, (바닥)가로 18.5, 세로 24.6
고고민속 6209
김유의 기증 | 1995



대화 시리즈

對話系列
Dialogue Series

강태석 작 | 1968 | 종이, 먹, 펜
가로 27.0, 세로 19.5
고고민속 12574
강영익 기증 | 1996



전설 시리즈

傳説系列
Legend Series

강태석 작 | 1970 | 종이에 유채
가로 19.8, 세로 13.6
고고민속 12572
강영익 기증 | 1996



야화 시리즈

稗官野史系列
Town Talk Series

강태석 작 | 1965 | 종이에 유채
가로 17.6, 세로 17.6
고고민속 6559
강영익 기증 | 1996



상
像
Image

강태석 작 | 1965 | 종이에 유채
가로 27.0, 세로 18.2
고고민속 6550
강영익 기증 | 1996

제목 미상

未詳
Being unknown

강태석 작 | 연대미상 | 캔버스에 유채
가로 40.5, 세로 31.3
고고민속 6430
강영익 기증 | 1996



화방도구

畫室工具
Art supplies

20세기 | 나무
높이 7.7, 폭 38.9, 깊이 31.3
고고민속 6666
강영익 기증 | 1996



병훈에게 보낸 편지

寄給炳勳的信

Letter to Byung-hoon

강태석 저 | 1975 | 양지

가로 18.6, 세로 26.1

아카이브 자료

김순이 기증 | 1997

김종철에게 보낸 편지

寄給金鍾喆的信

Letter to Kim Jong-chul

강태석 저 | 1974 | 양지

(첫번째장)가로 19.1, 세로 18.3 (두번째장)가로 19.1, 세로 18.2

아카이브 자료

김순이 기증 | 1997

김종철에게 보낸 편지

寄給金鍾喆的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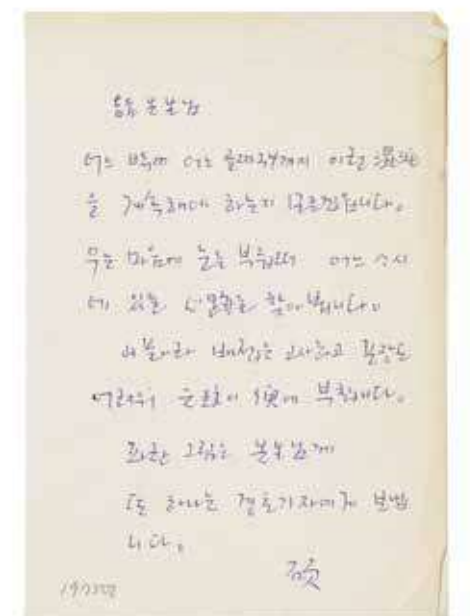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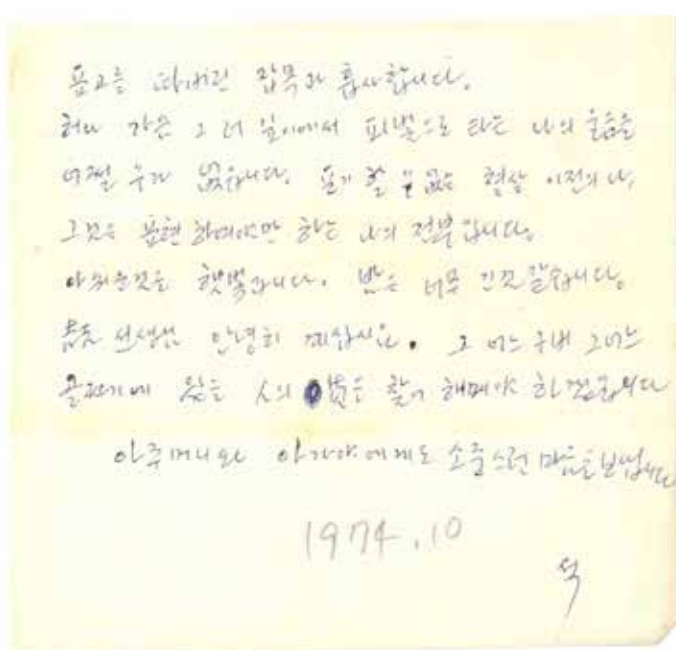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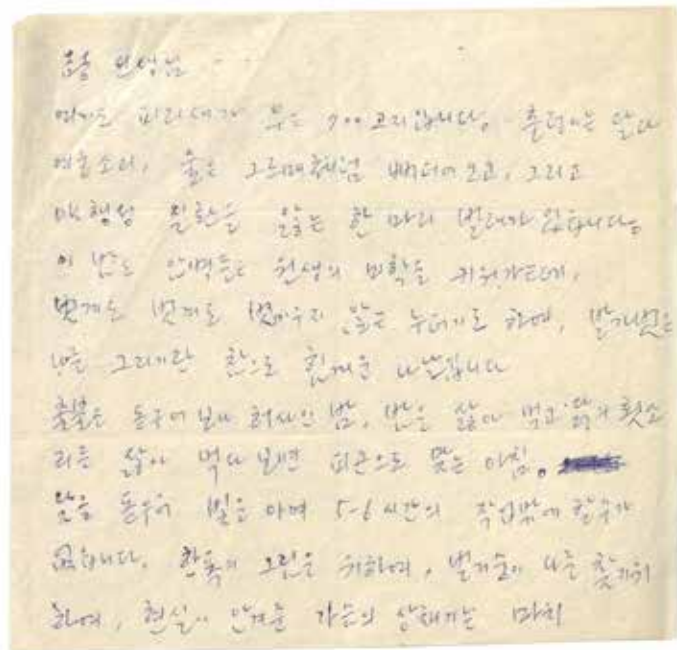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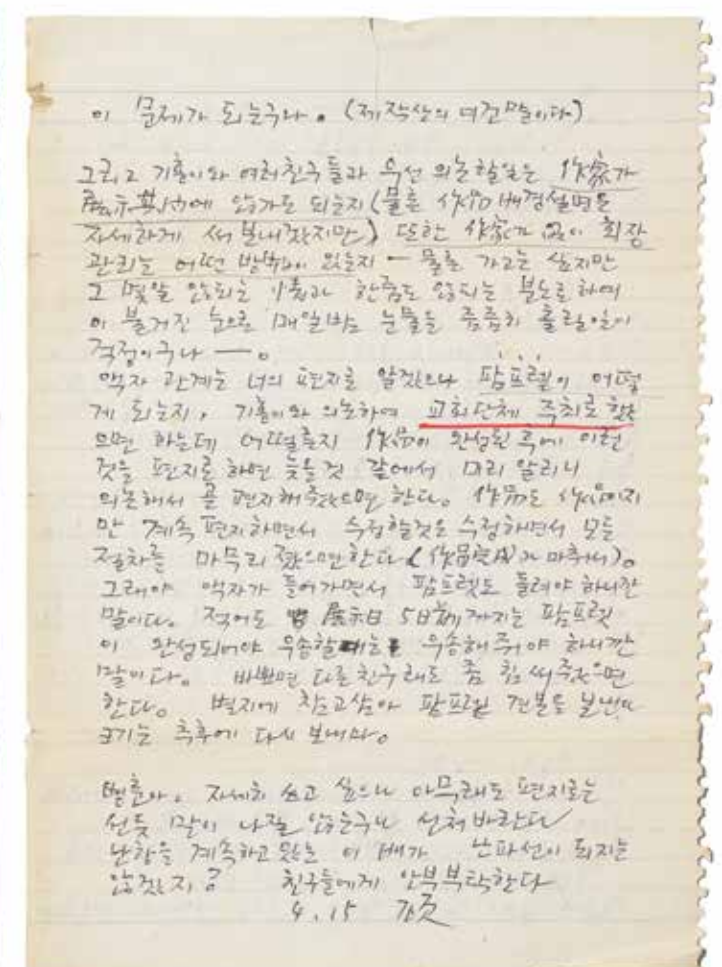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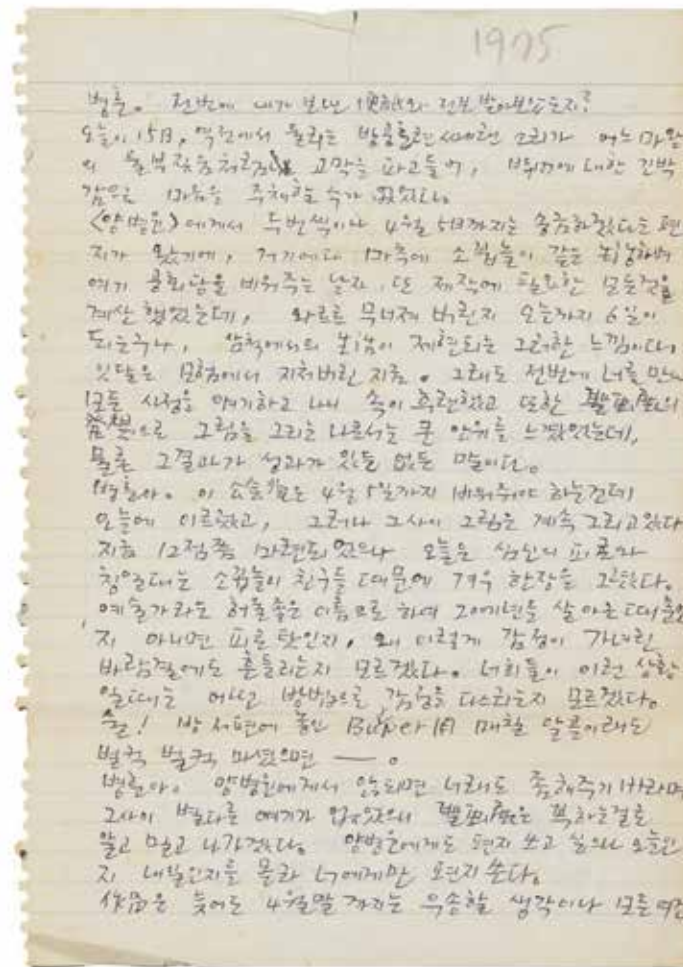
Letter to Kim Jong-chul

강태석 저 | 1975 | 양지

가로 26.9, 세로 19.4

아카이브 자료

김순이 기증 | 1997



갓모자

笠帽
Gat hat

20세기 | 말총
높이 15.2, 지름 14.1
고고민속 6855
김유의 기증 | 1997



짚줄 모자

草帽
Straw hat

20세기 | 흑삼릉
지름 35.1, 높이 11.1
고고민속 6861
서귀포 강정동노인회 기증 | 1997



탕건골

宕巾架
Tanggeongol (Frame for horsehair sculc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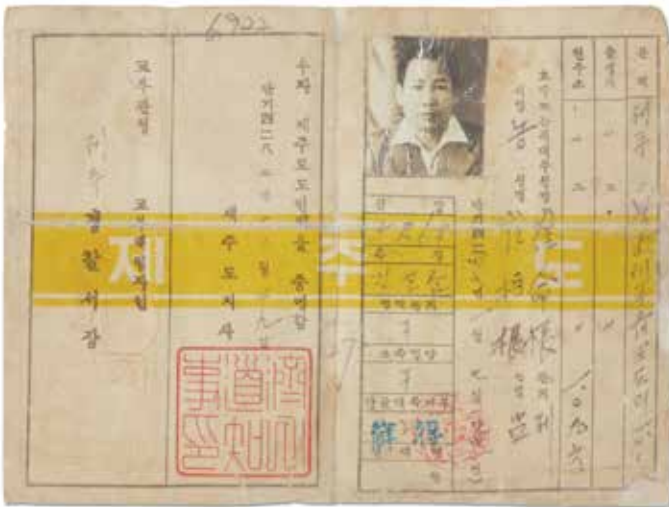
20세기 | 나무
높이 15.0, (바닥)지름 16.0
고고민속 6938
정몽순 기증 | 1997



도민증

道民證
Resident ID card

1954 | 양지
가로 13.0, 세로 9.5
고고민속 6922
정몽순 기증 | 1997



명함

名銜
Business card

20세기 | 양지
가로 5.9, 세로 9.6
고고민속 6935
정몽순 기증 | 1997



매매대장

買賣帳本
Trade register

20세기 | 양지
가로 19.2, 세로 26.1
고고민속 6933
정몽순 기증 | 1997



주낙

延繩
Junak
(Fishing line with multiple hooks)

20세기 | 나무, 철, 실
높이 9.0, 폭 51.4, 깊이 39.5
고고민속 6914
양경하 기증 | 1997



『제주의 마을(‘85~‘93)』 시리즈

조사 과정의 녹음테이프

「濟州的村莊(‘85~‘93)」系列調查過程的錄音帶

Audio tapes from a series of researches
for the “Villages of Jeju Island (‘85~‘93)”

오성찬 작 | 1985~1993 | 마그네틱 오디오 테이프

가로 6.8, 세로 10.9, 폭 1.6 (521개)

아카이브 자료

오성찬 기증 | 1997



제주 연안 수중사진 필름

濟州沿岸水中照片底片

Underwater photographs of Jeju Island’s coastline

이성환 작 | 20세기 | 사진필름

기타사진 1605, 1607, 1611, 1623, 1630, 1635,
3954, 3963, 3964, 3969

이성예 기증 | 1997



제주바다200(무릉도원)



제주바다202(야간비행)



제주바다206(유리창의 비)



제주바다218(선과 점의 조화)



제주바다225(살의 굴레)



제주바다230(외로운 가로수)



제주바다2559(호기심)



제주바다2549(잘못된 만남)



제주바다2564(갯고사리와 다이버)



제주바다2558

붉은바다거북

Loggerhead Turtle
Caretta caretta

현생 | 박제표본
전장 136.0
동물과충류 11
신창초등학교 기증 | 1998
해양보호생물, CITES I, IUCN 취약종(VU)



2000년대

산악인 故 고상돈의 유품이 1981년에 이어서 2000년에 아내 이희수에 의해 박물관으로 기증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조선 후기 제주인의 모습을 그린 유일한 인물화로 조선 후기 제주인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굴수 소조橘叟小照(제주도 유형문화재)’가 문남준, 문수창(남평문씨 문중)을 통해 2001년에 기증되었다.

2001년 제2회 섬문화축제에서 사용했던 일본, 몽골, 베트남, 스코틀랜드의 의상, 장신구, 조각품 등의 민속품이 제주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를 통해 245점이 기증되어 해외의 다양한 민속문화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다.

중국 장백산자연박물관에서 반달가슴곰 박제표본, 백두산 조면암과 탄화목 등의 유물자료를 2001년에서 2006년에 걸쳐서 기증하여 민속자연사박물관 자연사 전시실에 상설전시하고 있다. 또한 2001년 7월 12일 장백산자연박물관과 학술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장백산자연사박물관으로부터 곤충 건조표본 유물 170여 점을 기증받아서 자연사 전시자료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개관 20주년 특별전(2004년), 자연생태 사진전(2006년)을 개최하여 장백산(백두산)의 지질 경관 및 동식물 표본과 사진을 선보였다.

이 밖에 660여 점의 민속품과 조류, 파충류, 포유류 등 동물 표본 50여 점을 기증받아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에 활용하여 관람객에게 선보였다.

기증자 명단

2000	김연희	2003	김대수	홍부기	김기범	허시
김문필	김예순	강문실	김동학	오름사진연구회	김도규	국립중앙과학관
김상일	김재흠	강영식	김성원	제주전통문화연구소	김동섭	
김성옥	김현숙	강영일	김신권	라온골프장	김신배	2008
김영옥	김현자	고성근	김영환		김용환	강정환
김용순	김현정	고용구	김진탁	2005	김원구	고창수
김철만	두민수	고훈철	김태병	고태환	김재웅	김동림
이기준	문행섭	권기갑	김태현	김건태	김홍수	김문현
이정인	박성진	김계영	김팽남	김경철	김희창	김윤기
원계홍	박찬수	김병용	김창훈	김삼국	변규서	김원일
	성임순	김순식	라현석	김성식	오승언	김지영
2001	안진희	김양지	문두길	김영일	윤경노	김향순
강창언	양경식	임명희	문성필	김정인	한해룡	백운철
김기희	양근석	양신갑	문창해	김재문		변인아
김병엽	양용방	윤석순	부경희	김창화	2007	신용준
문남준	양은주	왕상열	부창옥	라현석	강맹우	양석찬
문수창	양창부	이대유	부태삼	박계봉	강정환	이기완
변유생	오태흠	조재열	서익범	서익범	강창선	이봉희
양경하	육지숙	최한기	성신순	성신순	강천문	이성은
오정일	이성만	허필호	안창순	양두환	강춘열	이지성
우국일	이용남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안춘옥	양영환	강홍철	현용준
중국장백산자연박물관	정진숙	중국장백산자연박물관	안춘자	정태여	고동순	
	정향임	해정문화연구소	양동교	좌동현	김병용	2009
2002	지남준		양이순	채바다	김병하	강건영
강병수	한명섭	2004	오문찬	캠프맥네브	김성예	김문보
고경화	좌선심	강봉진	우봉홍	한인우	김호규	김병택
고영만	한영창	강상진	윤병찬	현용준	변규서	김상령
고용문	함태선	강창수	윤석병	(사)한국꽃누루미협회	신용준	김성환
고재만	현경하	강창완	이두호		차용식	김종극
김경주	홍성석	강창화	이송재	2006	오영종	변규진
김석윤	홍진숙	강홍기	이영홍	강술생	윤경노	임동혁
김선숙	한국조류보호협회	고대용	정수영	강창식	이상명	조영진
김순남	남북협력단	고병남	정채호	강춘생	이상숙	
김세종		김군선	최형권	고재수	한경미	
김연숙		김달수	현동호	고재원	한봉석	

입산허가증

入山許可證
Peak Climbing Permit

20세기 | 양지
(인물사진 有)가로 28.0, 세로 15.3
(인물사진 無)가로 28.0, 세로 16.0
기타산악 512
이희수 기증 | 2000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 인정서

珠穆朗瑪峰登頂認證書
Mt. Everest Summit Certificate

20세기 | 양지
가로 29.9, 세로 24.2
기타산악 511
이희수 기증 | 2000



무전기

無電機
Walkie-talkie

20세기 | 철
높이 9.5, 폭 27.7, 깊이 8.5
기타산악 516
이희수 기증 | 2000



훈장 및 휘장

勳章證
Certificate of merit

20세기 | 양지, 천
(전체)가로 40.5, 세로 29.3
기타산악 515
이희수 기증 | 2000



“77KEE 고상돈” 초청기념등반 패넌트기 등

“77KEE 高相敦” 邀請紀念登山隊旗等
Pennant flag and other mementos of the Mt. Everest climb
with “77KEE Ko Sang-don”

20세기 | 복합제질
(액자)가로 56.0, 세로 53.0
기타산악 472
이희수 기증 | 2000



수리부엉이

Eurasian Eagle Owl
Bubo bubo

현생 | 박제표본
전장 64.0
동물조류 867
김철만 기증 | 2000
천연기념물 & 멸종위기2급



탄화목

碳化原木
Carbonized wood

현생 | 나무
높이 11.3, 폭 34.3, 길이 13.2
기타자연물 2
장백산자연박물관 기증 | 2001



흰배지빠귀

Pale Thrush
Turdus pallidus Pale Thrush

현생 | 박제표본
전장 22.8
동물조류 866
김문필 기증 | 2000

궐수소조

橘叟小照
Portrait of Gyulsu, Moon Baek-min

글 허련, 그림 허은 | 1863 | 비단에 채색
가로 36.3, 세로 69.0
고고민속 774
문남준, 문수창 기증 | 2001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높은산지옥나비

Arran Brown
Erebia ligea

현생 | 건조표본
전장 1.5
동물곤충 8220
장백산자연박물관 기증 | 2001

눈나비

Black-veined White
Aporia hippia

현생 | 건조표본
전장 2.0
동물곤충 8232
장백산자연박물관 기증 | 2001



금강산녹색부전나비

Gossamer-winged Butterfly
Favonius ultramarinus

현생 | 건조표본
전장 1.2
동물곤충 8212
장백산자연박물관 기증 | 2001

산꼬마부전나비

Silver-studded Blue
Plebejus argus

현생 | 건조표본
전장 1.3
동물곤충 8214
장백산자연박물관 기증 | 2001



북방기생나비

Fenton's Wood White
Leptidea mors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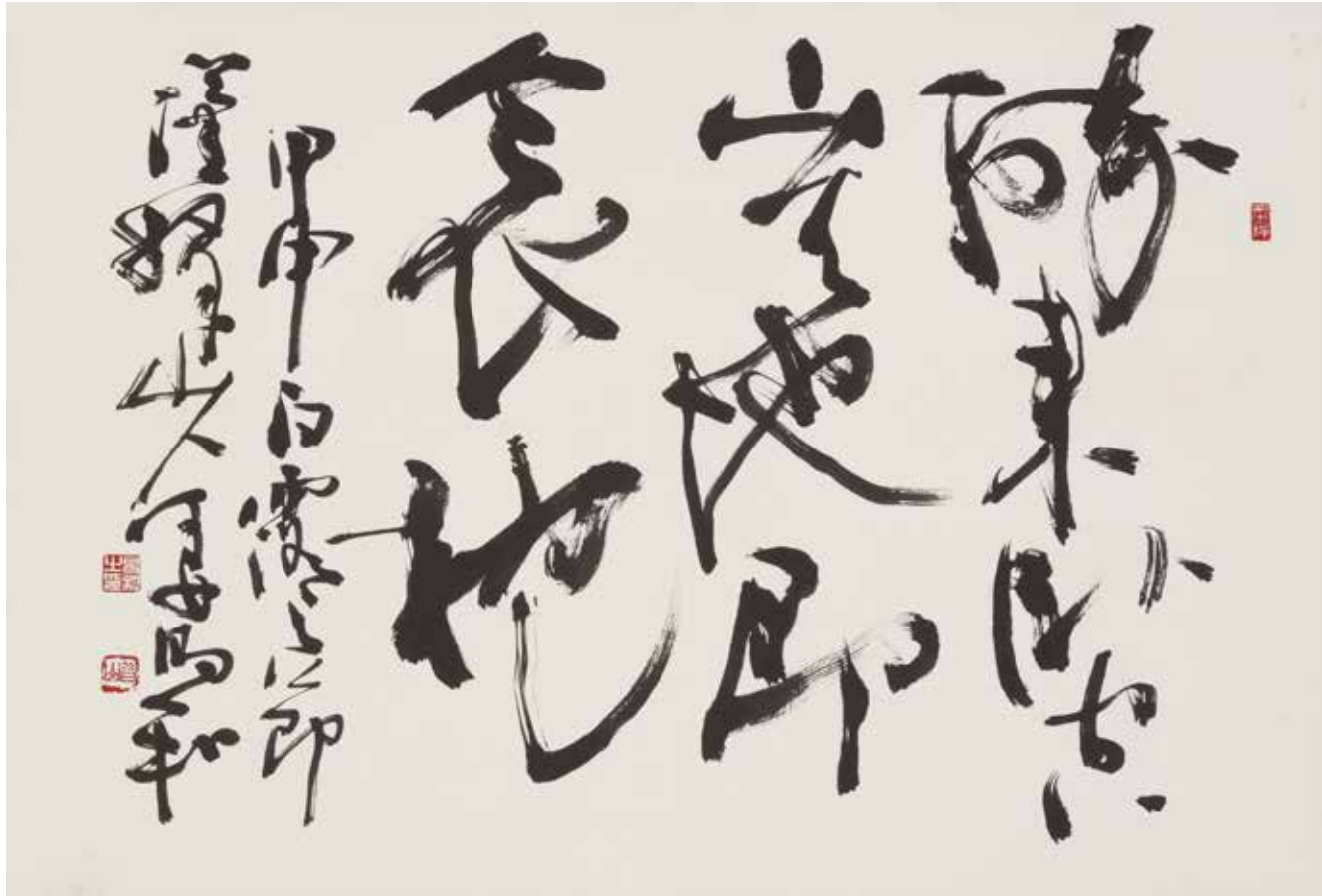
현생 | 건조표본
전장 1.4
동물곤충 8224
장백산자연박물관 기증 | 2001

옥색긴꼬리산누에나방

Japanese moon moth
Actias gnoma mandsahurica

현생 | 건조표본
전장 3.2
동물곤충 8236
장백산자연박물관 기증 | 2001





취래와공

醉來臥空
Chwiraewagong (Drunken, lying in the air)

강창화 작 | 2004 | 한지에 먹
가로 67.4, 세로 46.9
고고민속 8896
강창화 기증 | 2004

반달가슴곰

Asiatic black bear
Ursus thibetanus ussuricu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158.2
동물포유류 94
장백산자연박물관 기증 | 2004



브라이드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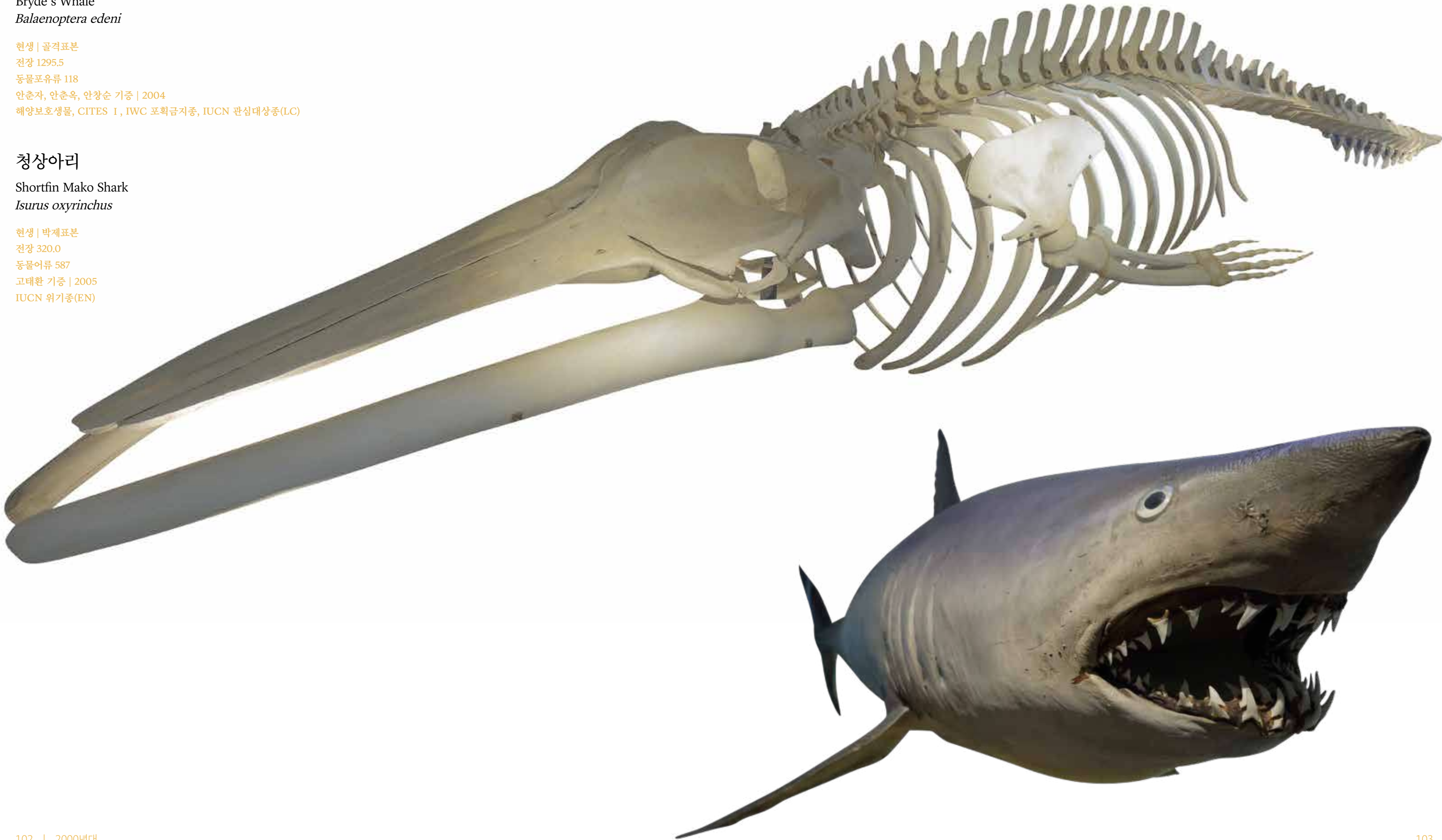
Bryde’s Whale
Balaenoptera edeni

현생 | 골격표본
전장 1295.5
동물포유류 118
안춘자, 안춘옥, 안창순 기증 | 2004
해양보호생물,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관심대상종(LC)

청상아리

Shortfin Mako Shark
Isurus oxyrinchu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320.0
동물어류 587
고태환 기증 | 2005
IUCN 위기종(EN)



양태구덕

編織筐
Basket for placing hat brim

2000년대 이후 | 대나무
높이 26.4, 폭 39.0, 깊이 36.4
고고민속 9150
변규서 기증 | 2006



백두산 조면암

白頭山 粗面巖
Mt. Paekdu Trachyte

현생 | 암석
높이 9.6, 폭 13.5, 길이 12.1
지질암석 1
장백산자연박물관 기증 | 2006



오소리

Asian Badger
Meles leucuru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83.1
동물포유류 95
장용무 기증 | 2006





흰꼬리수리

White-tailed eagle
Haliaeetus albicilla

현생 | 박제표본
전장 87.5
동물조류 931
이성자 기증 | 2006
천연기념물 & 멸종위기2급

진홍가슴

Siberian Rubythroat
Erithacus calliope

현생 | 박제표본
전장 17.2
동물조류 956
장백산자연박물관 기증 | 2006

큰말뚝가리

Upland Buzzard
Buteo hemilasiu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69.9
동물조류 942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 기증 | 2006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스트로마톨라이트

Stromatolite

현생 | 암석

가로 42.0, 세로 86.0

지질화석 558

국립중앙과학관 기증 | 2007

오소리

Asian Badger

Meles leucuru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66.9

동물포유류 97

한경미 기증 | 2007



남방에

木碓

Wooden mortar

20세기 | 느티나무

높이 42.0, 지름 90.3

고고민속 9323

신용준 기증 | 2007



허벅

水罐
heobeok
(Earthenware jug for women to carry water)

20세기 | 흙
입지름 10.0, 바닥지름 38.0, 높이 35.5
고고민속 9402
양석찬 기증 | 2008



원앙(수컷) 원앙(암컷)

Mandarin Duck Mandarin Duck
Aix galericulata *Aix galericulata*

현생 | 박제표본 현생 | 박제표본
전장 42.8 전장 43.1
동물조류 990 동물조류 991
김종국 기증 | 2009 김종국 기증 | 2009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미상

未詳
Being unknown

가토 쇼린진 작 | 1964 | 종이에 수채
(전체) 가로 396.0, 세로 186.2 (8폭)
고고민속 9526
강건영 기증 | 2009

2010년대

1990년대에 이어 2010년대는 두 번째로 많은 기증이 이루어진 시기이면서 민속품과 다양한 동물 박제, 암석 및 사진 등 여러 분야의 유물이 기증되었다. 민속 분야에서는 고문서, 민구류, 생활 가전과 서예 작품 등 2,000여 점의 유물을 기증받은 감사한 시기이다. 특히 박물관 유물에서 부족했던 화폐 자료를 동국화폐연구소의 박용권 대표가 기증하였다. 이는 40년간 수집한 화폐 4천여 점 중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및 중국의 역사시대 화폐와 한국은행, 북조선중앙은행 등에서 발행한 화폐 281점으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자연사 분야의 기증에서도 의미 있는 시기이다. 곤충, 조류, 파충류, 포유류 등 동물 표본이 20여 점 기증되었으며, 박용국 前 중국 장백산자연박물관장의 백두산 전경 사진 30점도 기증되었다. 기증된 포유류 중에는 브라이드고래, 참고래와 같이 대형 포유류가 포함되어 박물관 상설전시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참고래는 원광수산의 주해군 대표가 2019년 12월 제주시 한림항에서 북서쪽으로 40km 떨어진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몸길이 12.6m(체중 약 12ton)의 어린 참고래 사체를 최초 발견·신고하여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인수하였다. 참고래 사체는 표피 및 지방질 자연 제거를 위하여 16여 개월 동안 박물관 부지에 매립하고, 이후 한국해양동물연구소(주)에 의뢰하여 20여 개월에 거쳐 참고래 골격표본을 제작하여 2022년 11월부터 박물관 로비에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의 대표 유물 중 하나이다. 또한 이 시기에 기증받은 암석 110점 중 103점은 정수현이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대한민국 등에서 수집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을 기증하여 지질 분야 조사·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기증자 명단

2010	김효정	오용순	2016	김화자	박용권	강형민
강청용	권기갑	이노배	고승지	목명자	양기남	오성조
고정송	손영태	이동규	김영주	문혜숙	김익수	강철수
김은용	이기완	이여방	문영신	박동규	전방언	박수열
안우식	허인범	조영진	박원철	변창보	고남화	오창순
양용희	동하동골회	광령2리마을회	박태욱	변희자	정창림	서재철
오양숙			백영신	서재철	김종근	이창선
서귀여자중학교	2013	2014	송상순	오유경	현승전	오성수
	강원호	강애순	송성희	이동해	고지선	니시가와 유키오
2011	강종보	고정순	이영숙	정수현	이동규	김익수
강창훈	강창우	문의숙	현승전	정세호	오용순	박태욱
김두경	강철희	양석찬		정순실	강영생	오옥단
박태규	고순옥	양원석	2017	정차연	양종렬	권기효
양경진	고운배	오영석	고만배, 고만보, 고흥기, 고정순	진군호	김익중	현기순
양창순	고재윤	이현주	강춘생	홍덕주	한정엽	오용순
오충진	김인탁	전재현	고민보	화단체	강상돈	진상우
임동혁	김재국	정용수	김대규	(사)전통천연염색색채예술연구회	정현재	조영진
홍복자	김평기	곽지리마을회	김상돈		한의자	김병엽
홍성보	김태수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김성조	2018	(사)전통천연염색색채예술연구회	박용국
	김태숙		김순흠	배봉환	김봉진	박종만
2012	김하옥	2015	김윤수	조영희		이용문
강성봉	문병하	양경진	김영순	고명진	2019	
김군택	양경준	윤경노	김주택	김해곤	박성준, 박성일	
김병용	양석찬		김창욱, 정차연	강찬근	양기남	
김익수	양재근		김해진	정영민	김시용	

황말벌집

黃馬蜂巢

Yellow hornet hive

현생 | 건조표본

높이 61.8, 폭 53.0, 깊이 40.5

동물곤충 11058

오충진 기증 | 2011



제주향토기

濟州鄉土記

Jeju local records

1958 | 양지

가로 20.0, 세로 27.0

고고민속 9981

김익수 기증 | 2012



미역

Sea Mustard

Undaria pinnatifida

현생 | 건조표본

가로 26.1, 세로 36.2

식물해조류 951

이기완 기증 | 2012



까부리

潛水帽
Kkaburi
(Hat worn by haenyeo for diving)

20세기 | 면
가로 48.0, 세로 35.0
고고민속 10140
고순옥 기증 | 2013



물소중이

潛水小袴衣
Mulsojungi
(Cotton diving suit worn by haenyeo)

20세기 | 면
길이 60.0, 너비 68.0, 허리둘레 73.6
고고민속 10141
고순옥 기증 | 2013



홀두루마기

單層長袍
Durumagi (Traditional topcoat)

일제강점기 | 명주
(최대)가로 139.0, 세로 121.0
고고민속 10310
윤경노 기증 | 2015



지새항아리

瓦甕
Earthen jar

일제강점기 | 흙
입지름 31.0, (최대)지름 54, 높이 70.0
고고민속 10269
서귀포시 강정동 기증 | 2015



낭국자

木湯勺
Wooden ladle

20세기 | 나무
(전체)길이 45.9, (자루)길이 30.4, (국자)길이 17.4
고고민속 10642
이영숙 기증 | 2016



산판

算版
Sanpan
(Divination tool)

20세기 | 철
(산대 1점)지름 12.2, 높이 2.9
(상잔 2점)지름 4.4, 높이 1.7, (천문, 지문 각 1점)지름 5.1
고고민속 10396
송상순 기증 | 2016



남박

木鉢
Wooden bowl

20세기 | 구실잣밤나무
높이 9.6, 폭 31.3, 깊이 24.9
고고민속 10658
강춘생 기증 | 2017



덧(새덧)

獲
Trap

현생 | 나무
지름 81.8
고고민속 10983
고민보 기증 | 2017



화로

火爐
Braz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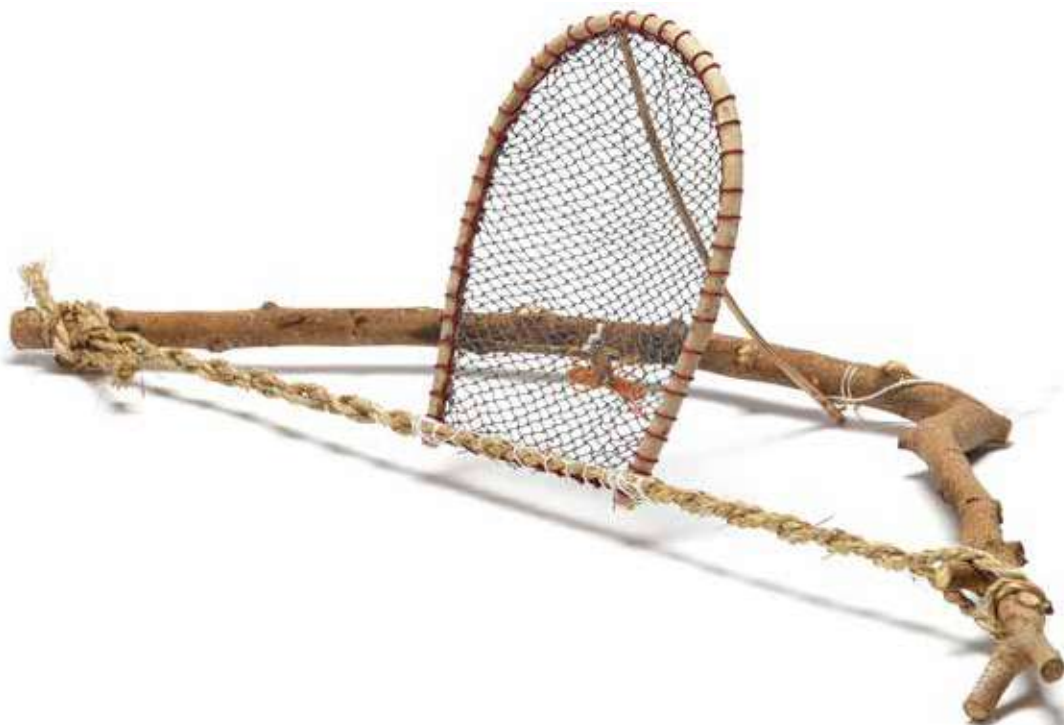
임제강점기 | 철
높이 20.0, (최대)지름 40.5
고고민속 10836
진군호 기증 | 2017



덧(새덧)

獲
Trap

현생 | 나무
길이 89.5
고고민속 10985
고민보 기증 | 2017



U층

未固結堆積層
Unconsolidated sediment formation

현생 | 암석
높이 16.5, 지름 10.5
지질암석 940
김창욱 기증 | 2017



맨틀 포획암

Mantle xenolith

현생 | 암석
높이 16.3, 폭 34.4, 깊이 29.1
지질암석 932
김상돈 기증 | 2017



되

升子
Doe
(Box to measure the quantity)

20세기 | 나무
높이 10.3, 폭 17.2, 깊이 17.1
고고민속 10956
김영순 기증 | 2017

영여

靈輿
Yeongyeo
(Palanquin for the soul of the deceased)

20세기 | 나무
높이 79.7, 폭 66.5, 깊이 187.7
고고민속 10660
화단재(대표 김주택) 기증 | 2017



국방난수

菊芳蘭秀
Gukbangnansu
(Fragrant chrysanthemums and graceful orchi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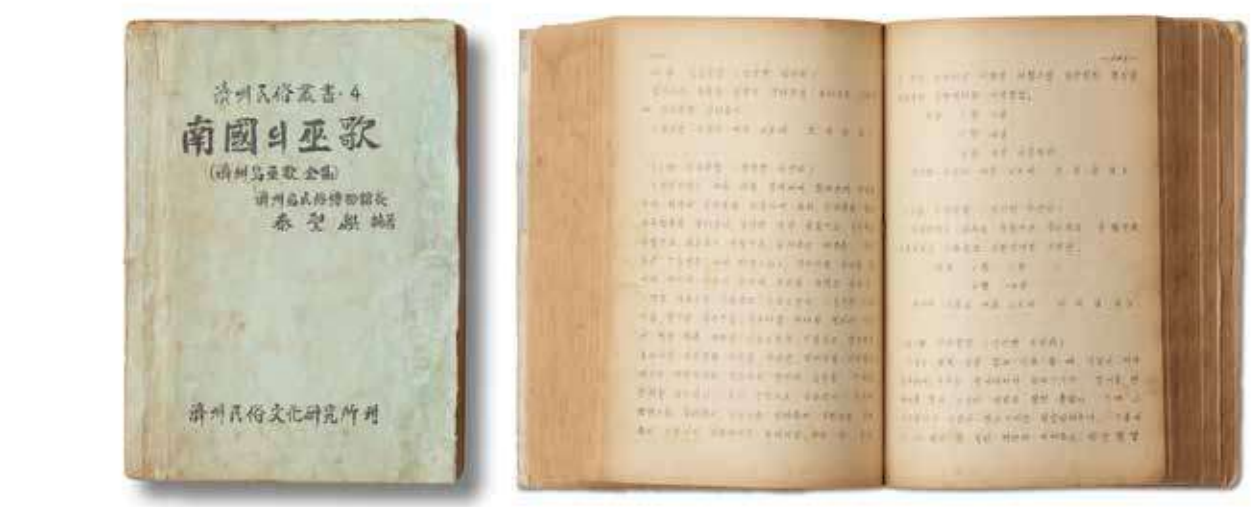
김광추 작 | 1981 | 한지에 먹
가로 125.2, 세로 32.3
고고민속 11367
전방언 기증 | 2018



남국의 무가

南國의 巫歌
Shamanic songs of the southern land(Jeju)

1968 | 양지
가로 15.8, 세로 25.0
고고민속 11953
강상돈 기증 | 2018



항아리

缸
Water Jar
(mainly used to store drinking water)

20세기 | 흙
높이 55.6, (최대)지름 44.6
고고민속 11873
강영생 기증 | 2018



붓걸이와 붓

毛筆架和毛筆
Hanger with writing brushes

20세기 | 나무
(붓걸이)(최대)지름 14.0, 높이 45.1
(붓)길이 24.6~32.0
고고민속 11344~11360
전방언 기증 | 2018



먹집게
墨夾
Ink stick holder

20세기 | 나무
(먹 포함)길이 20.3
(집게)길이 14.5, 너비 5.3, 두께 2.8
고고민속 11341
전방언 기증 | 2018

마묵기
磨墨機
Ink stick grinder

20세기 | 철
높이 15.3, 폭 40.1, 깊이 21.5
고고민속 11362
전방언 기증 | 2018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개관 당시 사진 필름

濟州民俗自然史博物館開館時的照片底片
Photographs from the opening of
the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elf-Governing Province

한석홍 작 | 20세기 | 사진필름
고고민속 11892, 11893, 11926, 11936, 11946, 11947, 11948
한정엽 기증 | 2018





필름6(돌묵상어)



필름50(돌하르방)



필름40(초가)



필름60(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내부전경)



필름61(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전경)



필름62(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전경002)

양태

陽太(帽檐)
Hat brim

1930년대 | 나무
높이 2.7, 지름 54.9
고고민속 12005
김익수 기증 | 2019



찰구덕

編筐
Waist basket

1960년대 | 대나무
높이 22.3, 폭 43.1, 깊이 37.5
고고민속 12016
오옥단 기증 | 2019



남방큰돌고래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
Tursiops aduncu

현생 | 골격표본
전장 192.0
동물포유류 138
김병엽 기증 | 2019
해양보호생물, CITES II, IWC 포획금지종, IUCN 준위협종(NT)



흑범고래

False Killer Whale
Pseudorca crassidens

현생 | 골격표본
전장 157.0
동물포유류 141
김병엽 기증 | 2019
해양보호생물, CITES II, IWC 포획금지종, IUCN 준위협종(NT)



상괘이

Narrow-ridged Finless Porpoise
Neophocaena asiaeoriental

현생 | 골격표본
전장 130.0
동물포유류 139
김병엽 기증 | 2019
해양보호생물,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위기종(EN)



참고래

Fin Whale
Balaenoptera physalu

현생 | 골격표본
전장 1260.0
동물포유류 144
주해군(최초 발견·신고자) 기증 | 2019
해양보호생물,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취약종(VU)



제주시 시내버스승차권(일반, 중고생)

乗車券
Jeju city bus ticket

2000~2004 | 양지
가로 6.6, 세로 2.6
고고민속 12256, 12257
진상우 기증 | 2019



다리미

熨斗
Pressing iron

1970년대 | 철
높이 17.4, 폭 20.4, 깊이 9.5
고고민속 12249
진상우 기증 | 2019



손작두

手鋤刀
Straw cutter

20세기 | 철, 나무
높이 17.9, 폭 84.5, 깊이 14.0
고고민속 12376
진상우 기증 | 2019



약연

藥碾
Medical herb grinder

20세기 | 철, 나무
높이 11.2, 폭 63.0, 깊이 18.6
(축)길이 27.2 (연알)지름 22.0
고고민속 12377
진상우 기증 | 2019

약절구

藥杵
Mortar and pestle for medical herb

20세기 | 철
(약절구)입지름 28.7, 높이 23.3, 바닥지름 17.3
(절굿공이)길이 39.3
고고민속 12375
진상우 기증 | 2019



파쇄기

破碎機
Disintegrator

20세기 | 철
(최대)높이 102.0, 폭 65.0, 깊이 40.0
고고민속 12836
진상우 기증 | 2019



대저울

杆秤
Large balance scale

20세기 | 철, 실, 나무
(접시)지름 7.9, 높이 0.7
(막대)길이 24.74
(추)지름 1.5, 높이 2.5
(통)길이 29.2, 폭 9.5, 높이 2.8
고고민속 12383
진상우 기증 | 2019



제환기

製丸機
Round pill maker

20세기 | 철
(최대)높이 81.0, 폭 99.0, 깊이 81.0
고고민속 12835
진상우 기증 | 2019



추저울

案秤
Scale with weights

20세기 | 철
높이 19.5, 폭 36.0, 깊이 15.0,
고고민속 12384
진상우 기증 | 2019



적십자사 조끼

紅十字會背心
Red Cross vest

20세기 | 천
화장 24.0, 등길이 60.0
고고민속 12338
진상우 기증 | 2019



의료용 반사경

頭鏡
Head mirror

20세기 | 철
높이 19.3, 폭 10.9, 깊이14.0
고고민속 12368
진상우 기증 | 2019



온구기

熱灸器
Moxibustion instrument

20세기 | 복합재질
지름 8.3, 높이 12.2
고고민속 12369
진상우 기증 | 2019



한 의사 가운

韓醫師大褂
Korean Medicine Doctor's white coat

20세기 | 천
화장 83.0, 등길이 106.5
고고민속 12340
진상우 기증 | 2019



청진기

聽診器
Stethoscope

20세기 | 복합재질
길이 71.7
고고민속 12370
진상우 기증 | 2019



침통

針盒
Case for acupuncture needles

20세기 | 철
(닫았을 때)높이 2.0, 폭 13.3, 깊이 7.8
(펼쳤을 때)높이 1.1, 폭 13.3, 깊이 14.6
고고민속 12362
진상우 기증 | 2019



애월면 공의 진료소 현판

涯月面公衛診療所牌匾
Signboard of the public health clinic in Aewol-myeon

20세기 | 나무
가로 23.8, 세로 151.9
고고민속 12359
진상우 기증 | 2019





2020년대 ~2023. 11월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기증받은 유물은 총 1,349점이다. 4년 동안 기증받은 유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유물이 기증된 기간이다.

4년이라는 기간으로 다른 연대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렵지만, 기증받은 유물 1,349점 중 민속 분야 유물이 1,345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자연사 분야는 어류, 암석, 화석, 파충류 자료가 각 1점씩이 기증되었다.

2022년 이창훈이 기증한 165점의 '제주 대포리 고부이씨 집안 소장 고문서(공문서, 재산상속문서, 매매문서, 개인문서 등)'를 탈초 및 국역 작업을 추진하여 책으로 발간하였다. 고문서 작성시기 제주인의 관념과 의식, 향촌 관습, 가족 형태와 경제 양태 등 제주도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기증 유물을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물을 일반 대중과 공유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한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박물관 개관 전부터 2023년 11월까지 기증받은 소중한 유물을 활용하여 2023년 12월 제151회 특별전 「7개의 공간, n개의 삶」이라는 이름으로 기증자료 특별전시를 개최하였다. 기증자료 특별전시로 40여 년 동안의 수많은 기증자료를 모두에게 공유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의 모든 기증자에게 고마움을 담아서 표하였다.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유물을 기증해 주신 기증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기증자 명단

2020	이중보	김용남	부정순	김익수	김병용	고만옥
김익수	문명옥	정창휴	김정자	이창훈	박정의	변수녀
양성진	조정삼	서호마을회	부춘성	이성찬	고복찬	강인순
고금란	이경도	이용문	강순희	양기남	고산옥	전창호
고영숙	양동림	문혜숙	홍인화	홍철호	한안순	강순옥
이승현	오영숙	오성수	김영중	박수정	신용현	강요배
조금해	강화수	김성옥	양상철, 정웅표, 김영선	이창원	오인순	김영랑
양영환	강순옥	김서원		김용준	진인자	오석민
이좌성		김영수	2022	박종만		박정훈
오성수	2021	양기남	고동희	강한영	2023	이영배
박종만	김건일	이경도	김미자	김행구	부춘성	
정성원	김익수	강옥자	김경화	박종혁	현진숙	

갓일도구

編笠工具
Tools for making Gat hat

20세기 | 대나무
(최대)길이 21.8
고고민속 12443
조정삼 기증 | 2020



바느질자

縫紉尺
Sewing ruler

1950년대 | 나무
길이 51.4, 폭 2.5
고고민속 12472
양동립 기증 | 2020



궤

櫃
Wooden chest

1920년대 | 소나무, 철
높이 82.5, 폭 98.5, 깊이 46.0
고고민속 12701
김영수 기증 | 2021



궤

櫃
Wooden chest

20세기 | 느티나무, 철
높이 79.4, 폭 96.2, 깊이 44.8
고고민속 12626
김성욱 기증 | 2021



체

篩子

Sieve

20세기 | 나무, 그물
지름 27.5, 높이 8.2
고고민속 12600
오성수 기증 | 2021



푸른바다거북

Green Turtle

Chelonia myda

현생 | 박제표본
전장 100.0
동물파충류 58
김서원 기증 | 2021
해양보호생물, CITES I, IUCN 위기종(EN)



물항

水缸

Mulhang

(Water Jar mainly used to store drinking water)

20세기 | 흙
높이 70.0, 입지름 31.0, 몸통지름 54.0
고고민속 12629
김성옥 기증 | 2021



재봉틀

縫紉機
Sewing machine

1912 | 나무, 철
(전체)높이 44.8, 폭 112.8, 깊이 41.4
고고민속 12859
양기남 기증 | 2022



물구덕

水筐
Mulgudeok
(Bamboo basket used to carry and support mulheobeok)

20세기 | 대나무
(구덕)높이 24.5, 폭 46.2, 깊이 39.5
(받침)가로 48.9, 세로 32.7
고고민속 13236
박정의 기증 | 2022



놋양푼

銅盆
Brass bowl

20세기 | 놋
지름 33.9, 바닥지름 27.6, 높이 11.5
고고민속 13029
박수정 기증 | 2022



서진

書鎮
Paperweight

20세기 | 돌
높이 38.3, 폭 2.7, 깊이 3.0
고고민속 13513
진인자 기증 | 2022



벼루

砚台
Byeoru
(Inkstone with the handle of the lid carved in the shape of a turtle)

20세기 | 암석
(전체)높이 4.4, 폭 18.6, 깊이 12.8
고고민속 13507
진인자 기증 | 2022



20세기 제주인명사전

20世紀 濟州人名事典
The Biographical Dictionary
of Jeju in the 20th Century

2000 | 양지
가로 19.2, 세로 26.4
고고민속 13670
진인자 기증 | 2022

제주사인명사전

濟州史人名事典
The Biographical Dictionary
in Jeju History

2002 | 양지
가로 19.0, 세로 26.4
고고민속 13671
진인자 기증 | 2022

제주 향토문화 사전

濟州鄉土文化詞典
The Dictionary of Jeju Folk Culture

2016 | 양지
가로 21.6, 세로 30.7
고고민속 13673
진인자 기증 | 2022

김찬흡 연구노트

金榮治研究筆記
Kim Chan-heup's research notes

20세기 | 양지
(평균)가로 20.2, 세로 28.3
아카이브 자료
진인자 기증 | 2022



안경

眼鏡

Glasses

20세기 | 유리, 철
길이 13.3, (다리)길이 13.0
고고민속 13553
진인자 기증 | 2022

돋보기

放大鏡

Magnifying glass

20세기 | 유리
지름 10.9, 높이 2.8
고고민속 13500
진인자 기증 | 2022

가방

包

Bag

20세기 | 합성재질
높이 39.0, 폭 28.0, 깊이 8.0
고고민속 13496
진인자 기증 | 2022



만년필

萬年筆

Fountain 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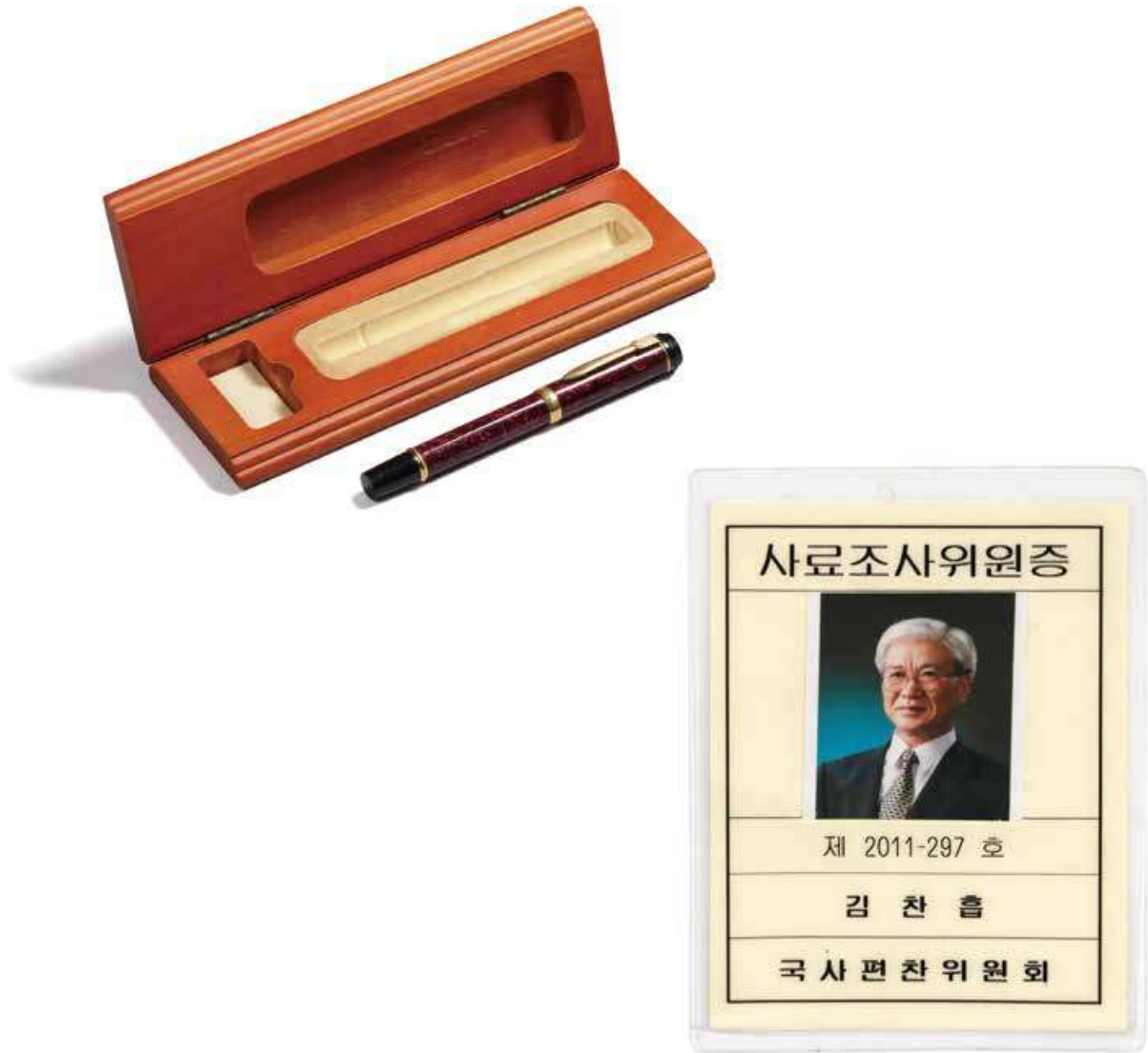
20세기 | 복합재질
(만년필)길이 13.7 (함)높이 3.0, 폭 21.5, 깊이 7.0
고고민속 13501
진인자 기증 | 2022

사료조사위원증

史料調査委員證

ID card for the investigator of historical mater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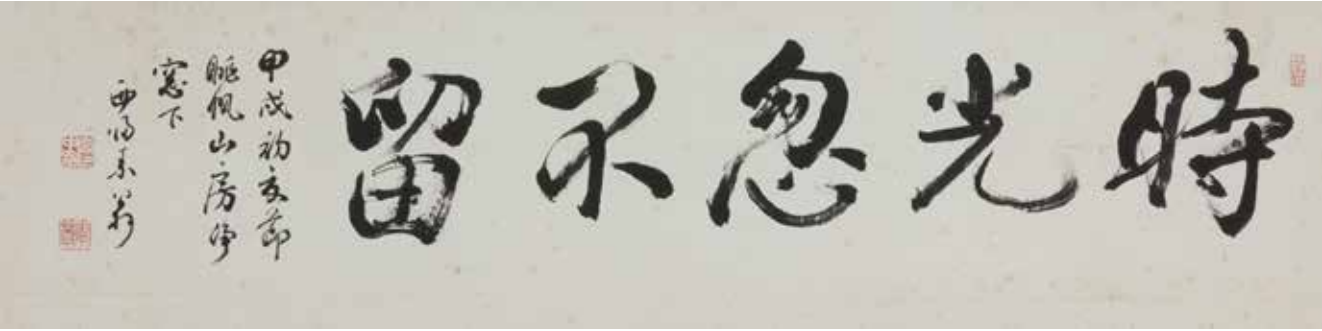
20세기 | 양지
가로 7.0, 세로 10.0
고고민속 13471
진인자 기증 | 2022



시광홀불류

時光忽不留
Sigwangholbullyu (Time never stays even for a moment)

현중화 작 | 20세기 | 한지에 먹
가로 154.0, 세로 54.8
고고민속 13960
강순옥 기증 | 2023



永受嘉福 영수가복

永受嘉福
Yeongsugabok (Eternal joy and bless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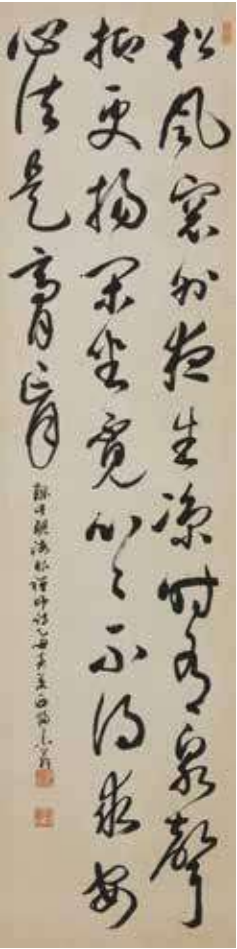
김광추 작 | 20세기 | 한지에 먹
가로 153.9, 세로 44.5
고고민속 13952
강순옥 기증 | 2023



욕래조자선수목

欲來鳥者先樹木
Yokraejoseonsumok
(If you wish birds to come, first plant trees)

현중화 작 | 20세기 | 한지에 먹
가로 46.5, 세로 154.4
고고민속 13953
강순옥 기증 | 2023



탕건

宕巾
Tanggeon (Horsehair sculcap)

20세기 | 말총
높이 16.8, 지름 17.0
고고민속 14092
이영배 기증 | 2023



무구류

巫具類

Shamanic ritual objects

고행선 큰심방 유품 | 20세기 | 복합재질

고고민속 13833~13912

고만옥 기증 | 2023



3.

기증자 인터뷰

이 장에서는 소중한 작품을 기증하여 박물관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 기증자를 소개합니다. 그들의 기증으로써 박물관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었고, 유물은 더 다양하고 풍부해졌습니다.

기증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기증에 대한 의미와 기증유물 이야기, 문화적인 열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증자들과 나눈 소중한 이야기를 모두에게 공유합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만남에서 그림 같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인터뷰는 그림 책처럼 펼쳐졌고, 각각의 이야기는 고유한 색채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증자의 유물에 담긴 감동과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기증자가 작품을 박물관에 기증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살펴봅니다. 그들이 선택한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특별한 연결고리와 이토록 소중한 작품을 전하고 싶은 의미를 알아갔습니다. 기증자들의 이야기는 이 책을 통해 여러분과 만남을 나누며, 박물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기증자와의 인터뷰 채록을 통해 우리가 느꼈던 작은 행복에서부터 큰 감동까지, 기증자분과 함께한 순간들을 공유합니다. 이 채록집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발견과 영감을 안겨줄 것을 기대합니다.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일곱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소장품 도록에 미처 담지 못한 모든 기증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강영자 인터뷰 채록 기증자 강영익 *인터뷰이: 강영익의 동생 강영자(1947년생) 인터뷰 일시 11월 20일 14시 인터뷰 장소 개인 작업실 (제주시 조천읍 대흥리)	박물관 관계자 강태석 화백님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강영자 저는 강태석 화백의 아홉 살 밑의 마지막 여동생입니다. 오빠가 서라벌 예술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오빠가 제주도에 와서 후배들을 대청마루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나미 잉크병을 하나 놓고 네 명 정도를 지도하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오빠로서는 후배들이 서울에 정보를 모르니까, “홍대는 이런 식으로 하는 데고, 서울대는 이런 식으로 가는 데다.”라는 진학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기증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정말 중요했던 자료를 박물관에 관리권, 소유권 등 그 일체를 이양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증을 결정했을 때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일본에 계시는 우리 작은오빠가 일본에 가게 되었을 때 김순이 선생님을 통해서 당시 양재박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이 있으실 때 160점을 모두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증할 당시는 개인이 미술관을 개업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갤러리가 많이 있으면 그 갤러리 관장하고 어떤 조인(join)이 되어서 우리가 기증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약 180점 정도는 오빠(강태석 화백)가 돌아가셨을 때 강원도에서 제가 받았고, 그 후에 작은오빠가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넘겼습니다. 자료를 받은 작은 오빠도 이 후에 일본으로 가게 되었고, 또 그때 당시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인 양재박 관장님이 오빠(강태석 화백)하고 북초등학교 동창이다 보니까 기증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강태석 화백님의 자료들이 그동안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빠(강태석 화백)가 1960년대 중후반에 서울로 가셔서 작품 활동을 하시다가 강원도에 다 다니시면서 현장에 있는 가족에게 작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드린 작품은 저는 잘 모르고 제가 가지고 있던 160점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육지에 개인이 소장한 오빠(강태석 화백) 작품이 많습니다. 제주도청 소속의 고길홍 사진가하고 김순이 선생님께서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얻은 정보를 주시면 그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오빠(강태석 화백)가 돌아가시기 두 해 전인 1973년도에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동창분들이 가톨릭 회관에선가 강태석 화백전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작가들은 작품을 팔아야 생활할 수 있으니, 여기에 계셨던 오빠 동문들이 오빠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오빠(강태석 화백)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서울 동문들이 오빠(강태석 화백)가 작업한 그림을 전부 보내주셨습니다. 당시 제가 작품 활동을 할 때거든요. 그래서 오빠(강태석 화백) 작품에 표시했습니다. 그림 끝부분에 ‘abcd’, ‘ㄱㄴㄷㄹ’, 혹은 ‘가나다라마바사’ 등으로 표시했죠. 그래서 이 표시들로 오빠(강태석 화백) 작품이 맞다, 아니다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진품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캔트지를 놓고 표시를 찍을 때 부드럽고 딱딱한 것으로 찍으면 그 굴곡이 나타나서 그 위에 채색하면 밑바닥 채색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채색해도 돌출된 부분은 질을 것이고 들어가 있는 부분은 색이 열게 됩니다. 혹시 강태석 화백의 작품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故 강태석 화백 유작품’에 실린 그림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작품이 있으실까요? (‘故 강태석 화백 유작품’ 도록을 가리키면서) 여기 있는 작품들은 우리 박물관 소장 작품입니다. (‘대화시리즈’ 작품을 가리키면서)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조카 낳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1968년도 작품이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결혼하고 낳았던 아이를 키울 때인데, 아마 그때 우리 아이를 그린 작품 같아요. 그 당시 제자들하고 아틀리에(작업장, 화실)를 운영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랑 같이 살다가 서울에서 20대 후반에 내려와서 산악회 총무를 맡아서 안홍찬씨 등 여러분과 한 팀으로 지냈는데 그때 총무를 맡았습니다. 그럼 그때 김종철 선생님하고 인연이 되신 건가요? 그래서 김종철 선생님 부인이신 김순이 선생님과과의 인연도 생기신 건가요? 김순이 선생님은 제자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울에서 내려왔고 오빠(강태석 화백)가 우리 학교 미술 선생으로 왔는데, 저한테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빠를 피해서 신성여자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당시 김택화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에 미술 선생님이로 계셨어요. 그런데 오빠(강태석 화백) 선배 되는 현승복 선생님도 미술 선생님이로 계셨는데 오빠(강태석 화백)가 “영자는 그림 못 그리게 해.”라고 하셔서.....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저는 그림도 안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사춘기 시절처럼 보냈죠. 그래도 작업하셨었나요? 결과적으론 오빠(강태석 화백)처럼 하고 싶은 분야를 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가서 방직 회사에서 염색 실험실에 있었는데, 스물한 명을 거느리고 일했습니다. 채색은 제가 잘하는 부분인 거 같아요. 선생님께서 보관 중인 강태석 화백님 자료는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쭙봐도 될까요? 가족들은 모두 일본에 있고 저만 제주도에 있습니다. 가족 중에 뉴욕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고려대학교 미술학과를 수료해서 활동하고 있는 조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빠(강태석 화백) 작품 몇 점은 다른 기관에 기증하기보다는 나중에 조카한테 넘겨줄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미술을 전공한 조카가 오빠 작품들을 재조명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은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전시에 사	
164 기증자 인터뷰				165

용할 수 있게 대여를 여러 번 해줘서 기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증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리 박물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박물관에서 기증자료 특별전시를 개최합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증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증 이후 지금으로부터 약 17~18년 전에 후배들이 시민회관에서 전시회를 가질 때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증 작품을 제공해 주셔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점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이라는 것이 박물관에 소장만 되어 있는 것보다는 계속 조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증한 이후에도 주위에서 도립미술관 등 더 좋은 소장 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지만,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잘 관리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후배들이 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기증 작품을 전시하여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증은 영구적인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능력이 돼서 갤러리를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보관하거나 제가 그 자료들을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큼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항상 감사하지요. 제가 지금 작품을 몇 점 가지고 습도를 50도로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이 방에도 오빠 작품을 열 점 정도 소장해서 에어컨 한 대와 제습기 석 대를 놓고 있는데, 전기세만 15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렵죠. 그러한 이유로 사실 기당미술관에도 오빠(강태석 화백) 작품 하나를 기증했습니다.

강창화 인터뷰 채록

기증자 | 강창화(1954년생)

인터뷰 일시 | 11월 20일 15시 30분

인터뷰 장소 | 개인 작업실
(제주시 오라일동)

박물관 관계자

어떠한 이유로 기증하시게 된 건가요?

강창화

관장님이 부탁하셔서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기증하고 후회한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 박물관 소장자료가 약 33,000점 정도 있는데 그중에 25% 정도가 기증 자료입니다. 자체 수집이나 구입한 자료도 있지만 기증 자료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해서 기증이 박물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선생님께서도 귀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서예가로 소개하면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한예총) 한국미술 협회 부이사장과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장으로 있으면서 탐라문화제를 맡아서 운영도 했습니다. 중국도 자주 다니는데 그거저게도 중국에서 중요한 행사에 초청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아주 오래전에 기증하셨는데, 기증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증한 해가 2005년도인데, 2004년도에 제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첫 개인전을 했어요. 그 전시가 조금 특이했던 점이 영문 작품을 전시했거든요. 그게 아마 국내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작품에 색을 입히는 등 새로운 작품을 했는데 이 작품들을 당시 민속자연사관장님께서 “이거를 좀 기증을 해주시면 나중에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셔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또 기증한 작품들의 특별했던 점은 제가 제주를 영문으로 썼습니다. 서예는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 것에 착안하여 영문 제주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습니다. 이 작품을 본 고려대학교 이기태 교수님께서 “서예를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나는 이 작품을 ‘주제’라고 읽었다. 서양인들도 이 작품을 보면서 ‘제주’라고 바로 읽을 수 있도록 영어를 더 연구해서 서양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서구에서는 서예를 캘리그래피(calligraphy)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에 작품을 할 때 디자인을 탈피한 회화성 있는 작품 활동을 많이 했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왜곡된 부분들을 사회성 있게 다뤄보려고 광개토대왕에 대한 작품도 해보고, 독도에 관련된 부분도 작품을 했었습니다. 평범한 작품보다도 이러한 작품들을 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이 보람되겠다 싶어서 기증을 결심하였습니다.

기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거잖아요. 그만큼 기증한 자료를 잘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바람이 클 것

	 으로 생각합니다. 기증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사회에서 기증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박물관에 제 작품을 기증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작품도 아닌데도 기관에서 기증받아서 보관하고, 전시해 주신다는 게 저한테는 참 보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증하게 된 자료는 박물관에서 역사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거고 서예를 하게 되는 분들한테는 좋은 학습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지일 거예요. 기증함으로써 후배들이나 후대에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줄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어서 기증은 할수록 좋지 않을까요? 기증이란 매우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가족, 혹은 주변 지인분들께서 기증에 대한 반대는 없으셨나요? 반대한 적은 없고 좀 아쉬워하는 분들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기증에 대한 인식이 좋아서 후원해 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박물관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기증 당시 관장님이 기증받으실 때 구두로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5년에 한 번씩 개인전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때는 기증한 작품하고 현재 제가 한 작품하고 견줄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열어주신다고 했거든요. 저도 기증한 작품들을 지금 보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했던 전시 작품과 비교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열정적으로 했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문성식 인터뷰 채록 기증자 문남준, 문수창 *인터뷰이: 문수창의 아들 문성식(1963년생) 인터뷰 일시 11월 21일 9시 30분 인터뷰 장소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 일도이동)	 박물관 관계자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선생님 부모님께서 박물관에 기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문성식 저희 아버지가 이제 문 수자 창자 되세요, 문수창. 저희 아버님이 2000년도에 돌아가시고 기증은 저희 형님인 문시병 님이 2001년도에 기증을 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증하신 자료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사실 저도 이 작품의 실물은 오늘 처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딱 하루만 있었고 바로 기증했기 때문에 실물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 작품이 찍힌 사진이 우리 집에 있는데 문 호장 할아버님이라는 애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우리 집에 진도에 있는 윤림산방의 역사 안내해설사로 일하신 허상무라는 분이 저희 과수원에서 한 1년 정도 지내다 가셨습니다. 그분이 소치 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황공망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 그분을 대치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중국에는 대치가 있으면, 한국은 소치 허련이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허련 선생님이 제주도에 추사 김정희의 어떤 제자로서, 추사 김정희 선생이 한 9년 정도 유배를 할 당시에 세 번 정도 쌀을 싣고 방문해서 추사 선생님한테 서화와 같은 것들을 배우셨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아마 제주도에 왔을 때 저희 백 민자(백민) 할아버지를 여러 번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하면 그때 한 1863년인가? 그때 쯤 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을 때, 초상화가 필요하셔서 찾아가서 “초상화를 좀 그려 달라”고 하니 허련과 허련의 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림은 아들이 그리고, 글은 소치 선생님께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어떤 계기로 우리 박물관에 기증하게 되었나요? 저희 아버님의 아버님과 아버지 형제분들은 모두 지금까지 일본에 살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만 제주도 화북에 계시는 아버지의 할아버지 댁에서 사셨습니다. 저희 집안의 이 백자 민자 할아버님이 당시에 관덕정 앞에 상당히 큰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덕에 후손들도 잘됐고, 상당한 양을 진상하니까 임금님께서 그 공로를 치하하는 과정에서 애월 쪽에 있는 고내봉과 우도 중 고내봉 쪽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어떠한 이유로 가세가 점점 안 좋아지셔서, 이 할아버님 딸이 신촌의 조씨 집안이랑 결혼했는데, 할아버님이 따님 집에 가서 사실 때 이 그림을 가지고 가셨고, 결국엔 조씨 집에서 이 그림을 보관하고 있게 되었죠. 이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조찬규 씨가 이제 1948년도 4.3사건 때 일본 동경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가게 되어서 그림을 가져가지 못했고, 나중에 그 집의 누나가 보관하고 있던 거를 저희 어머니의 고모님인 김원삼 고모님께서 이 그림을 동경까지 가져갔다고 합니다. 또 동경에는 저희 사촌 고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그 고모님과 그 고모부님들도 이분과 그림의 행방을 알게 됐습니	
168 기증자 인터뷰			169	

	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버지께서 “이거는 우리 집안의 방계 할아버지 소유의 그림 이고 우리의 자료니까, 돈이 얼마가 들든 찾아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그들을 만나고 설득해서 이 그림을 넘겨받았습니다. 당연히 대금은 치렀고요. 하지만 이 그림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려서 2000년도에 돌아가신 아버님은 이 그림 실물을 보지 못하셨고 2001년도에 한국으로 그림이 왔기 때문에 저희 형님이 박물관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증하고 나서 주위 분들 반응은 어떠했나요? 소치 선생님의 허씨 집안에서도 “그 그림은 우리 소치 선생님의 그림인데.....”라고 하시는 것도 있었고. 허상무 삼촌한테는 “삼촌 그림 그릴 때도 그림값을 당연히 드렸을 텐데, 이젠 또 그림까지 달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고 우스갯소리를 한 적도 있고요. 이 그림을 기증하신 쪽에서는 영구적으로 박물관에 기증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좌우지간 저희 아버님이 이 자료를 집에 가지고 있었을 때 그림 보존이나 도난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문화재 급의 훌륭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마음도 뿌듯하고 가문의 영광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랑거리는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공유할 수 있게 기증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증을 하신 2001년도에는 민속자연사박물관 말고도 제주대학교 박물관, 국립제주 박물관도 있었을 시기인데, 이 중 우리 박물관에 기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집이 민속자연사박물관 바로 옆입니다. 광양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거든요. 저도 광양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놀이터 같은 동네였고, 저희 아버님도 아마 가까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아버님께 듣지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문의 영광이고 뿌듯하고 했겠지만, 귀한 거라고 해서 가지고 있어 봐야 보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의 가치를 저까지는 알고 있지만 내 후손에게 넘어가게 되면 이상한 데로 가거나 고물상에 팔기라도 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기증을 선택하신 우리 아버지가 올바른 선택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박물관처럼 공식적으로 보존을 잘해줄 수 있는 곳에 가서 잘 보존되고, 그 다음에 백자 민자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들이 잘 몰랐었는데 ‘어 저분은 도대체 누굴까?’하고 알아보게 되면서 우리 집안의 선조 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이름을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박물관 전문가께서 허련 선생이나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연구해서 이 작품의 가치들을 많이 부각하게 시켜주시고, 잘 보존해 주시고 가치를 높여주신다		면 기증하신 분들도 뿌듯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가치 있는 자료를 우리 박물관에 기증해주셨는데 박물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물관의 기증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증받은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셔서 가치를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가치라고 하는 건 그 자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가치가 발현되지 않는데, 그거는 사실은 연구사의 몫과 박물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존도 잘하셔야겠지만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기증 문화가 발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70 기증자 인터뷰			171	

윤경노 인터뷰 채록 기증자 윤경노(1922년생) 인터뷰 일시 11월 16일 11시 인터뷰 장소 자택 (서귀포시 강정동)	박물관 관계자 박물관이 많은데 왜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기증하신 건가요? 윤경노 박물관 직원이 찾아와서 기증하게 됐죠. 박용범이었지 아마? 나는 기증해달라고 해서 기증한 거는 하나도 없고, 또 사실 나한테 기증해달라고 할 일도 없었죠.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나한테 기증해달라고 하겠어요? 사실 이 자료들은 옛날 우리 조상들 거죠.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모두 다 일본으로, 북한으로 가셨어요. 나한테 형제가 넷 있는데, 모두 나랑 어머니가 달라요. 그 네 명은 같은 어머니고. 그런데 네 분 모두 다 일본으로, 북한으로 가서 남은 자료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하겠어요. 관리도 안 되고 처리도 안 되고 해서 아들을 줄까, 딸을 줄까 하다가 박물관에 연락했죠. 내가 연락하니 큰 이 층짜리 화물차가 와서 통게, 그릇, 궤, 옷, 서류, 서책 같은 것을 실어서 갔죠. 전부 옛날 선생님 아버님 때부터 입었던 옷이랑 생활용품으로 사용했던 것들이었죠? 아버지 결혼할 때 입으셨던 옷도 있고 형님 결혼할 때 사용했던 옷도 있죠. 작은아버지 것도 있고 할아버지 옛날 돌아가실 때 입으셨던 옷도 있고요. 옷들을 입지 않으면 그냥 놔둬 버리니 함께 기증했죠. 기증해주신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박물관에서 이러한 기증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여 더욱 많은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수 인터뷰 채록 기증자 이희수(1951년생) 인터뷰 일시 11월 17일 11시 인터뷰 장소 천연기념물센터 (대전 서구 만년동)	박물관 관계자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내년에 개관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개관 당시에 우리 박물관 입장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자료 중에 하나가 故 고상돈 선생님 자료입니다. 이렇게 사모님과의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박물관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수 저는 처음에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 우리 고상돈씨 자료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자료 기증을 하면 고상돈 전시관처럼 상설 전시실을 마련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증을 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해서 뭐합니까? 근데 저는 제주도에 산악박물관이 생기고 나서 그곳으로 자료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안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전시라도 좀 해주든지.....그냥 수장고에만 자료를 놔두면 우리 입장에서는 섭섭하죠. 후회까지 됩니다. 산악박물관에 고상돈 자료 전시를 보시지 않았을까요? 현재 전시되고 있는 자료들요. 제가 사는 곳하고 거리가 멀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그래도 오히려 선생님께서 제주도청이나 우리 박물관에 기증자로서, 돌아가신 고상돈 선생님의 유족으로서 솔직한 감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기록이 되기도 하고요.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처음에 기증을 하시게 된 계기가 기억나실까요? 기증한지 오래됐죠. 1981년 기증했으니까 40년이 넘었죠? 그때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고상돈 씨의 꿈과 열정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야말로 젊은 나이에 했기 때문에 욕심도 많았고 하지만 ‘기증을 함으로써 그 분의 꿈과 열정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기증할 때 제주산악회장 양하선씨가 중재 역할을 해주셨어요. 또 저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어떠한 큰 단체에서 유품의 지속적인 보관과 제주도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계기와 동기 부여가 될 줄 알았어요. 아무튼 양하선씨 중간 역할이 컸고 자료도 많아서 개인적으로 소장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양하선씨 의견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와 기증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했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민속자연사박물관하면 산악인과 관련된 것보다 제주도의 전통적인 문화를 더 많이 생각을 할 건데 고상돈씨가 얼마나 부각이 될까.’하는 생각이 들었나봐요. 또 그 동안에는 박물관의 김완병 박사님이 행사 때마다 사진전을 지원해 주신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172 기증자 인터뷰			173

	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는 점점 잊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은 모 든 것이 퇴색되고 잊혀져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유족의 입장에서는 박물관이 고상 돈씨 기증자료에 대한 항시, 상시 전시장이 되고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가 되 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고상돈 선생님 자료도 다시 보게 되고 옛날 평전 책도 알게 되었 어요. 과거의 인기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 이상으로 정말 대단했더라 고요. 잠시였죠. 그때 어땠었나요? 그때 당시 인지도가 엄청 높았을 것 같은데요. 그야 물론 세계 여덟 번째의 에베레스트 등반 성과가 국민들한테는 ‘희망과 꿈이 있다면 실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 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그리 길 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가는 부분이 조금 아쉽죠. 기증해주신 자료들 중에 고상돈 선생님 정신이나 분위기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유 품이라면 무엇을 뽑을 수 있을까요? 정상에 올라섰을 때 태극기를 들고 “여기가 정상이다.”라는 상황과 관련된 유품이 조금 남 아있고요. 유품으로 옷은 많지가 않아요. 옷이 많지 않아서 전시했을 때 그 전시 조명에 퇴 색될까봐 염려스럽죠. 그리고 등산복 같은 옷이 아쉽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 쉽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기증 하실 당시가 고상돈 선생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기였는데, 주변 반응은 어땠 는지 기억하세요? 박물관이라는 자체에 상징성이 있잖아요.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 박물관에서 보관과 전시 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좋했다는 반응이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박물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증자료 특별전시로 박물관 개관 40 주년을 맞이하여 기증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전시를 보는 분들에게 기증자로서 기증에 대한 생각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어제 김 박사(김완병 학예연구사)님이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기증의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기증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선물이나 기념으로 물품을 거져주는 것 으로 되어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것이었던 것을 거져주는 것이라 생각 하지는 않고 우리 시대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것을 당연히 후배 세대들한테 돌려준다는 생 각을 했습니다. 산악인 고상돈 또한 누군가의 기증에 작은 불씨가 되어서 그 안에서 잠들 어있던 열정이 타오르게 된 것이 시작이었을 테니까요. 내가 받은 무언가를 마땅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놓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를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기증 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기증해 주신 故 고상돈 선생님 자료로 박물관 개관 연도인 1984년에 박물 관 첫 특별전시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는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유물일 건 데 이렇게 무상으로 기증하여 더욱 많은 분에게 공유될 수 있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증한 자료를 전시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활용하도록 박물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74 기증자 인터뷰			175	

진상우
인터뷰 채록

기증자 | 진상우(1964년생)

인터뷰 일시 | 11월 16일 15시 30분

인터뷰 장소 | 개인병원
(제주시 삼도이동)

박물관 관계자

우리 박물관에서 2020년도에 아버님인 진태준 원장님을 뵈러 갔었습니다. 3층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한의사로서 의료 행위도 하시고 관련 자료도 굉장히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아버님에 대해서 선생님이 느꼈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상우

아버님께서 1925년생인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울한 시대에 출생하시고 6·25 전쟁을 겪으시면서 일종의 자수성가하신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극히 존경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버님이 평생 모으셨던 자료를 이렇게 기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기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모아 놓으신 유품들이 가짓수도 상당히 많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버님께서 사이버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자신 혼자 갖고 있으면 그냥 유품일 뿐이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조금 더 폭 넓게 그 당시의 시대상이나 한의학의 모습들, 그런 것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우연한 기회에 박물관하고 연결이 돼서 기증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기증하신 자료가 매우 많은데, 그 자료 중에서 유독 생각이 나거나 애착이 가는 자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애착이야 거의 다 가죠. 지금은 사용을 거의 안 하지만 이제까지 사용했던 옛날 약장이라든지 약을 만들던 기구, 예전에 저도 써보지도 못했던 화폐, 그런 것도 있었고 기념주화도 있어요. 여러 나라의 우표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서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번 우리 박물관에서 기증자료 특별전을 개최하는데 아버님 자료 중 대표 자료 몇 개 정도를 추려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전에 오시는 관람객들이 어떤 자료를 관심 있게 바라봤으면 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까지 살아왔던 생애에서 한의학에 기여하신 자료들이 그런 겁니다. 제주도에 서 사라져가는 민간요법이라든지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의사들이나 한 의사들이 없던 시절에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났던 치료법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한 자료들이 조금 더 부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기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모아 온 것으로 큰 의미가 있었을 거 같은데, 이러한 자료를 다른 기관에 기증하게 되면 서운한 감정이라든지 후회는 없으셨나요?

시원섭섭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증이 좋은 의미의, 선의의 리사이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각종 물품이 재활용되어서 다시 좋은 물건으로 재탄생되듯이 제가 기증을 함으로써 저 혼자만 간직할 수 있는 것 보다 여러 도민이나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기증이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무언가를 갖지 못하는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재산의 기부도 있고 자료의 기증도 있고 혈액도 기증하는데, 기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증이라는 것은 선순환 되는 건데, 잘 알려지지는 않지만 사후 시신 기증, 장기 기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내 육신, 장기는 건강하지만 사람 목숨이 유한한 것이기에 사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증이 된다면 그것 또한 값지고 보람된 일이지 않을까요? 저는 기증을 그렇게 선의에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박물관에 기증이 되었고 전시도 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기증하신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라는 게 특별히 없고요.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 알아서 관리, 전시해 주시고 보존도 해주실 건데, 특별히 바라는 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인자
인터뷰 채록

기증자 | 진인자(1935년생)

인터뷰 일시 | 11월 16일 14시

인터뷰 장소 | 자택
(제주시 삼도일동)

박물관 관계자

김찬흠 선생님은 제주도 향토사학자이시고 평생 그 일만 하셨던 분인데요. 갖고 계시는 자료도 매우 많으실 텐데요.

진인자

여기에 있었던 책들은 전부 도서관에서 가져갔어요.

그렇게 많은 자료를 박물관이든 어디든 기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기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우리 집 양반이 책들은 다 도서관에 보냈습니다. 그때 도서관장으로 계셨던 선생님
이 오셔서 책자랑 전부 가져갔어요.

우리 집 양반 동창하고 사귀고, 그 장모가 우리 3년 선배인 박찬식 관장님하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이였어요. 우리 집 양반 아플 때 그 박찬식 관장님이 한 번 와서 봤으면 해도 우리 집 양반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관장님을 못 오시게 하다가, 우리 집 양반이 돌아가신 다음에 도서는 모두 도서관에 가져갔고, 우리 작은 아들하고 손녀한테 연락해서 기증 의사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자료를 모두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기증을 하니까 혹시나 서운하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서운한 감정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생전에 우리 집 양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찬흠 선생님께서 평생 모아온 자료들을 박물관에 기증하셨고, 그러한 기증이 본보
기가 되어서 다른 분들에게도 기증에 대한 좋은 인식에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가보니 기증한 사람 명패를 한쪽에 모셔놨더라고요. 우리가 그 자료들을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 걸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박물관에 기증하면 박물관이 존재할 때까지는 그 자료가 남아 있을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때문이라도 기증은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 양반이 최정숙 여사님 것도 교육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소중한 자료가 영원히 남아있을 걸 생각해야지 자손에게 남겨서 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될 수 있게 집에 두지 말고 꼭 기증해야 합니다.

감사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우리 박물관에서도 진인자 선생님께서 기증해 주신 소중한 자료를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 금년 12월에 개최 예정인 기증자료 특별전시를 총 7개의 공간으로 기획하였는데, ‘지식인의 서재’ 공간에 김찬홍 선생님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기증에 대한 선생님의 마음을 주위 분들에게도 전파하셔서 소중한 자료를 박물관으로 전달하여 문화를 보전할 수 있게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료들을 후세에 잘 남겨야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앞서간다 해도 옛날 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민족자연사박물관에 비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을 편하게 해주
길 바랍니다..

기증한 우리 집 양반 자료를 박물관에서 영원히 남도록 잘해주시고요. 제가 저승 가도 우리 집 양반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당신 자료들을 잘해놔서 보존하고 있다고요.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 김찬흠 선생이 오로지 학자로서 올곧게 지내신 거 같네요.

7개의 공간 n개의 삶

전 시 명 | 개관 40주년 기념 기증자료 특별전 『7개의 공간 n개의 삶』

전시기간 | 2023. 12. 18.(월) ~ 2024. 4. 14.(일)

전시장소 | 민속자연사박물관 수놓음관 특별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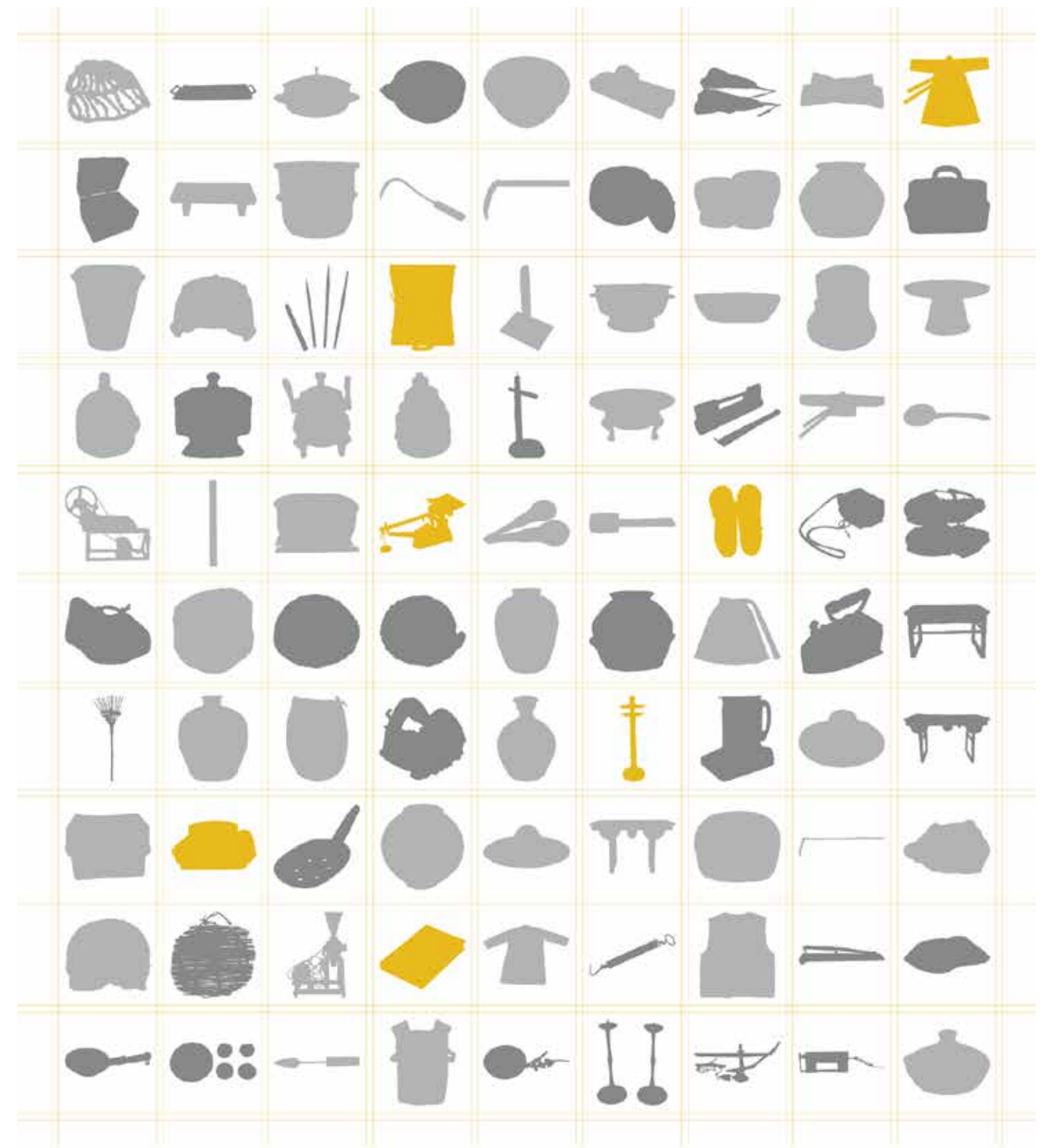
전시서문

박물관의 근간인 유물은 크게 기증, 구입, 자체 수집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축적됩니다.

이 중 기증은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기증을 통해 각처에서 삶의 보편성을 띠는 유물들이 모여들며, 자료 가치가 뛰어난 유물이 대가 없이 공공에 귀속되기도 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기증자료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총소장자료 39,397점 중 26.3%인 11,098점이 기증으로 수집되었으며, 특히 민속 분야의 경우 기증자료의 비중이 전체의 56%에 달합니다.

제151회 특별전 ‘7개의 공간, n개의 삶’은 박물관 개관 40주년(2024)을 기념하는 기증 자료 전시입니다. 천명에 가까운 기증자분들을 모두 담을 수는 없지만, 수많은 자료의 공통 분모를 찾아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엮어내려 했습니다. 모든 기증자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이 전시가 다채로운 삶에 접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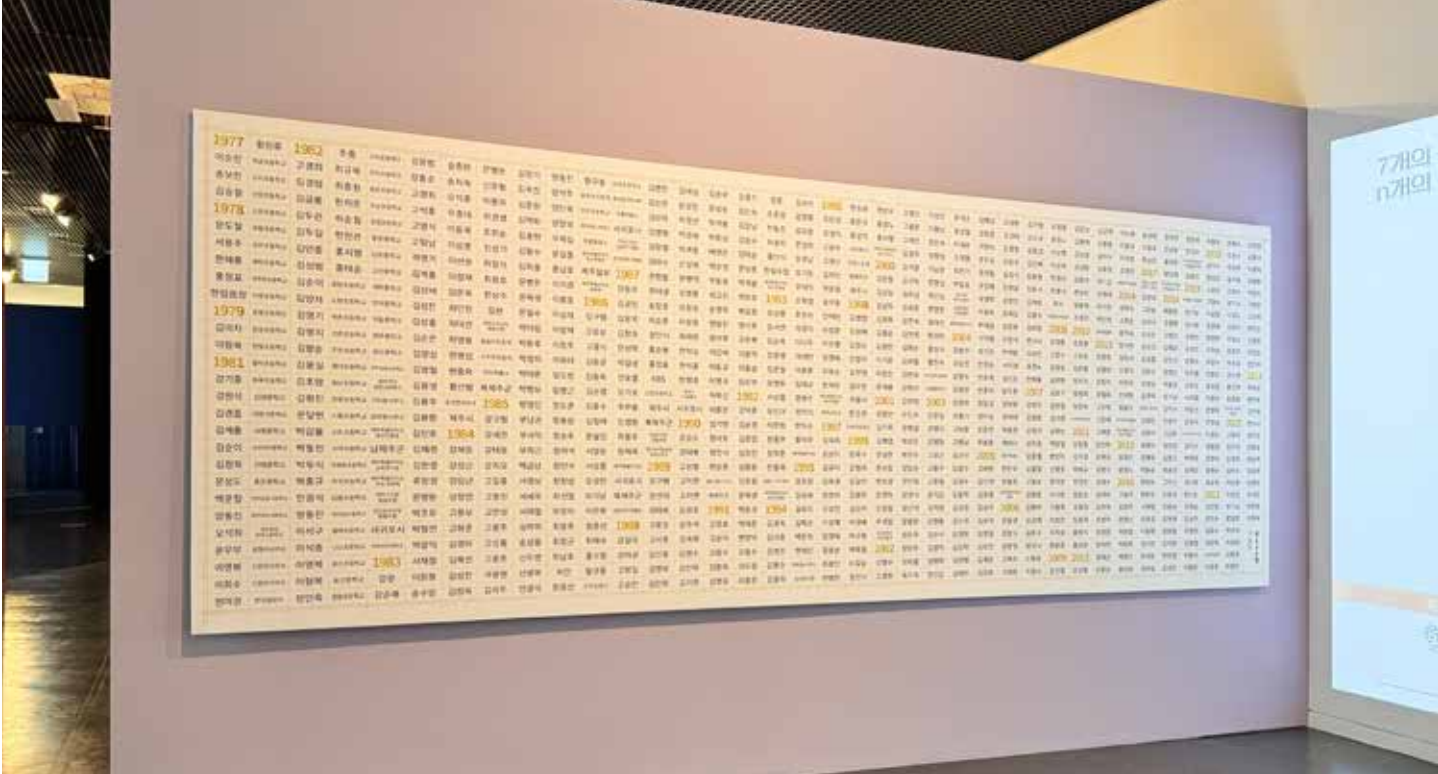


7개의 공간
n개의 삶

개관 40주년 기념 기증자료 특별전

2023. 12. 18. 월 — 2024. 4. 14. 일

수놓음관 특별전시실



서예가의 산방

제주에서는 근현대에 뛰어난 서예가들이 다수 배출되었다. 대표적인 작가로 소암(素菴) 현중화, 해정(海丁) 박태준, 청탄(淸灘) 김광추를 꼽을 수 있다. 현중화와 박태준은 모두 국전에 입선하여 전시를 개최하거나 제자를 양성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현중화는 한국 근대 서예계에 큰 족적을 남긴 작가가 되었다. 반면 김광추는 직업적 작가로서 나서지는 않았지만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다.

서예가들은 다양한 예술 분야에 조예가 깊었고, 이들의 공간은 서예 작품, 도구와 함께 다양한 예술품으로 채워졌다. 시서화(詩書畵)가 긴밀한 전통 때문에 전각·서화 등이 자리를 차지했고, 서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도자기도 한편을 장식하였다.

창작공간을 특별히 이름짓기도 했는데, 산속의 거처를 뜻하는 '산방(山房)'이 끝에 붙는 경우가 많았다. 예로 현중화는 자신의 집을 '조범산방(眺帆山房)'이라 칭했다.



지식인의 서재

근·현대 제주의 지식인들은 개발과 성장으로 사라져가거나, 중앙의 시선에 담기지 않는 제주의 모습과 마주했다. 이들은 곳곳을 다니며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고, 기존 문헌에 없던 풍부한 자료들을 축적했다. 예로, 양홍식과 오태용은 1950년대에 답사를 통해 민속·문화 혹은 자연 분야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정리하였고, 『제주향토기』를 발간했다.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료를 발굴하기도 했다. 사진가이자 민속학자인 홍정표는 지역에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는데, 이 중 박물관에 기증한 『목장신정절목(牧場新定節目)』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한편 연구 과정에서 목소리 없는 것들이 목소리를 얻었다. 인물사를 연구한 김찬흠은 이전 역사에서 소외됐던 여성, 서민, 사회주의계 인물을 조명했고, 마을 조사를 통해 4·3 사건의 피해 증언을 정리한 오성찬은 4·3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던 인식에 균열을 만들었다.

이처럼 제주의 지식인들이 오랫동안 축적한 자료들은 제주사 연구의 기초자료이자 제주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밑바탕이 되었다.



화가의 작업실

화가는 시대에 가로막혀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작업실은 그러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투영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작가로 강태석을 들 수 있다. 그는 제도권 예술에 순응할 수 없어 배낭과 화구만 둘러메고 늘 어디론가 떠났다. 구상 화화가 주류이던 시절에, 강태석은 두메산골이나 산사 같은 곳에서 실험적인 비구상 작품을 그렸다.

그보다 후에 추상미술을 추구했던 관점 동인은 미술교육과가 신설된 대학을 발판으로 작업을 펼쳤다. 이들은 강단의 구상주의와 부딪으며 그와는 다른 목소리를 그림으로 풀어냈다.

이중의 벽과 마주한 이들도 있었다. 분단된 고국을 둔 재일 화가들은 식민 지배국이었던 나라의 한복판에서 붓을 들었다. 늘 일깨워지는 경계인으로 서의 감각은 한국의 정세, 재일동포 문제 등에 천착한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었다.



삶의 거리

제주의 전통가옥을 지칭할 때 '거리'라는 말을 쓴다. 예컨대 집이 여러 채로 구성될 경우 중심이 되는 가옥을 안거리, 이와 따로 떨어진 가옥을 밖거리라고 했다.

이곳은 제주에서 산업화 이전까지 대부분의 사람이 거처하는 보편적인 삶의 공간이었다. 각 거리는 기본적으로 상방(마루), 정지(부엌), 고팡(창고), 구들(방)로 짜였으며, 공간의 성격에 맞는 생활 도구로 채워졌다.

상방

상방은 마루를 일컬으며, 가옥에서 유일하게 외부로 열려 있는 공간이다. 모자, 구덕 등을 주로 이곳에 보관했다.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말총으로 탕건, 망건 등의 총모자를 짜거나 대나무로 갓의 테두리 부분인 양태를 엮는 작업 등이 상방에서 이루어졌다.



구들

제주어로 방을 ‘구들’이라고 한다. 구들은 바닥 난방을 하는 온돌방으로, 외벽에 불을 때는 굴목이 있었다. 구들 안 쪽에는 굴목 위로 벽장을 만들어 궤를 보관했다. 구들은 상방과 구분되는 사적인 공간으로, 이곳에서는 휴식을 취하거나 바느질 등의 가사노동을 하기도 했다. 방이 여러 개인 경우 고팡과 붙어있는 방을 큰구들이라 하고 이외에는 작은(작은) 구들이라 불렀다.



고팡

고팡은 곡식 등을 보관하는 창고이다. 고팡은 가장이 쓰는 큰구들 옆에 위치했는데, 이는 식량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심방의 경우 선반이나 나무 궤를 이용해 이곳에 당주라는 공간을 설치하고 무조신(巫祖神)이 깃들었다고 여기는 멩두를 보관하기도 했다.



물팡

물 길는 허벅을 올려두는 곳을 물팡이라고 한다. 정지 안에 식수를 저장하는 물항이 있었기 때문에 물팡은 정지 바깥에 배치되었다.



정지

정지는 '부엌'을 말한다. 술을 걸어 불을 사용하는 술덕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했는데, 난방 기능이 함께 있는 육지의 아궁이와 달리 술덕에서는 취사만 이루어졌다. 이외에는 조리 준비, 설거지 등의 작업을 위한 봉당 공간이 있었다. 봉당은 취사 공간과 구분하기 위해 바닥에 높이 차이를 두었고, 이곳에 식기를 보관하는 살레(찬장)를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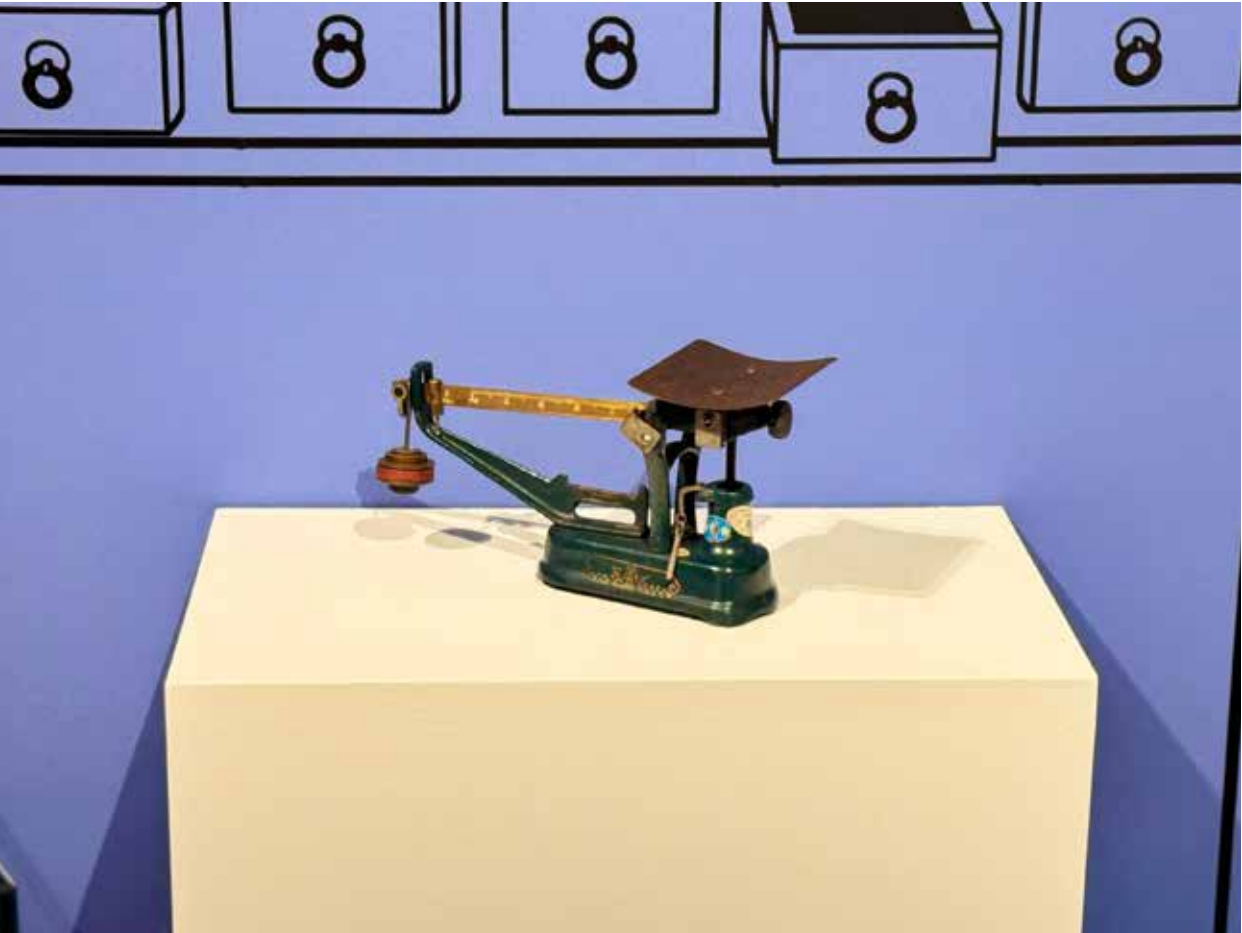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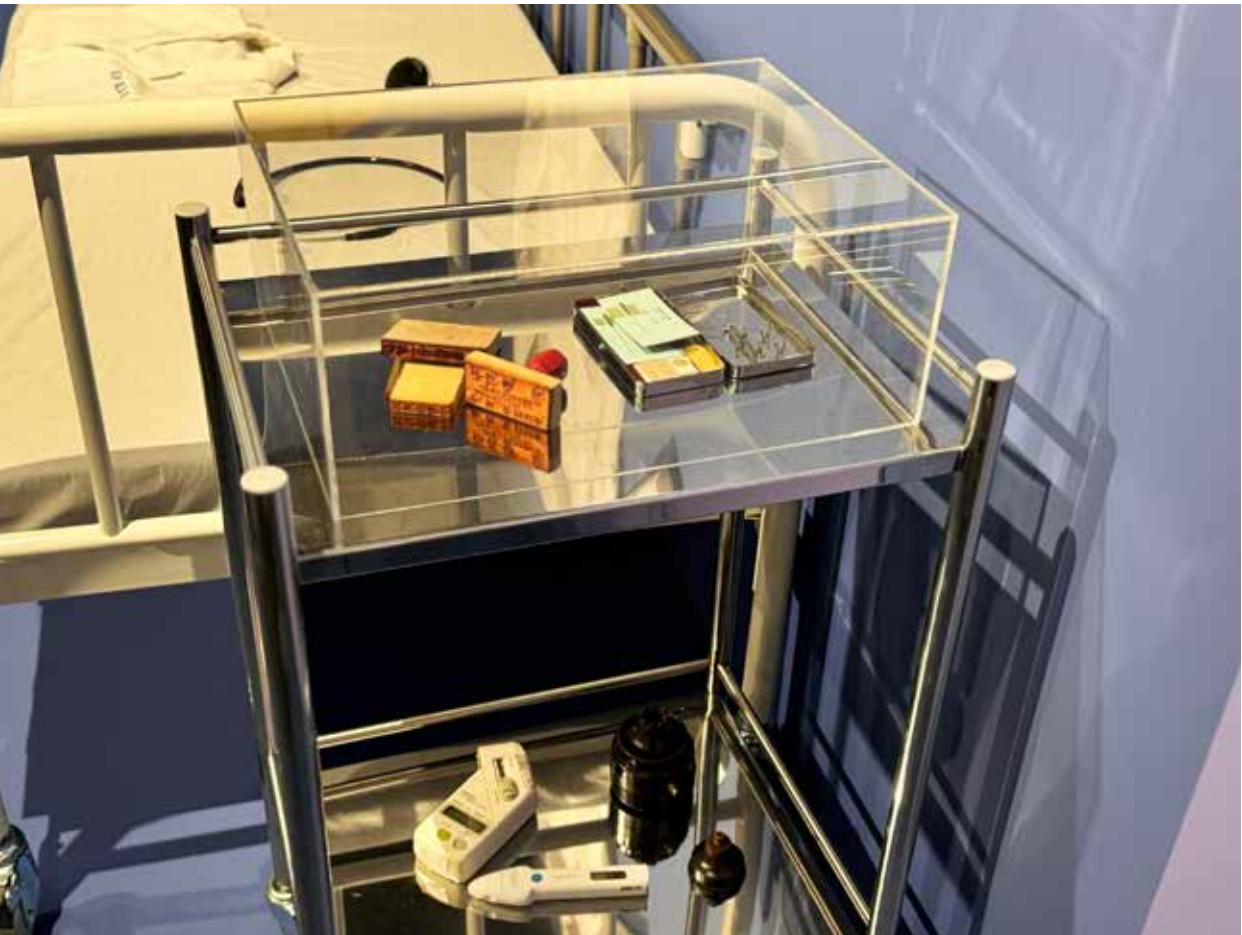
빈자의 의원

貧者

진태준(秦泰俊, 1925~2015)은 의료 봉사로 제주 지역사회에 헌신한 한의사이다. 그는 개업 초기에 정부의 무의촌(無醫村) 해소 정책으로 인해 공의(公醫)로 배치되었고, 이때 가난한 환자를 마주한 경험이 의료 봉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그는 의사로 일하는 내내 봉사를 이어갔으며, 2009년에는 오랜 기여를 인정받아 적십자 봉사장 금상을 수상했다. 1970년대부터는 의학도를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운영했는데, 이는 불의의 사고로 떠난 두 아들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그는 생전에 1960년대부터 사용한 한의학 도구, 근현대 생활사 자료 등을 모아왔다. 2015년 타계 후 셋째 아들 진상우가 한의원을 물려받았고, 관련 자료를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탐험가의 산

산악인 고상돈(高相敦, 1948~1979)은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제주 출신으로 청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본격적으로 등반을 시작했다.

당시 한국 등반대들은 히말라야에서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산악연맹과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에베레스트 등반을 추진하였고, 소식을 접한 고상돈은 청운의 꿈을 품게 된다. 그는 3년여의 전국적인 선발 과정을 거쳐 등반대에 합류했고, 긴 여정 끝에 1977년 9월 15일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다.

귀국 직후 고상돈은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 체육훈장 청룡장이 수여되었으며, 우표·담배 등 각종 기념물이 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2년여 뒤 그는 북미 최고봉인 매킨리 등정 후 하산 도중에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후 유품 674점이 아내 이희수를 통해 1981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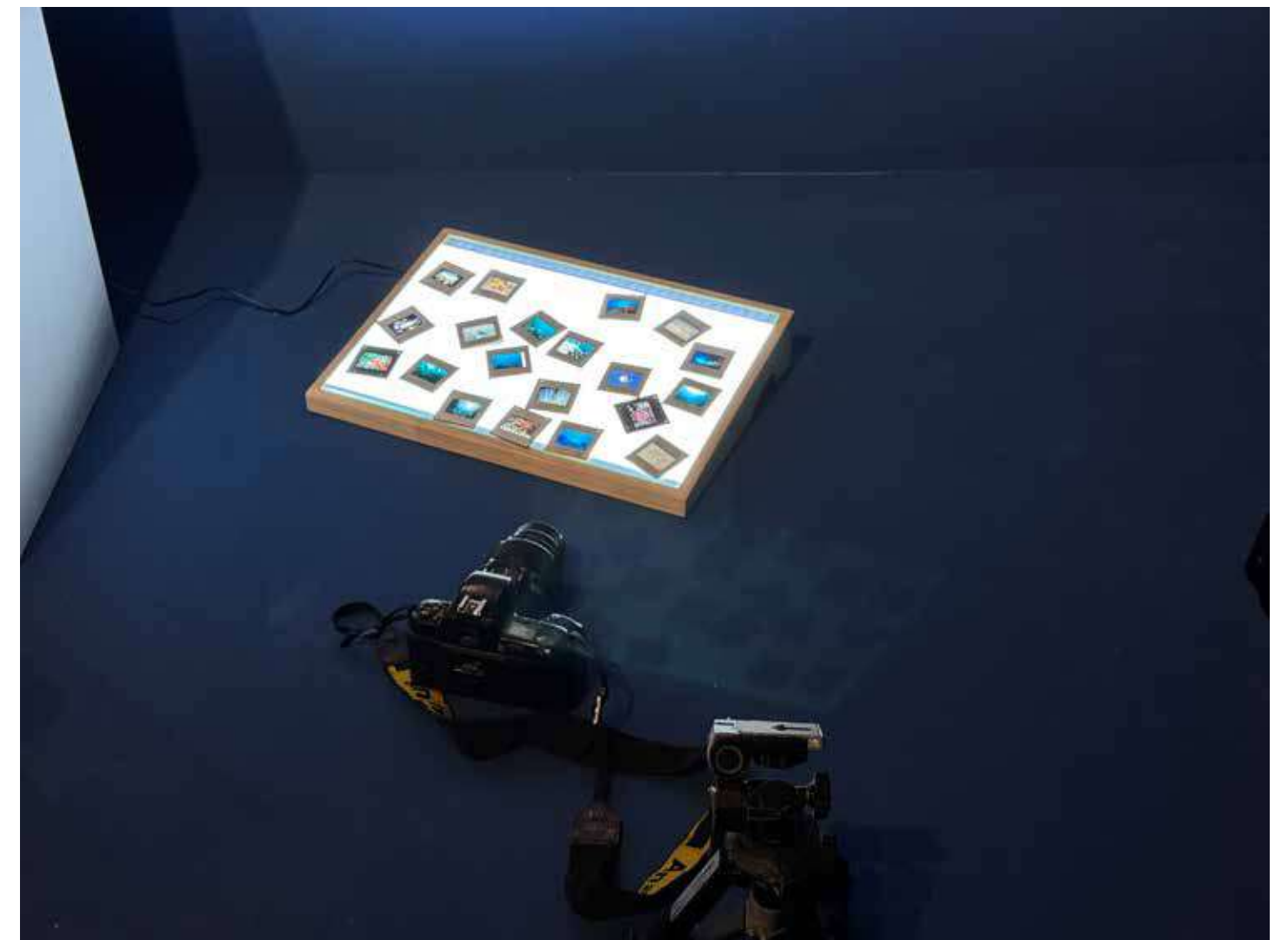


사진가의 현상실

박물관의 유물들은 쓰임 혹은 생명을 다해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다. 유물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혹은 존재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사진의 도움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슬라이드 필름이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슬라이드 필름은 암실에서 이미지를 현상하고, 인화 과정까지 거쳐야 얻을 수 있었기에 현재의 사진보다 큰 무게감을 지녔다.

박물관에 기증된 사진 자료 중 상당수는 슬라이드 필름이다. 이 사진들은 제주에 서식하는 생물의 생태나 과거 제주의 모습을 전하며 유물들과 함께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굴수소조 橘叟小照

굴수소조(橘叟小照)는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小痴 許鍊)이 시문을 쓰고 그의 아들 미산 허은(米山 許濂)이 그림을 그려 완성한 작품입니다. 초상화의 주인은 굴수 문백민(橘叟 文百敏, 1810~1872)으로, 제주의 부유한 명망가였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까지는 조선 후기 제주인의 모습을 그린 유일한 인물화입니다. 일본으로 넘어갔던 작품을 남평문씨 문종이 일화 100만엔에 사들여 박물관에 기증하였고, 2013년 10월 17일에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증은 귀중한 자료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무엇보다 값진 것은 대가 없이 지닌 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 점 한 점 모인 자료가 박물관을 든든히 뒷받침하였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의 40년을 쌓아올리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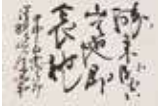
박물관의 오늘을 만들어 주신 기증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부족하지만 기증자료를 통해 박물관의 역사와 다양한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전시를 마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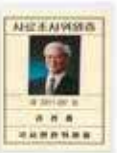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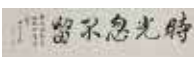
도판목록

	001 정당벌립 草笠 Stem-woven hat	20세기 땡땡이당굴 지름 52.0, 높이 13.9 고고민속 2631 한해룡 기증 1978
	003 되약세기 計量瓢 Doeyaksegi (Bowl used to measure a given amount of grains)	20세기 나무 높이 5.0, 폭 13.3, 깊이 19.6 고고민속 1733 서귀여자중학교 기증 1981
	005 태극기 太極旗 the national flag of Korea	20세기 천 가로 45.0, 세로 30.5 기타산악 308 이희수 기증 1981
	007 모직남방 毛織上衣 Wool shirt	20세기 천 길이 75.9, 폭 49.3 기타산악 6 이희수 기증 1981
	009 고글 护目镜 Goggles	20세기 철, 유리 높이 24.9, 폭 12.5, 깊이 31.5 기타산악 300 이희수 기증 1981
	011 가리모지게배낭 背囊 External frame backpack	20세기 합성재질 (최대)높이 82.0, 폭 60.0, 깊이 38.0 기타산악 74 이희수 기증 1981
	013 우모파카(상·하의) 羽絨衣(外套、褲子) Goose down jacket (top & bottom)	20세기 합성재질 (상)의화장 157.0, 등길이 86.0 (하)의폭 48.0, 길이 101.5 기타산악 1 이희수 기증 1981
	015 남죽 粥棍 Namjuk (Stirrer used for cooking rice porridge)	20세기 나무 길이 54.9, 가로 5.4 고고민속 1773 농업고등학교 기증 1981
	017 연적 硯滴 Water Dropper	20세기 돌 (바닥)지름 6.0 (최대)지름 8.6, 높이 5.8 고고민속 2299 충문중학교 기증 1982
	002 다리미 熨斗 Pressing iron	20세기 철 길이 36.6, 지름 19.2, 높이 8.4 고고민속 1732 서귀여자중학교 기증 1981
	004 윤디 烙鐵熨斗 Soldering iron	20세기 철 길이 25.0, 높이 3.1 고고민속 1722 영락리 기증 1981
	006 한국일보기 韓國日報旗 Flag of the Hankook Ilbo newspaper	20세기 천 가로 44.0, 세로 31.0 기타산악 310 이희수 기증 1981
	008 에베레스트 정상돌 頂上石 Stone brought from the top of the Himalayas	20세기 암석 높이 10.9, 폭 16.3, 깊이 12.0 기타산악 312 이희수 기증 1981
	010 산소마스크 氧氣罩 Oxygen mask	20세기 복합재질 높이 21.0, 폭 20.0, 깊이 28.5 기타산악 298 이희수 기증 1981
	012 등산화 登山靴 Hiking boots	20세기 복합재질 높이 24.9, 폭 12.5, 깊이 31.5 기타산악 56 이희수 기증 1981
	014 빗창 匕鋸 Bitchang (Sword used by haenyeo to remove abalone from rocks)	20세기 철 길이 25.5 고고민속 1693 한림초등학교 기증 1981
	016 월하전진도 月下前進圖 Moving Forward under the Moonlight	김영기 작 1975 한지에 수묵 담채 가로 102.4, 세로 126.1 고고민속 3087 김영기 기증 1981
	018 연갑 硯匣 Stationery box	20세기 나무 높이 27.5, 폭 32.6, 깊이 21.8 고고민속 2132 조천읍 기증 1982
	019 대패랭이 大竹笠 Bamboo hat	20세기 대나무 지름 37.0, 높이 12.4 고고민속 2163 조천중학교 기증 1982
	021 고래상어 Whale Shark <i>Rhincodon typus</i>	현생 박제표본 전장 600.0 동물어류 114 김용실 기증 1982 해양보호생물, CITES II, IUCN 위기종(EN)
	023 문어통발 章鱼籠 Octopus Net Trap (Trap to catch octopus using their habit of hiding in cracks)	20세기 철, 그물 길이 61.7 고고민속 2392 박감울 기증 1982
	025 사구 砂丘 Sand Dune	현생 암석 높이175.0, 폭 150.0, 깊이 37.0 지질암석 92 현천관 기증 1982
	027 대바지 小水罐 Daebaji (Small earthenware jug for young girls to practice to draw and carry water)	20세기 흙 높이 29.0, 입지름 9.2, 몸통지름 28.0 고고민속 2697 제주도 관리전환 1983
	029 물범 Spotted Seal (Large Seal) <i>Phoca largha</i>	현생 박제표본 전장 120.0 동물포유류 109 김한경 기증 1983 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IUCN 관심대상종(LC)
	031 푸른화실 藍色畫室 Blue Atelier	강광 작 1983 캔버스에 유화 가로 98.0, 세로 131.0 고고민속 3150 강광 기증 1983
	033 상여 喪輿 Sangyeo (Bier)	1763 나무, 천 높이 86.3, 폭 240.6, 깊이 119.5 고고민속 3511 이화태 기증 1985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035 백자철화난초문호 白磁鐵畫蘭草文壺 White Porcelain Jar with Orchid Design in Underglaze Iron	황규동 작 연대미상 자기에 산화철 높이 19.2, 지름 19.8, 바닥지름 9.0 고고민속 4015 황규동 기증 1986
	020 테왁 망사리 浮球和网兜 Tewak Mangsari (Buoy with net used by haenyeo to collect seafood)	20세기 합성재질 (박)지름 36.0 (에웁)지름 59.0 고고민속 2044 북제주군 기증 1982
	022 멧돼지 Wild Boar <i>Sus scrofa coreanus</i>	현생 박제표본 전장 172.2 동물포유류 20 최정원 기증 1982
	024 문어단지 章鱼坛子 Octopus Jar Trap (Trap to catch octopus using their habit of hiding in cracks)	20세기 흙 높이 26.7, 지름 19.4 고고민속 2381 박감울 기증 1982
	026 목선대장군 木仙大將軍 Mokseondaejanggun (Stone guardian post with a club in hands)	미상 암석 높이 130.0, 폭 46.5, 깊이 30.5 고고민속 2639 표선면 기증 1983
	028 돌묵상어 Basking Shark <i>Cetorhinus maximus</i>	현생 박제표본 전장 753.0 동물어류 285 고일남 기증 1983 IUCN 위기종(EN)
	030 긴꼬리딱새 Black Paradise Flycatcher <i>Terpsiphone atrocaudata</i>	현생 박제표본 전장 39.2 동물조류 451 강용범 기증 1983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032 십곡병 十曲屏 Ten-pannel Folding Screen	현중화 작 1983 한지에 먹 (전체)가로 452.0, 세로 200.0 (10폭) 고고민속 3162 현중화 기증 1983
	034 록금강경 錄金剛經 Commentaries on the Diamond Sutra	안광석 작 20세기 한지에 먹 가로 69.0, 세로 135.0 고고민속 3524 안광석 기증 1985
	036 물개 Northern Fur Seal <i>Callorhinus ursinus</i>	현생 박제표본 전장 100.0 동물포유류 107 김종수 기증 1986 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IUCN 취약종(VU)

	037	대왕귀가오리 Giant Oceanic Manta Ray <i>Mobula birostris</i>	현생 박제표본 전장 280.0, 너비 430.0 동물어류 392 김공민 기증 1987 IUCN 위기종(EN)		038	목장신정절목 牧場新定節目 Enforcement ordinance on pasture management	은파 심낙수 작 1794 한지 가로 25.5, 세로 34.5 고고민속 4554 홍정표 기증 198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055	골걸이 帽架 Hat form holder	20세기 나무 높이 36.3, (바닥)가로 18.5, 세로 24.6 고고민속 6209 김유의 기증 1995		056	대화 시리즈 對話系列 Dialogue Series	강태석 작 1968 종이, 먹, 펜 가로 27.0, 세로 19.5 고고민속 12574 강영익 기증 1996				
	039	단지 壇子 Jar	20세기 흙 높이 29.0, 입지름 18.0, 지름 23.6 고고민속 4831 박계봉 기증 1989		040	1953년 제주 풍물 사진 필름 1953年濟州景物照片底片 Photographs with views of Jeju Island in 1953	작가미상 1950년대 사진필름 아카이브 자료 토마스 F. 콘웨이 기증 1989		042	목란도 墨蘭圖 Painting of Orchids	김응원 작 20세기 한지에 먹 가로 35.0, 세로 135.0 고고민속 4921 김영수 기증 1990		059	상 像 Image	강태석 작 1965 종이에 유채 가로 27.0, 세로 18.2 고고민속 6550 강영익 기증 1996		060	제목 미상 未詳 Being unknown	강태석 작 연대미상 캔버스에 유채 가로 40.5, 세로 31.3 고고민속 6430 강영익 기증 1996
	041	조광 朝光 Morning Sunlight	송영욱 작 1989 캔버스에 유화 가로 50.0, 세로 40.0 고고민속 4951 송영욱 기증 1990		044	노송 露松 Wild Pine Tree	오동수 작 연대미상 한지에 먹 가로 137.0, 세로 88.0 고고민속 5485 오동수 기증 1992		061	화방도구 書室工具 Art supplies	20세기 나무 높이 7.7, 폭 38.9, 깊이 31.3 고고민속 6666 강영익 기증 1996		062	김종철에게 보낸 편지 寄給金鍾喆的信 Letter to Kim Jong-chul	강태석 저 1974 양지 (첫째장)가로 19.1, 세로 18.3 (두번째장)가로 19.1, 세로 18.2 아카이브 자료 김순이 기증 1997				
	045	빙철판 餅糕鐵板 Bingchulpan (Steel plate for cooking Bingtteok, Jeju traditional food)	20세기 철 높이 4.5, 폭 45.0, 깊이 30.0 고고민속 5382 김종업 기증 1992		046	솔개 Black Kite <i>Milvus migrans</i>	현생 박제표본 전장 65.2 동물조류 767 진동진 기증 1992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063	병훈에게 보낸 편지 寄給炳勳的信 Letter to Byung-hoon	강태석 저 1975 양지 가로 18.6, 세로 26.1 아카이브 자료 김순이 기증 1997		064	김종철에게 보낸 편지 寄給金鍾喆的信	강태석 저 1975 양지 가로 26.9, 세로 19.4 아카이브 자료 김순이 기증 1997				
	047	잠수복 潛水服 Diving Suit	1960년대 고무, 천 (최대)길이 184.5, 폭 75.0 고고민속 5372 한림수협 기증 1992		048	헬멧 头盔 Diving Helmet	1960년대 청동 가로 28.0, 세로 30.0 고고민속 5369, 5371 한림수협 기증 1992		065	갓모자 笠帽 Gat hat	20세기 말총 높이 15.2, 지름 14.1 고고민속 6855 김유의 기증 1997		066	짚틀 모자 草帽 Straw hat	20세기 흑삼릉 지름 35.1, 높이 11.1 고고민속 6861 서귀포 강정동노인회 기증 1997				
	049	납추 潛水鉛 Napchu (Lead weight for diving)	1960년대 납 가로 22.0, 세로 16.0 고고민속 5376 한림수협 기증 1992		050	잠수화 潛水靴 Diving Shoes	1960년대 고무, 철, 쇠 (1짝)길이 24.0, 폭 10.0, 깊이 32.0 고고민속 5378 한림수협 기증 1992		067	탕건골 宕巾架 Tangeongol (Frame for horsehair sculcap)	20세기 나무 높이 15.0, (바닥)지름 16.0 고고민속 6938 정몽순 기증 1997		068	도민증 道民證 Resident ID card	1954 양지 가로 13.0, 세로 9.5 고고민속 6922 정몽순 기증 1997				
	051	장구 長鼓 Janggu (Double-headed drum used in shamanic rituals)	20세기 가죽, 나무 길이 45.5, 지름 33.5 고고민속 5844 송경남 기증 1994		052	무쇠솥 鐵鍋 Cast iron pot	1960년대 철 지름 74.5, 높이 34.0 고고민속 5727 홍덕주 기증 1994		069	명함 名銜 Business card	20세기 양지 가로 5.9, 세로 9.6 고고민속 6935 정몽순 기증 1997		070	매매대장 買賣帳本 Trade register	20세기 양지 가로 19.2, 세로 26.1 고고민속 6933 정몽순 기증 1997				
	053	탐라지도병서 耽羅地圖並序 Map of Tamna with explanatory notes	1709 한지 가로 128.0, 세로 185.0 고고민속 5922~5923 제주도 관리전환 1994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054	모자골 帽子木 Wooden hat form	20세기 나무 지름 13.6, 높이 13.3 고고민속 6208 김유의 기증 1995		071	주낙 延繩 Junak (Fishing line with multiple hooks)	20세기 나무, 철, 실 높이 9.0, 폭 51.4, 깊이 39.5 고고민속 6914 양경하 기증 1997		072	『제주의 마을(85~93)』 시리즈 조사과정의 녹음테이프 「濟州의村莊(85~93)」系列調査過程의錄音帶 Audio tapes from a series of researches for the "Villages of Jeju Island ('85~'93)"	오성찬 작 1985~1993 마그네틱 오디오 테이프 가로 6.8, 세로 10.9, 폭 1.6 (521개) 아카이브 자료 오성찬 기증 1997				

	073	제주 연안 수중사진 필름 濟州沿岸水中照片底片 Underwater photographs of Jeju Island's coastline	이성환 작 20세기 사진필름 기타사진 1605, 1607, 1611, 1623, 1630, 1635, 3954, 3963, 3964, 3969 이성에 기증 1997		074	붉은바다거북 Loggerhead Turtle <i>Caretta caretta</i>	현생 박제표본 전장 136.0 동물파충류 11 신창초등학교 기증 1998 해양보호생물, CITES I, IUCN 취약종(VU)		091	반달가슴곰 Asiatic black bear <i>Ursus thibetanus ussuricus</i>	현생 박제표본 전장 158.2 동물포유류 94 장백산자연박물관 기증 2004		092	브라이드고래 Bryde's Whale <i>Balaenoptera edeni</i>	현생 골격표본 전장 1295.5 동물포유류 118 안춘자, 안춘옥, 안창순 기증 2004 청해양양보호아생물리,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관심대상종(LC)
	075	입산허가증 入山許可證 Peak Climbing Permit	20세기 양지 (인물사진 有가로 280, 세로 153 인물사진 無가로 280, 세로 160 기타산악 512 이희수 기증 2000		076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 인정서 珠穆朗瑪峰登頂證書 Mt. Everest Summit Certificate	20세기 양지 가로 29.9, 세로 24.2 기타산악 511 이희수 기증 2000		093	청상아리 Shortfin Mako Shark <i>Isurus oxyrinchus</i>	현생 박제표본 전장 320.0 동물어류 587 고태환 기증 2005 IUCN 위기종(EN)		094	양태구덕 編織筐 Basket for placing hat brim	2000년대 이후 대나무 높이 26.4, 폭 39.0, 길이 36.4 고고민속 9150 변규서 기증 2006
	077	무전기 無電機 Walkie-talkie	20세기 철 높이 9.5, 폭 27.7, 길이 8.5 기타산악 516 이희수 기증 2000		078	훈장 및 휘장 勳章證 Certificate of merit	20세기 양지, 천 (전체)가로 40.5, 세로 29.3 기타산악 515 이희수 기증 2000		095	백두산 조면암 白頭山 粗面巖 Mt. Paekdu Trachyte	현생 암석 높이 9.6, 폭 13.5, 길이 12.1 지질암석 1 장백산자연박물관 기증 2006		096	오소리 Asian Badger <i>Meles leucurus</i>	현생 박제표본 전장 83.1 동물포유류 95 장응무 기증 2006
	079	“77KEE 고상돈” 초청기념등반 패넛트기 등 “77KEE 高相敦” 邀請紀念登山隊旗等 Pennant flag and other mementos of the Mt. Everest climb with “77KEE Ko Sang-don”	20세기 복합재질 (액자)가로 56.0, 세로 53.0 기타산악 472 이희수 기증 2000		080	수리부엉이 Eurasian Eagle Owl <i>Bubo bubo</i>	현생 박제표본 전장 64.0 동물조류 867 김칠만 기증 2000 천연기념물 & 멸종위기2급		097	흰꼬리수리 White-tailed eagle <i>Haliaeetus albicilla</i>	현생 박제표본 전장 87.5 동물조류 931 이성자 기증 2006 천연기념물 & 멸종위기2급		098	진홍가슴 Siberian Rubythroat <i>Erithacus calliope</i>	현생 박제표본 전장 17.2 동물조류 956 장백산자연박물관 기증 2006
	081	탄화목 碳化原木 Carbonized wood	현생 나무 높이 11.3, 폭 34.3, 길이 13.2 기타자연물 2 장백산자연박물관 기증 2001		082	흰배지빠귀 Pale Thrush <i>Turdus pallidus Pale Thrush</i>	현생 박제표본 전장 22.8 동물조류 866 김문필 기증 2000		099	큰말뚝가리 Upland Buzzard <i>Buteo hemilasius</i>	현생 박제표본 전장 69.9 동물조류 942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 기증 2006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100	스트로마톨라이트 Stromatolite	현생 암석 가로 42.0, 세로 86.0 지질화석 558 국립중앙과학관 기증 2007
	083	굴수소조 橘叟小照 Portrait of Gyulsu, Moon Baek-min	글 허연 그림 허은 1863 비단에 채색 가로 36.3, 세로 69.0 고고민속 7774 문남준, 문수창 기증 2001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084	높은산지옥나비 Arran Brown <i>Erebia ligea</i>	현생 건조표본 전장 1.5 동물곤충 8220 장백산자연박물관 기증 2001		101	오소리 Asian Badger <i>Meles leucurus</i>	현생 박제표본 전장 66.9 동물포유류 97 한경미 기증 2007		102	남방예 木碓 Wooden mortar	20세기 느티나무 높이 42.0, 지름 90.3 고고민속 9323 신용준 기증 2007
	085	금강산녹색부전나비 Gossamer-winged Butterfly <i>Favonius ultramarinus</i>	현생 건조표본 전장 1.2 동물곤충 8212 장백산자연박물관 기증 2001		086	북방기생나비 Fenton's Wood White <i>Leptidea morsei</i>	현생 건조표본 전장 1.4 동물곤충 8224 장백산자연박물관 기증 2001		103	허벅 水罐 heobeok (Earthenware jug for women to carry water)	20세기 흙 입지름 10.0, 바닥지름 38.0, 높이 35.5 고고민속 9402 양석찬 기증 2008		104	원앙(수컷) Mandarin Duck <i>Aix galericulata</i>	현생 박제표본 전장 42.8 동물조류 990 김종국 기증 2009 천연기념물
	087	논나비 Black-veined White <i>Aporia hippia</i>	현생 건조표본 전장 2.0 동물곤충 8232 장백산자연박물관 기증 2001		088	산꼬마부전나비 Silver-studded Blue <i>Plebejus argus</i>	현생 건조표본 전장 1.3 동물곤충 8214 장백산자연박물관 기증 2001		105	원앙(암컷) Mandarin Duck <i>Aix galericulata</i>	현생 박제표본 전장 43.1 동물조류 991 김종국 기증 2009 천연기념물		106	미상 未詳 Being unknown	가토 쇼린진 작 1964 종이에 수채 (전체) 가로 396.0, 세로 186.2 (8폭) 고고민속 9526 강건영 기증 2009
	089	옥색긴꼬리산누에나방 Japanese moon moth <i>Actias gnoma mandsahurica</i>	현생 건조표본 전장 3.2 동물곤충 8236 장백산자연박물관 기증 2001		090	취래와공 醉來臥空 Chwiraewagong (Drunken, lying in the air)	2004 한지에 먹 가로 67.4, 세로 46.9 고고민속 8896 강창화 기증 2004		107	황말벌집 黃馬蜂巢 Yellow hornet hive	현생 건조표본 높이 61.8, 폭 53.0, 길이 40.5 동물곤충 11058 오충진 기증 2011		108	제주향토기 濟州郷土記 Jeju local records	1958 양지 가로 20.0, 세로 27.0 고고민속 9981 김익수 기증 2012

	109	미역 Sea Mustard <i>Undaria pinnatifida</i>	현생 건조표본 가로 26.1, 세로 36.2 식물해조류 951 이기완 기증 2012
	111	물소중이 潛水小袴衣 Mulsojungi (Cotton diving suit worn by haenyeo)	20세기 면 길이 60.0, 너비 68.0, 허리둘레 73.6 고고민속 10141 고순옥 기증 2013
	113	지새항아리 瓦甔 Earthen jar	일제강점기 흙 입지름 31.0, (최대)지름 54, 높이 70.0 고고민속 10269 서귀포시 강정동 기증 2015
	115	산판 算版 Sanpan (Divination tool)	20세기 철 (산대 1점)지름 122, 높이 29 (상잔 2점)지름 4.4, 높이 17, (천문, 지문 각 1점)지름 5.1 고고민속 10396 송상순 기증 2016
	117	화로 火爐 Brazier	일제강점기 철 높이 20.0, (최대)지름 40.5 고고민속 10836 진군호 기증 2017
	119	덫(새덫) 獲 Trap	현생 나무 길이 89.5 고고민속 10985 고민보 기증 2017
	121	맨틀 포획암 Mantle xenolith	현생 암석 높이 16.3, 폭 34.4, 길이 29.1 지질암석 932 김상돈 기증 2017
	123	영여 靈輿 Yeongyeo (Palanquin for the soul of the deceased)	20세기 나무 높이 79.7, 폭 66.5, 길이 187.7 고고민속 10660 화단재(대표 김주택) 기증 2017
	125	남국의 무가 南國의 巫歌 Shamanic songs of the southern land (Jeju)	1968 양지 가로 15.8, 세로 25.0 고고민속 11953 강상돈 기증 2018
	110	까부리 潛水帽 Kkaburi (Hat worn by haenyeo for diving)	20세기 면 가로 48.0, 세로 35.0 고고민속 10140 고순옥 기증 2013
	112	홀두루마기 單層長袍 Durumagi (Traditional topcoat)	일제강점기 명주 (최대)가로 139.0, 세로 121.0 고고민속 10310 윤경노 기증 2015
	114	낭국자 木湯勺 Wooden ladle	20세기 나무 (완체)길이 45.9, (자루)길이 30.4, (국자)길이 17.4 고고민속 10642 이영숙 기증 2016
	116	남박 木鉢 Wooden bowl	20세기 구실갓발나무 높이 9.6, 폭 31.3, 깊이 24.9 고고민속 10658 강춘생 기증 2017
	118	덫(새덫) 獲 Trap	현생 나무 지름 81.8 고고민속 10983 고민보 기증 2017
	120	U층 未固結堆積層 Unconsolidated sediment form	현생 암석 높이 16.5, 지름 10.5 지질암석 940 김창옥 기증 2017
	122	되 升子 Doe (Box to measure the quantity)	20세기 나무 높이 10.3, 폭 17.2, 길이 17.1 고고민속 10956 김영순 기증 2017
	124	국방난수 菊芳蘭秀 Gukbangnansu (Fragrant chrysanthemums and graceful orchids)	김광추 작 1981 한지에 먹 가로 125.2, 세로 32.3 고고민속 11367 전방언 기증 2018
	126	항아리 甔 Water Jar (mainly used to store drinking water)	20세기 흙 높이 55.6, (최대)지름 44.6 고고민속 11873 강영생 기증 2018
	127	붓걸이와 붓 毛筆架和毛筆 Hanger with writing brushes	20세기 나무 (붓걸이)(최대)지름 14.0, 높이 45.1 (붓)길이 24.6~32.0 고고민속 11344~11360 전방언 기증 2018
	129	마목기 磨墨機 Ink stick grinder	20세기 철 높이 15.3, 폭 40.1, 깊이 21.5 고고민속 11362 전방언 기증 2018
	131	양태 陽太(帽檐) Hat brim	1930년대 나무 높이 2.7, 지름 54.9 고고민속 12005 김익수 기증 2019
	133	남방큰돌고래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 <i>Tursiops aduncu</i>	현생 골격표본 전장 192.0 동물포유류 138 김병엽 기증 2019 해양보호생물, CITES II, IWC 포획금지종, IUCN 준위협종(NT)
	135	상괘이 Narrow-ridged Finless Porpoise <i>Neophocaena asiaeoriental</i>	현생 골격표본 전장 130.0 동물포유류 139 김병엽 기증 2019 해양보호생물,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위기종(EN)
	137	제주시 시내버스승차권 (일반, 중고생) 乗車券 Jeju city bus ticket	2000~2004 양지 가로 6.6, 세로 2.6 고고민속 12256, 12257 전상우 기증 2019
	139	손작두 手鋤刀 Straw cutter	20세기 철, 나무 높이 17.9, 폭 84.5, 길이 140 고고민속 12376 전상우 기증 2019
	141	약절구 藥杵 Mortar and pestle for medical herb	20세기 철 (약절구)입지름 28.7, 높이 23.3, 바닥지름 17.3 (절구공이)길이 39.3 고고민속 12375 전상우 기증 2019
	143	제환기 製丸機 Round pill maker	20세기 철 (최대)높이 81.0, 폭 99.0, 깊이 81.0 고고민속 12835 전상우 기증 2019
	128	먹집게 墨夾 Ink stick holder	20세기 나무 (먹 포함)길이 20.3 (집게)길이 14.5, 너비 5.3, 두께 2.8 고고민속 11341 전방언 기증 2018
	130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개관 당시 사진 필름 濟州民俗自然史博物館開館時的照片底片 Photographs from the opening of the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elf-Governing Province	한석홍 작 20세기 사진필름 고고민속 11892, 11893, 11926, 11936, 11946, 11947, 11948 한정엽 기증 2018
	132	찰구덕 編筐 Waist basket	1960년대 대나무 높이 22.3, 폭 43.1, 길이 37.5 고고민속 12016 오옥단 기증 2019
	134	흑범고래 False Killer Whale <i>Pseudorca crassidens</i>	현생 골격표본 전장 157.0 동물포유류 141 김병엽 기증 2019 해양보호생물, CITES II, IWC 포획금지종, IUCN 준위협종(NT)
	136	참고래 Fin Whale <i>Balaenoptera physalu</i>	현생 골격표본 전장 1260.0 동물포유류 144 주해군(최초 발견·신고자) 기증 2019 해양보호생물,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취약종(VU)
	138	다리미 熨斗 Pressing iron	1970년대 철 높이 17.4, 폭 20.4, 깊이 9.5 고고민속 12249 전상우 기증 2019
	140	약연 藥碾 Medical herb grinder	20세기 철, 나무 높이 11.2, 폭 63.0, 길이 18.6 (축)길이 27.2 (연압)지름 22.0 고고민속 12377 전상우 기증 2019
	142	파쇄기 破碎機 Disintegrator	20세기 철 (최대)높이 102.0, 폭 65.0, 깊이 40.0 고고민속 12836 전상우 기증 2019
	144	대저울 杆秤 Large balance scale	20세기 철, 실, 나무 (철시)지름 7.9, 높이 0.7 (막대)길이 24.74 (추)지름 1.5, 높이 2.5 (몸)길이 29.2, 폭 9.5, 높이 28 고고민속 12383 전상우 기증 2019

	145추저울 案秤 Scale with weights	20세기 철 높이 19.5, 폭 36.0, 깊이 15.0, 고고민속 12384 진상우 기증 2019		146적십자사 조끼 紅十字會背心 Red Cross vest	20세기 천 화장 24.0, 등길이 60.0 고고민속 12338 진상우 기증 2019		163늦양푼 銅盆 Brass bowl	20세기 늦 지름 33.9, 바닥지름 27.6, 높이 11.5 고고민속 13029 박수정 기증 2022		164서진 書鎮 Paperweight	20세기 돌 높이 38.3, 폭 2.7, 깊이 3.0 고고민속 13513 진인자 기증 2022
	147의료용 반사경 頭鏡 Head mirror	20세기 철 높이 19.3, 폭 10.9, 깊이14.0 고고민속 12368 진상우 기증 2019		148온구기 熱灸器 Moxibustion instrument	20세기 복합재질 지름 8.3, 높이 12.2 고고민속 12369 진상우 기증 2019		165벼루 硯台 Byeoru (Inkstone with the handle of the lid carved in the shape of a turtle)	20세기 암석 (전제)높이 44, 폭 18.6, 깊이 12.8 고고민속 13507 진인자 기증 2022		16620세기 제주인명사전 20世紀 濟州人名事典 The Biographical Dictionary of Jeju in the 20th Century	2000 양지 가로 19.2, 세로 26.4 고고민속 13670 진인자 기증 2022
	149한의사 가운 韓醫師大褂 Korean Medicine Doctor's white coat	20세기 천 화장 83.0, 등길이 106.5 고고민속 12340 진상우 기증 2019		150청진기 聽診器 Stethoscope	20세기 복합재질 길이 71.7 고고민속 12370 진상우 기증 2019		167제주사인명사전 濟州史人名事典 The Biographical Dictionary in Jeju History	2002 양지 가로 19.0, 세로 26.4 고고민속 13671 진인자 기증 2022		168제주 향토문화 사전 濟州鄉土文化詞典 The Dictionary of Jeju Folk Culture	2016 양지 가로 21.6, 세로 30.7 고고민속 13673 진인자 기증 2022
	151침통 針盒 Case for acupuncture needles	20세기 철 (닫았을 때)높이 20, 폭 13.3, 깊이 7.8 (열었을 때)높이 11, 폭 13.3, 깊이 14.6 고고민속 12362 진상우 기증 2019		152애월면 공의 진료소 현판 涯月面公衛診療所牌匾 Signboard of the public health clinic in Aewol-myeon	20세기 나무 가로 23.8, 세로 151.9 고고민속 12359 진상우 기증 2019		169김찬흠 연구노트 金粲洽研究筆記 Kim Chan-heup's research notes	20세기 양지 (명균)가로 20.2, 세로 28.3 아카이브 자료 진인자 기증 2022		170안경 眼鏡 Glasses	20세기 유리, 철 길이 13.3, (다리)길이 13.0 고고민속 13553 진인자 기증 2022
	153서재철 사진 필름 徐在哲照片底片 Photographs from Seo Jae-chul	서재철 작 20세기 사진필름 아카이브 자료 서재철 기증 2019		154갓일도구 編笠工具 Tools for making Gat hat	20세기 대나무 (최대)길이 21.8 고고민속 12443 조정삼 기증 2020		171돋보기 放大鏡 Magnifying glass	20세기 유리 지름 10.9, 높이 2.8 고고민속 13500 진인자 기증 2022		172가방 包 Bag	20세기 합성재질 높이 39.0, 폭 28.0, 깊이 8.0 고고민속 13496 진인자 기증 2022
	155바느질자 縫紉尺 Sewing ruler	1950년대 나무 길이 51.4, 폭 2.5 고고민속 12472 양동립 기증 2020		156궤 櫃 Wooden chest	1920년대 소나무, 철 높이 82.5, 폭 98.5, 깊이 46.0 고고민속 12701 김영수 기증 2021		173만년필 萬年筆 Fountain pen	20세기 복합재질 (만년필)길이 13.7 (함)높이 3.0, 폭 21.5, 깊이 7.0 고고민속 13501 진인자 기증 2022		174자료조사위원증 史料調查委員證 ID card for the investigator of historical materials	20세기 양지 가로 7.0, 세로 10.0 고고민속 13471 진인자 기증 2022
	157궤 櫃 Wooden chest	20세기 느티나무, 철 높이 79.4, 폭 96.2, 깊이 44.8 고고민속 12626 김성욱 기증 2021		158체 篩子 Sieve	20세기 나무, 그물 지름 27.5, 높이 8.2 고고민속 12600 오성수 기증 2021		175시광홀불류 時光忽不留 Sigwangholbullyu (Time never stays even for a moment)	현종화 작 20세기 한지에 먹 가로 154.0, 세로 54.8 고고민속 13960 강순옥 기증 2023		176영수가복 永受嘉福 Yeongsugabok (Eternal joy and blessings)	김광추 작 20세기 한지에 먹 가로 153.9, 세로 44.5 고고민속 13952 강순옥 기증 2023
	159물항 水缸 Mulhang (Water Jar mainly used to store drinking water)	20세기 흙 높이 70.0, 입지름 31.0, 몸통지름 54.0 고고민속 12629 김성욱 기증 2021		160푸른바다거북 Green Turtle <i>Chelonia myda</i>	현생 박제표본 전장 100.0 동물파충류 58 김서원 기증 2021 해양보호생물, CITES I, IUCN 위기종(EN)		177욕래조자선수목 欲來鳥者先樹木 Yokraejojaseonsumok (If you wish birds to come, first plant trees)	현종화 작 20세기 한지에 먹 가로 46.5, 세로 154.4 고고민속 13953 강순옥 기증 2023		178탕건 宕巾 Tanggeon (Horsehair sculcap)	20세기 말총 높이 16.8, 지름 17.0 고고민속 14092 이영배 기증 2023
	161재봉틀 縫紉機 Sewing machine	1912 나무, 철 (전제)높이 44.8, 폭 112.8, 길이 41.4 고고민속 12859 양기남 기증 2022		162물구덕 水筐 Mulgudeok (Bamboo basket used to carry and support mulheobeok)	20세기 대나무 (구덕)높이 24.5, 폭 46.2, 깊이 39.5 (받침)가로 48.9, 세로 32.7 고고민속 13236 박정의 기증 2022		179무구류 巫具類 Shamanic ritual objects	고행선 큰심방 유품 20세기 복합재질 고고민속 13833~13912 고만옥 기증 2023			

참고문헌

1. 단행본

고광민, 『제주도 도구의 생활사』, 도서출판 한그루, 2019

고광민, 『제주 도구』, 도서출판 한그루, 2022

고상돈기념사업회, 『정상의 사나이 고상돈』, 도서출판 각, 2008

김병택, 『제주 예술의 사회사-상』, 보고서, 2010

김병택, 『제주 예술의 사회사-하』, 보고서, 2011

김순이, 『방랑의 화가 강태석』, 영주문학사, 1997

김태일, 『제주 도시건축을 이야기하다』,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이성환·제종길, 『이야기가 있는 제주 바다』, 도요새, 2002

전은자, 『제주 바다를 건넌 예술가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제주대학교박물관 편, 『제주의 무구(巫具)』, 제주대학교, 2014

양상호·정광중·문순덕·하순애, 『제주여성의 삶과 공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2007

2. 도록·보고서

국립제주박물관, 『소암 현중화 선생의 삶과 예술』, 2007

봄데강, 『강태석 화집』, 1988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한국의 현대도자 I』, 2003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미술의 어제와 오늘』, 2009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강정마을 윤경노 씨 집안의 옛 생활을 보다』, 2018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故 강태석 화백 유작품 所藏展』, 1997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연보(1984~1994)』, 199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개관 20년사』, 200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서예작가초대전』, 1993

제주특별자치도립 소암기념관, 『청탄 김광추 탄향유구(灘響悠久)』, 2015

3. 논문

강소전, 「제주도 심방의 명두 연구 -기원, 전승, 의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강지은, 「제주 현대미술 그룹의 시작<관점>동인(1977~1997)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56집, 2022

윤범모, 「조양규(曹良奎)와 송영옥(宋英玉)」,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18집, 2007

이안나, 「청강 김영기(金永基, 1911~2003)의 생애와 회화이론-196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43집, 2022

4. 누리집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N문화, <https://www.nculture.org/man/main.do>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topic>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발 행 인 박찬식
기획총괄 부용식
구성·편집 김범수
원 고 김범수, 부슬기든
학예지원 김완병, 김나영, 황이새
유물조사 이기운, 고서현
논 고 부용식
사 진 김병국사진연구실
디 자 인 사가각하우스
인 쇄 (주)홍재인쇄사
전시기획 부슬기든
전시연출 와이아트

인터뷰이 강영자, 강창화, 문성식, 윤경노, 이희수, 진상우, 진인자

발 행 일 2023년 12월 26일

발 행 처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
 TEL. (064)710-7708 / FAX. (064)710-7709
<http://museum.jeu.go.kr>

I S B N 979-11-87075-24-0

발간등록번호 79-6500450-000051-01

Copyright © 2023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All right reserved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수록된 내용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